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해설서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해설서

목차

1

제1부 0~2세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 6 1.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배경
 - 6 1) 표준보육과정 연혁
 - 7 2)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배경
- 10 2.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특징
- 11 3. 해설서의 구성 체계

2

제2부 총론 해설

- 18 1. 표준보육과정의 성격
- 21 2. 표준보육과정의 구성 방향
 - 21 1) 추구하는 인간상
 - 23 2) 목적과 목표
 - 27 3) 구성의 중점
- 30 3. 표준보육과정의 운영
 - 30 1) 편성·운영
 - 34 2) 교수·학습
 - 41 3) 평가



3

제3부 영역별 목표 및 내용 해설

- 46 1. 신체운동·건강
- 88 2. 의사소통
- 112 3. 사회관계
- 136 4. 예술경험
- 160 5. 자연탐구



부록

- 208 1.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 고시문
- 228 2. 표준보육과정(0~2세) 친구대비표
- 240 3.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 한눈에 보기

4

제4부 영아 경험의 통합적 이해

- 194 1. 0~1세 영아 경험의 통합적 이해
- 201 2. 2세 영아 경험의 통합적 이해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해설서

1

제1부

0~2세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1.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배경

- 1) 표준보육과정 연혁
- 2)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배경

2.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특징

3. 해설서의 구성 체계



1.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배경



1) 표준보육과정 연혁

표준보육과정은 0~5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으로서 국가 수준의 보육목표와 영유아가 경험하게 될 보편적인 보육내용을 제시한다.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¹⁾

우리나라는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보육의 법적 토대를 구축하였고, 2004년에 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따라 표준보육과정 개발과 보급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5년에 여성가족부가 「표준보육과정」을 연구, 개발하고 2006년 11월 10일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표준보육과정의 하위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2007년 1월 3일 최초의 표준보육과정인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을 고시하였다.²⁾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세 미만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이 보육현장에 적용되어 왔다. 이후 급변하는 사회와 보육 여건의 변화에 따라 2010년 6월 ‘표준보육과정 개정안 연구’가 시작되었고, 2011년 3월 공청회를 거쳐 고시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5월 2일 정부가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표준보육과정 개정안’ 고시는 잠시 유보되었다. 2011년 9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통과정인 「5세 누리과정」이 고시되면서, 2012년 2월 「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0~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제2차 표준보육과정」을 고시하였다.

「5세 누리과정」 제정에 이어 2013년부터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2012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과 연계한 「3~4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개발되어 2012년 7월에 고시되었고, 동시에 기존의 「5세 누리과정」이 개정되었다.³⁾ 이에 어린이집 0~5세 영유아의 연속적 경험과 연령 간 발달적 연계를 위해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을 개정하였으며, 2013년 1월 「제3차 어린이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41호, 2024. 10. 22., 일부 개정). 별표 8의4.

2) 여성가족부 고시 제2007-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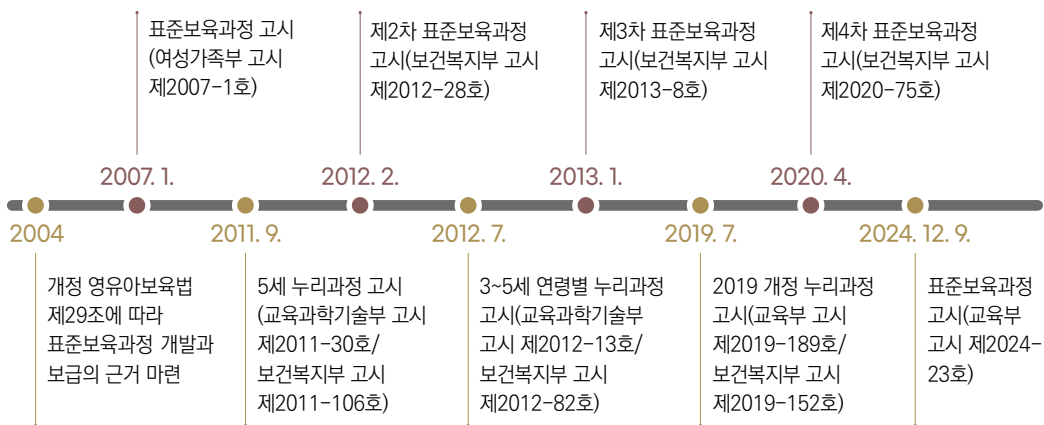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2호.

이집 표준보육과정」을 고시하였다.⁴⁾

2019년 7월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고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0~5세 영유아의 연속적 경험과 연령 간 발달적 연계를 위해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중 총론의 일부와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영역별 목표와 내용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2020년 4월 9일에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고시하였다.⁵⁾

유보통합의 배경에서 2024년 5월에 표준보육과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가 추진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부는 2024년 12월 9일에 0~2세 표준보육과정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표준보육과정 연혁】



2)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배경

교육부는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였다.⁶⁾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교육부는 2024년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에 0~2세 영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 및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0~2세)을 부분 개정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⁷⁾ 이는 영유아기 양질의 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투자는 효과성이 높

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8호.

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5호.

6) 교육부 보도자료(2023. 1. 30.). 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

7) 교육부 보도자료(2024. 6. 27.).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기 때문에 영유아기 교육에 지원을 점차 늘리고 있는 국제적 추세와도 부합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모든 3~5세 유아에게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0~2세 영아는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적용받는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9조(보육과정)에 근거하여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언어적·사회적·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보육해야 한다.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2024년 6월 27일부터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0~5세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에서 모두 담당하게 되었다. 표준보육과정의 개발·보급 주체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되어 어린이집에서 0~2세를 보육할 때에는 교육부 장관이 개발한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하여 보육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된 시점에서 국가 수준의 체계적인 보육과정 운영과 질 관리를 위해 3~5세 교육과정과 더 연계되고 교육적 요소가 포함된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이 필요해졌다.

국제적으로도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유네스코(UNESCO)는 1990년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 세계 선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배움이 시작된다는 원칙을 천명한 이래, 2011년에는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에 0~2세를 위한 교육의 범주를 신설하였다. 한편 OECD는 ‘Starting Strong V(2017)’에서 영아와 유아, 유아와 초등으로의 적절한 연계가 평생학습의 기초가 됨을 강조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발달단계에 따라 자기주도적인 어린 학습자로서 영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2024년 12월에 고시된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은 2025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적용된다. 이 고시문의 특징은 영아의 발달 차이를 고려하여 영아의 보육에서 교육적 요소를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표준보육과정은 영아의 어린학습자로서 자기주도성과 놀이를 통한 배움을 강조하고,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영아가 개인의 발달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교육부는 0~2세 표준보육과정 이해와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시문을 기반으로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해설서, 0~1세 실행자료, 2세 실행자료, 모든 영아를 위한 지원자료를 개발하였다. 해설서는 0~2세 교사가 표준보육과정 고시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도록 고시문 내용을 자세히 해설한 자료이다. 0~1세, 2세 실행자료는 0~2세 교사가 표준보육과정을 실행할 때 영아의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며, 영아의 경험에서 어떻게 배움을 지원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자료이다. 모든 영아를 위한 지원자료는 이주배경 영아, 장애 영아, 발달이 느린 영아 등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영아를 더 잘 지원하도록 도와주는 자료이다.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현장지원자료 4종 소개



해설서



- ‘해설서’는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고시문(교육부 고시 제2024-23호)의 내용을 개정 취지에 근거하여 충실하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 ‘해설서’는 누리과정(3~5세)과의 연계를 강화한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의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0~1세, 2세
실행자료

- ‘실행자료’는 해설서에 근거하여 0~1세와 2세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의 보육과정 실행을 지원하는 자료입니다.
- ‘실행자료’는 교사가 영아를 어린 학습자로 이해함으로써 영아의 일상과 놀이 속에서 배움을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영아 중심 보육과정의 효과적인 실행을 돕는 자료입니다.

모든 영아를 위한
지원자료

- ‘모든 영아를 위한 지원자료’는 이주배경, 장애, 발달이 느린 영아의 놀이와 배움 이해를 지원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모든 영아를 위한 지원자료’는 모든 영아와 만나는 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안내하며, 반응적 지원자로서 보육과정 실행을 돕는 자료입니다.

2.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특징

2024년 12월에 고시된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은 일부 개정이며 개정 특징은 다음과 같다.

- 0~2세 표준보육과정은 국내외 동향을 반영하여 영아를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더 나아가 능동적인 어린 학습자로서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배움을 생성해 가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0~2세 표준보육과정은 0~1세와 2세 보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학습자로서 영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0~1세와 2세로 구분한 기존의 체계를 유지한 것이다.
- 0~2세 표준보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기본생활, 신체운동으로 구분되었던 영역을 신체운동·건강 영역으로 통합하여 총 5개 영역으로 조정함으로써 2019 개정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기본생활 영역의 내용은 신체운동·건강 영역에 포함되었다.
- 0~2세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 목표는 0~1세와 2세를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표준보육과정 목표에서 0~2세 목표가 통합되어 제시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누리과정의 목표 또한 3~5세가 통합되어 제시되므로 2019 개정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고려하였다.
- 0~2세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은 교사가 실행하기 쉽도록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영역별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교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고, 발달 구분이 모호한 부분은 교사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통합하여 기술하되,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내용 수정을 최소화하였다. 이렇게 조정하면서 0~2세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은 0~1세 40개, 2세 42개로 내용의 개수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공통 내용은 6개에서 18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3. 해설서의 구성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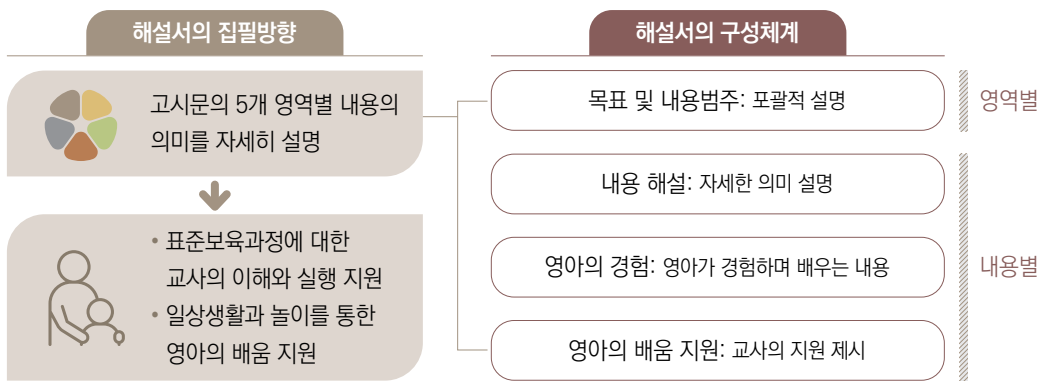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해설서의 총론은 3~5세 누리과정과의 일관성을 위해 기존의 총론과 같은 맥락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영역별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즉 이번 해설서에서는 고시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해설하여 보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들이 고시문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목표와 내용범주는 포괄적으로 설명한 반면, 각 내용은 되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고 교사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영아 경험의 예시를 다양한 사례로 풀어서 설명하였다. 또 영아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는 동안 교사가 영아의 배움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교사들이 고시문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행하여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로 배우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해설서는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에서는 개정된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의 개정 배경과 특징을 설명한다. 제2부는 총론으로서 표준보육과정의 성격, 구성 방향, 운영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다. 제3부는 5개 영역별 목표 및 내용 해설이다. 마지막으로 제4부는 0~1세와 2세의 일상생활 및 놀이 사례를 바탕으로 영아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이다.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해설서의 영역별 집필방향과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다.

【해설서의 집필방향 및 구성체계】



제3부 '영역별 목표 및 내용 해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영역별 첫 장에는 각 영역을 대표하는 사진과 영아의 말 또는 행동을 묘사한 표현을 제시하였다.
- 하단에는 해당 영역과 관련된 영아의 특징, 영역 소개(목표 및 내용), 교사의 지원방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목표	내용
	살내야 하는 신체활동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10 감각 경험과 신체활동을 즐긴다. 20 건강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30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목표는 영아가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고, 대소변을 신체활동을 즐기며, 먹기-엎기 배변 등의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익히며, 교통수단 이용 및 각종 위험 상황에서 성인의 안내에 따라 대처하는 등 기초 안전 의식을 기르는 데 있다.

- 목표에는 해당 영역의 목표와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내용범주	0~1세	2세
신체활동 줄이기	→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 → 신체와 주변을 탐색한다. → 기초 운동을 시도한다.	→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 대소변을 조절한다. → 기본 운동을 즐긴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 신체의 신체활동을 즐긴다. →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 → 음식에 관심을 가진다. →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 본다. →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 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한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 안전한 생활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 안전한 생활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신체활동 줄이기 영아가 오감과 신체운동 감각을 이용해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대소변을 조절하며 실내외에서 기본운동 및 신체활동을 즐겁게 경험하는 내용이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영아가 청결, 음식 섭취, 배변 등에서 청결 기초 능력을 기르고,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며, 규칙적인 일과를 즐겁고 편안하게 경험하는 내용이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영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하고 생활하며, 일상 및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 신호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을 경험하는 내용이다.		

- 내용에는 해당 영역의 내용범주와 내용을 표로 나타내고, 내용범주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 내용범주별 내용 해설에는 단어나 문구로 제시한 뒤 이를 종합하여 전체 문장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 단어나 문구별 설명은 단순한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해당 영역의 특징과 맥락을 반영하고, 이와 관련된 영아의 경험을 중심으로 풀어낸 내용이다.
- 연령 공통내용은 '0~2세 공통', 연령 구분내용은 '0~1세', '2세'로 말머리를 표시하였다.



- 「영아의 경험」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영아가 경험하며 배우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 내용에 따라 제시하는 영아 경험의 분량은 다르나, 공통내용의 경우 0~1세와 2세의 사례를 모두 포괄하고자 하였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이 필요한 경우 제시하였으나, 모든 경험에 대해 사진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영아의 배움 지원」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교사가 영아의 배움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 「영아의 배움 지원」이라는 명칭은 영아 중심 보육과정의 철학에 따라, 교사의 지원을 영아의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영아의 경험」에서 제시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나, 포괄적인 지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영아의 경험과 영아의 배움 지원이 일대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

2

제2부

총론 해설*

* 본 해설서는 0~2세 표준보육과정을 다루지만,
총론은 누리과정과 공통된 내용이므로
중간에 3~5세 관련 내용이 등장할 수 있음.



1. 표준보육과정의 성격

2. 표준보육과정의 구성 방향

- 1) 추구하는 인간상
- 2) 목적과 목표
- 3) 구성의 중점

3. 표준보육과정의 운영

- 1) 편성·운영
- 2) 교수·학습
- 3) 평가



1. 표준보육과정의 성격



표준보육과정은 0~5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이며,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으로 구성한다.

-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 나.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 다. 영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 라. 영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 마. 영유아, 교사, 원장, 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 가는 것을 추구한다.

표준보육과정에는 총론에 앞서 '성격'이 먼저 제시되어 있다. 표준보육과정에 제시된 성격은 국가 수준 보육과정의 구성 체계를 확립하는 출발점이다. 표준보육과정의 성격은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성격의 구성 체계와 연계되고,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격과 같이 영유아기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하여 '영유아 중심 및 놀이 중심'을 강조한다.

표준보육과정은 0~5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이며,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으로 구성한다.

표준보육과정은 각 기관에서 0~5세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정을 운영할 때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가 고시한 것이다. 따라서 0~5세 영유아는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별 없이 양질의 보육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기존의 체계에 따라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으로 구성하였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표준보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보육과정에 대한 공통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을 추구한다. 국가 수준의 공통성은 각 기관에서 보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한다.

지역 수준의 다양성은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보육과정을 특색 있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 수준의 다양성은 각 기관이 국가 수준 보육과정과 지역 수준 보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각 기관의 철학, 담당 반과 부모의 특성에 따라 보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수준의 다양성은 교사가 담당 영유아의 연령 및 개별 특성, 발달 수준 등 개인차를 보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는 영유아를 개별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로 인정해야 하며,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보육과정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나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표준보육과정에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반영되어 있다. 영유아가 전인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은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등의 발달이 어느 한 측면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며,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며, 감성이 풍부하고, 더불어 사는 인간상과 맥을 같이한다. 인간의 삶은 궁극적으로 행복하려는 것이며, 영유아는 자유롭게 놀이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 각 기관에서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 추구를 지원하도록 영유아가 자유롭게 즐겁게 충분히 놀이할 수 있는 보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다 영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놀이 중심’을 추구하는 보육과정이다. ‘영유아 중심’을 추구한다는 것은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유아의 건강과 행복, 놀이를 통한 배움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영유아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보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는 것은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보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유아는 놀이하면서 세상을 탐색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교류한다. 또한 영

유아는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즐겁게 놀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운다. 표준보육과정은 교사가 주도하는 보육과정에서 영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하며 배우는 보육과정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 각 기관에서는 표준보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영유아 주도적인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보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라 영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하는 보육과정이다. 영유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하고, 하고 싶은 일을 직접 선택하며,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책임지는 경험을 하면서 자율성을 기른다. 영유아는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색하고 탐구하며 재미있는 상상을 해 나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놀이를 변형하고 창조하면서 창의성을 기른다. 교사는 영유아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 가는 모습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영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지원한다. 장애 영유아에게는 특수한 도구나 장비를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 영유아, 교사, 원장, 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 가는 것을 추구한다.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와 교사, 각 기관, 지역사회와 가정의 협력 및 참여로 함께 실현해 가는 보육과정이다. 표준보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이 제시하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교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영유아와 함께 보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교사와 원장은 영유아의 관심과 흥미 및 놀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보육과정 운영의 주체이다. 또한 교사와 원장은 부모가 영유아·놀이 중심 보육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부모는 영유아·놀이 중심 보육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영유아가 가정과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충분히 놀이하도록 기관과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각 기관은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인적·환경적·문화적 자원을 통해 영유아가 풍부한 경험을 하도록 보육과정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2. 표준보육과정의 구성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건강한 사람
- 나. 자주적인 사람
- 다. 창의적인 사람
- 라. 감성이 풍부한 사람
- 마. 더불어 사는 사람

표준보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으로서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시한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계하여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배움이 시작된다는 영유아 교육철학을 반영하면서도 영유아의 발달의 차이에 따른 돌봄의 필요성과 자기주도적 배움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 중 ‘건강한 사람’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제시되지 않은 인간상인데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와 정신 건강의 기초를 형성하는 영유아기의 특징을 고려한 것이다. ‘자주적인 사람’은 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변경되었지만, 누리과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관성을 위해 그대로 두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양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만, 영유아기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으로 조정한 것이다.

교사는 영유아가 놀이를 하면서 인간상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영유아가 일상에서 놀이하며 배우는 현재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시에 영유아가 앞으로 배우며 성장해 가야 할 모습이기도 하다.

가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몸과 마음이 고루 발달하고 스스로 건강함을 유지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영유아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놀이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과 즐겁게 교류하며,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스스로 지킨다.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가 튼튼한 몸과 안정된 정서를 바탕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경험을 하면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나 자주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은 자신을 잘 알고 존중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영유아는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끌어 나간다. 표준보육과정은 모든 영유아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다 창의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은 주변 세계에 열려 있고 호기심이 많으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상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탐구하는 가운데 새롭고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영유아는 자연과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물과 문제에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궁금한 것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낸다.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가 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세계를 탐색하고 도전하고 실험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라 감성이 풍부한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예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에 경이감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풍부한 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 영유아는 다양한 사물과 매체, 사람과 자연에 민감하고 주변의 다양한 예술과 문화에 관심을 가지며 그 속에서 아름다움과 재미를 발견한다.

또한 이러한 아름다움을 다양한 언어, 그림과 상징, 노래와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긴다.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가 일상과 놀이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공감하며, 이를 다양한 예술로 표현하면서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마 더불어 사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민주 시민을 의미한다. 영유아는 주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나며, 자신과 친근한 사람 및 주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발적으로 사회질서와 소통 방식을 배워 나간다.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가 가족, 이웃, 동식물과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며,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 책임 의식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2) 목적과 목표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0~1세 보육과정 및 2세 보육과정 목표

-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한다.
- 2)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한다.
- 3)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상상력을 기른다.
- 4) 일상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감성을 기른다.
- 5)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나. 3~5세 보육과정 목표

-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 2)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 3)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 4)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 5)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에는 영유아기의 특징을 반영하여 표준보육과정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표준보육과정의 목적 아래 제시된 목표는 영유아가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성장하려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에서는 ‘놀이를 통해’라는 표현을 제시하여 영유아기의 고유한 특징을 강조하였다. 또한 전통적으로 영유아 보육에서 강조해 온 ‘심신의 건강’, ‘조화로운 발달’과 ‘민주 시민’의 가치를 반영하였다. 인성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에 걸쳐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에 ‘바른 인성’을 유지하였다. 표준보육과정의 다섯 가지 목표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준보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 목표는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가 0~1세 보육과정 및 2세 보육과정 목표

①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한다.

표준보육과정은 영아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아는 놀이를 통해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귀를 기울여 조절하는 경험을 한다. 또한 영아에게는 일상에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기관은 영아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영아가 자신의 신체 리듬에 맞게 생활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지원해야 한다.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영아는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하는 경험을 하며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

②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한다.

표준보육과정은 모든 영아가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알아 가면서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하도록 돕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아는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시도를 함으로써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알아 가며, 자신이 지닌 여러 가지 능력을 알아 가는 경험을 해야 한다. 각 기관은 영아가 자신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영아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경험을 하면서 자주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

③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상상력을 기른다.

표준보육과정은 영아가 주변 세계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풍부한 상상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놀이를 하면서 영아는 자신만의 독특한 상상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낸다. 교사는 영아가 주변 세계에 호기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돕는다.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영아는 호기심을 가지고 상상력을 길러 창의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

④ 일상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감성을 기른다.

표준보육과정은 영아가 일상 속에서 주변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느끼며, 아름다움에 대한 감성을 기르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아는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을 즐기며, 열린 마음으로 자연과 주변 환경을 향유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 각 기관은 영아가 놀이를 하면서 심미적 감성을 키우도록 도와야 한다.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영아는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

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표준보육과정은 영아가 자연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데 관심을 갖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아는 가족과 또래, 이웃과 관계를 맺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영아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으나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함으로써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아 가게 된다. 각 기관은 영아가 놀이를 하면서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영아는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데 관심을 가지며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

나 3~5세 보육과정 목표

①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표준보육과정은 유아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 몸을 다양하게 움직이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귀를 기울여 조절하는 경험을 한다. 또한 유아에게는 일상에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기관은 유아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유아가 자신의 신체 리듬에 맞게 생활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지원해야 한다.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유아는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경험을 하며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

②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표준보육과정은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알고,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초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아는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시도를 함으로써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알아 가며, 자신이 지닌 여러 가지 능력을 확장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 각 기관은 유아가 자신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일을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유아가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하며, 주어진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유아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길러 자주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

③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표준보육과정은 유아가 주변 세계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놀이를 하면서 유아는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독특한 상상을 하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낸다. 각 기관은 유아가 주변 세계에 호기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융통성 있는 발상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일에 열린 태도로 도전하며, 미래에 필요한 독창적인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야 한다.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유아는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 창의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

④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표준보육과정은 유아가 자연과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는 마음을 가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아는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시적 감수성을 예술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기며, 자연과 문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향유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 각 기관은 유아가 놀이를 하면서 문화적 공감 능력과 심미적 감수성을 키우도록 도와야 한다.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유아는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

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표준보육과정은 유아가 자연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 소통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아는 가족과 또래, 이웃과 관계를 맺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또한 유아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으나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험에서 사회적 기술과 태도를 익혀 나간다. 각 기관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소통하는 방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우도록 도와야 한다.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유아는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길러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간다.

3) 구성의 중점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가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임을 전제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구성한다.

- 가.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나.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 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라. 0~5세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 마.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구성의 중점은 표준보육과정을 구성할 때 주요하게 고려한 점을 말한다.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가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임을 전제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구성한다.

모든 영유아는 타고난 기질이나 유전적 특성, 발달 속도, 발달 특성 등 여러 측면에서 개인차를 지닌 존재이다. 따라서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 개개인이 독특하고 고유한 존재로 존중받을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구성하였다. 모든 영유아는 어떠한 편견에도 구애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가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표준보육과정은 각 기관에 다니는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준보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으로서 각 기관에 다니는 0~5세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공통적이고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여 모든 0~5세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을 받도록 구성하였다.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연령, 발달, 장애, 종교나 가족구성, 지역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 때문에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는 보육과정 구성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OECD 교육 2030’에서 살펴본 최근 교육과정의 국제 동향은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미래 사회 역량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역량’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배움의 주체로서 학습자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경험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배움의 방향을 찾아가며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안녕을 추구할 수 있다.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도록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영유아가 놀이하며 배우는 경험과 연계하여 제시하였으며, 표준보육과정 전반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영유아는 즐겁게 놀이하며 배우는 과정에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형성할 수 있다. 교사는 영유아가 놀이 속에서 이러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표준보육과정은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였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누리과정과 연계하고자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으로 조정하였다. 이는 영유아가 표준보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거나 경험해야 하는 내용을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영유아의 경험은 대부분 놀이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놀이는 5개 영역 내용을 통합적으로 포함하므로, 5개 영역의 통합적 실천으로 이해해야 한다.

라 0~5세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0~1세 보육과정은 5개 영역의 40개 내용, 2세 보육과정은 5개 영역의 42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공통내용을 6개에서 18개로 확대하였다. 이는 영아 발달의 연속성과 통합성을 고려한 것이며, 교사가 보육을 더욱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은 연령 구분 없이 5개 영역의 59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 내용에는 0~5세 영유아가 기관에서 경험해야 할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영유아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가 주체가 되는 보육과정을 말한다. 또한 영유아가 생활하며 직접 경험한다는 점에서 추상적 지식이 아니라 보육과정의 실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영유아의 경험은 대부분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이루어지므로, 교사는 영유아가 일상생활과 놀이하면서 배우는 실제 내용을 존중하고 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유아·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실천해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예단하여 이해하지 않고, 영유아가 자신의 연령과 발달에 따라 자연스럽게 놀이하며 배우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연령에 따라 많은 세부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영유아가 스스로 놀이하며 배우는 경험을 중심으로 보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마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표준보육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표준보육과정 내에서는 0~1세, 2세 보육과정 내용과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 내용이 분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도록 교육내용의 계열성을 포함하여 체계와 형식을 통일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과 목표 등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형식은 통일하되, 영유아기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은 초등학교 교육내용을 상회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구성하되, 3~5세의 경험과 초등학교 1학년에서의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하였다.

3. 표준보육과정의 운영



1) 편성·운영

다음의 사항에 따라 표준보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가. 각 기관의 운영 시간에 맞추어 편성한다.
- 나.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다.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 라.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 마. 영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 바.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 사. 교사 연수를 통해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편성·운영은 각 기관에서 영유아·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려면 고려해야 할 공통 기준을 안내한 것이다.

가 각 기관의 운영 시간에 맞추어 편성한다.

보육과정의 편성은 국가에서 고시한 표준보육과정을 개별 기관 수준에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각 기관의 보육과정을 편성할 때에는 각 기관의 일과 운영 시간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운영 시간은 영유아가 편안하고 즐겁게 보육내용을 경험하도록 휴식과 낮잠 등의 일상생활을 포함하여

영유아 중심으로 놀이가 살아나는 영유아·놀이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표준보육과정 운영 시간은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각 기관은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인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계획안에는 교사가 각 기관과 반 수준에서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미리 생각하여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표준보육과정은 계획안 수립에서 각 기관과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영유아의 경험이 교육적 가치를 지니도록 놀이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교사의 지원 방안을 기술해야 한다.

• 자율적인 계획 수립

각 기관은 보육철학, 가정과 지역사회의 특성, 영유아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교사는 기존에 활용한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을 각 기관 및 반의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즉 계획안의 종류, 형식, 분량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관 수준에서 매년 작성하는 연간 계획 이외에 월간과 주간, 주간과 일일 계획을 통합하거나 각 기관 및 반의 특성에 따라 간단한 일지 등을 활용하여 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기관에서 배부하는 계획안을 영유아가 활동할 내용을 미리 계획하여 안내하는 방식에서 영유아가 실제 놀이한 내용과 배움 기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계획안 작성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는 미리 계획하여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는 영유아가 놀이하며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안을 기술할 수 있다. 표준보육과정에서의 계획안은 영유아가 실제 놀이한 내용과 놀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되 자율적인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는 영유아가 실제 경험한 놀이 내용과 그에 따른 교사의 놀이 지원 계획을 기술하는 형식이며, 기존의 방식에 비해 사전 계획을 최소화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는 특징이 있다. 교사는 필요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사항, 영유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항 등을 계획할 수 있다.

계획안을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사전 계획을 최소화함으로써 교사는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 교사는 자율적인 계획 수립의 의미를 계획안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나 단순히 업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영유아·놀이 중심 보육과정에서는 교사가 미리 계획하여 하루 일과를 운영하기보다는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를 충분히 즐기도록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융통성 있는 하루 일과 운영

각 기관에서는 하루 일과를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영유아는 하루 일과에서 놀이, 일상생활, 활동 등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 놀이는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하루 일과 중 가장 길게 우선적으로 편성·운영하여 영유아가 충분히 놀이하도록 한다. 일상생활에 포함되는 등원, 손 씻기, 화장실 다녀오기, 간식, 점심, 낮잠, 휴식 등은 영유아의 신체 리듬을 반영하여 편성·운영함으로써 영유아들이 즐겁게 하루를 보내도록 한다. 활동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움을 확장하도록 돕는 교사의 지원이다. 교사는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대로 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사는 미리 계획한 활동을 모두 해야 한다거나 정해진 순서대로 일과를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의 흐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일과를 운영하도록 한다.

• 하루 2시간 이상 충분한 놀이시간 운영

놀이시간은 짧게 여러 번 제공하기보다 긴 시간으로 편성하여 놀이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영유아가 충분히 놀이에 몰입하도록 한다. 교사는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놀이시간을 2시간 이상 확보하되, 날씨와 계절, 기관의 상황, 영유아의 관심사와 놀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편성·운영한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날씨 등을 고려하여 바깥 놀이를 실내 놀이로 바꿔 운영할 수 있고, 다른 날에 바깥 놀이를 길게 편성할 수도 있다.

라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가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편성·운영해야 한다. 모든 영유아가 다른 사람의 특성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존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사는 성별, 신체적 특징 및 장애 유무에 따라 영유아를 비교하고 평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영유아에게 고정적인 성 역할과 특정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영유아에게 다양한 가족 형태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 영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영유아는 놀이 시 연령 및 발달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연령이 같은 영유아일지라도 흥미, 관심, 경험, 발달, 가정의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놀이하도록 보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모든 영유아는 또래 영유아와 함께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특별한 요구를 하는 영유아도 차별하지 말고 또래와 더불어 생활하고 함께 놀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사는 모든 영유아가 보편적인 환경에 접근하고 참여하도록 보육환경, 보육내용, 보육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각 기관에서는 통합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사는 장애 영유아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장애 영유아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하게 보육해야 한다. 장애 영아를 위해서는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다. 이때 보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부모, 특수 교사, 사회복지사, 의료진 등 가족과 관련 기관의 전문가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 특별히 고안된 장치나 보조기구,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가 보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바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영유아가 속해 있는 가정, 기관, 지역사회 등은 모두 보육과정의 주체이므로 상호 연계하고 협력해야 한다. 영유아·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데는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모는 영유아의 놀 권리와 즐겁게 놀이하며 배우는 놀이의 가치를 이해하여 가정에서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에서는 부모 참여, 간담회, 워크숍, 상담 등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여 부모와 가족의 역할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영유아의 다양한 경험을 지원하는 풍부한 자원이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영유아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이나 장소를 직접 경험하면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각 기관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 문화예술 단체와 시설, 공공기관 및 지역 인사 등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경험을 확장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각 기관을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표준보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한다.

사

교사 연수를 통해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보육과정의 주체이자 영유아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전문가이다. 표준보육과정에서는 보육과정의 실행자로서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표준보육과정을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면 교사 연수가 필수이다. 각 기관을 지원하는 국가 및 지역 기관에서는 다양한 교사 연수를 마련해 교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교사 연수는 교사가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 배움 공동체, 소모임 등을 포함한다. 교사는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필요 정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연수에 참여하여 표준보육과정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수·학습

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영유아를 지원한다.

- 가. 영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 나.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 다.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 라. 영유아와 영유아, 영유아와 교사, 영유아와 환경 사이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마.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영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 바.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사. 영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교수·학습은 영유아가 즐겁게 놀이하며 스스로 배우도록 교사가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영유아 및 놀이 중심을 추구하는 표준보육과정에서는 교사를 영유아의 놀이 지원자로 제안한다. 교사는 놀이의 특성, 의미, 가치를 이해하여 영유아가 즐겁게 놀이하면서 배우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교사는 적절하게 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와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하여 영유아가 놀이에 몰입하고 놀이를 확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영유아를 지원한다.

교수·학습은 교사가 보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영유아의 놀이와 경험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가 영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표준보육과정에서는 모든 영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하고 주도하는 놀이를 강조한다.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는 영유아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끌어 가는 놀이를 의미한다. 교사는 놀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유아가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영유아는 놀이하며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고 즐겁게 배우며 성장한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자연, 사물, 사람 등을 만나며 세상과 교감하는 방식은 놀이를 통해 깊어진다. 영유아에게 놀이는 삶이자 삶의 방식이다. 영유아는 놀이에서 자신이 경험한 세상을 재구성하며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간다. 교사는 영유아가 반복적으로 놀이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성인의 간섭과 통제가 최소화되고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 환경과 만날 때 영유아는 활발하게 놀이를 주도한다. 따라서 교사가 미리 준비한 놀이를 선택하게 하기보다는 영유아가 자유롭게 놀이하며 즐기는 방식으로 바꿔 가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에 내재된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고 영유아가 놀이를 지속하고 몰입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사는 놀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는 영유아의 놀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영유아가 필요로 하는 놀이 자료, 공간, 안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나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표준보육과정은 놀이를 통한 영유아의 배움을 강조한다. 영유아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놀이하며 배울 수 있지만, 기관에서 경험하는 놀이는 교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더욱 유의미한 배움이 될 수 있다. 교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영아에게 놀이는 세상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교사는 영아의 반복되는 놀이를 존중하고 그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도록 해 주되, 영아가 새로운 놀이도 탐색해 보도록 영아 개인의 리듬을 고려해 지원해 주어야 한다.

• 놀이를 통한 배움의 이해

영유아는 놀이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과 교감하며 성장해 간다. 놀이는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어지고 끊어지며 새롭게 생성되어 가는 연속적 과정이며 이는 곧 배움의 과정과 같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를 배움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해야 한다.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경험하는 배움을 5개 영역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표준보육과정의 각 영역은 기관에서 경험해야 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배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 아니라 영유아가 즐겁게 놀이하면서 배우는 내용이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에서 나타나는 통합적 경험을 영역별 내용과 연결해 보면서 놀이를 통한 영유아의 배움을 이해할 수 있다.

• 놀이와 연계한 활동을 통한 영유아의 배움 지원

교사는 일상생활 경험과 활동에도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여 영유아가 즐겁게 경험하며 배우도록 지원해야 한다. 활동을 운영할 때 교사는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의 내용과 활동이 연계되도록 지원하여 영유아가 즐겁게 배우도록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영유아가 놀이에 부합하면서 영유아의 흥미나 관심과 관련된 동화 듣기, 노래 부르기, 요리하기, 게임 등을 제안하여 즐겁게 놀이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가 자신의 놀이를 또래들에게 소개하기, 놀이 규칙 정하기, 특정 관심사를 함께 알아보기 등 상황에 따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만일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려고 다양한 활동을 계획했다라도 이는 영유아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영유아의 흥미나 관심 등을 고려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생활 주제에 따라 활동을 진행하기보다는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와 연계하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일상생활 습관 지도나 안전 교육을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유아는 실제 생활 경험에서 의미 있게 배우므로 교사는 일과 중 적절히 개입하여 영유아를 지원할 수 있다. 기관에서는 영유아가 놀이 안전과 생활 안전을 지키고, 위험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 교육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 예방과 방지,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이 있으며, 이는 안전 교육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영유아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지도한다. 영아의 경우는 대집단 형태로 교육하는 것보다 놀이와 연계하거나 전이 시간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안전 교육을 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 자율성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놀이 배움 지원

표준보육과정에서는 놀이에서 영유아의 배움을 지원하고자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영유아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놀이하기 때문에 놀이를 예측하기 어렵다. 교사는 영유아의 특성, 안전, 놀이

환경, 자료, 날씨, 기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놀이를 지원해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가 놀이하며 배우도록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교육적 판단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가 자신이 계획한 주제나 활동과 다르게 놀이하더라도 영유아의 놀이를 존중하여 계획된 활동을 변경할 수 있다.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영유아의 놀이를 바라만 보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배움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교사는 영유아가 놀이하며 경험한 내용을 관찰하고, 놀이에서 나타나는 배움에 주목하여 이를 기록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를 지원할 때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교사는 계획안을 활용하여 영유아가 실제 놀이한 내용을 적합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른 교사의 지원 내용도 함께 작성할 수 있다. 계획안은 영유아가 놀이하며 배우는 과정을 이해하는 자료가 되며, 이를 작성하면서 영유아에게 필요한 놀이 지원도 함께 계획할 수 있다.

다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표준보육과정에서 놀이 환경은 영유아가 놀이하는 실내외 모든 공간과 놀이 자료를 포함한다. 영유아가 보고 듣고 만지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은 다양한 놀이를 하는 데 중요한 교육적 자원이다. 따라서 교사는 실내외 놀이 환경과 놀이 자료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공하여 영유아의 놀이가 활성화되도록 돕는다. 이러한 환경과 자료는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영유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특성과 요구에 적합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 다양하고 안전한 실내외 놀이 공간 구성

각 기관의 실내 공간은 영유아에게 가장 친숙한 놀이 환경이다. 교사는 놀이 공간을 구성하고 변형해 나가며 영유아의 자유로운 놀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실내 공간은 영유아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영유아가 흥미를 보이지 않는 영역은 다른 영역과 통합하여 재구성하거나 다른 영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영유아의 관심과 흥미, 요구에 따라 새로운 영역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영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 영역을 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영아의 경우에는 몸을 움직여 탐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복도나 계단, 구석진 공간 등 영유아가 놀이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은 먼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 후에 놀이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실외 공간은 영유아가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과 계절의 변화를 만나고 탐색하는 놀이 환경이다. 교사는 영유아가 몸을 충분히 움직여 즐겁게 놀이하고 위험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실외 놀이 환경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과 자료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가 활발한 신체 움직임을 바탕으로 모험과 도전을 통해 궁금한 것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실외 자투리 공간, 텃밭, 통로, 작은 마당 등은 공간의 특성과 안전을 고려하여 놀이 환경으로 구성하며, 기관의 상황에 따라 인근 공원과 놀이터 등도 놀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풍부한 놀이 자료 제공

놀이 자료는 영유아가 놀이에 사용할 수 있는 놀잇감, 매체, 재료와 도구 등을 포함한다. 영유아에게 놀이 자료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 상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수단이자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물이다. 특히 영아에게는 발달 특성에 맞게 크기, 감촉, 모양, 색, 기능 등을 고려하여 놀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교사는 영유아에게 일상의 평범한 사물, 자연물, 악기, 미술 재료, 그림책, 재활용품 등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으며, 계절이나 행사, 국경일과 관련된 자료는 시기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비구조적인 열린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영유아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영유아가 찾아낸 새로운 놀이 자료나 창의적인 놀이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놀이 자료를 제공할 때는 영유아가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자료의 사용 방법이나 놀이 방식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라

영유아와 영유아, 영유아와 교사, 영유아와 환경 사이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각 기관에서 영유아는 또래, 교사 및 자신을 둘러싼 환경 등과 관계를 맺으며 성장한다. 또한 영유아는 놀이에서 또래와 교사, 자연환경 등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배워 나간다. 특히 영아는 또래 간 상호작용과 함께 교사와 애착과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영유아가 놀이에서 만나는 다양한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상호작용하며 배움을 지원해야 한다.

• 영유아 사이의 상호작용

영유아가 주도하는 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운영하면 영유아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고 빈번하게 일어난다. 영유아는 또래들과 함께 놀이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또래의 의견을 듣고 때때로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더 재미있게 놀이하려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수용하여 조절하는 경험도 할 수 있다. 교사는 영유아가 자유롭게 활기차게 놀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고 영유아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

• 교사와 영유아의 상호작용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에 귀 기울여 놀이의 의미와 배움을 발견하고, 이를 확장하도록 다양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가 흥미와 관심을 두는 것에 함께 주목하고, 칭찬, 격려, 미소, 공감 등 정서적 또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영유아의 놀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격려한다. 교사는 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려고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교감하며 놀이를 지원하는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이때 영유아의 놀이에서 나타나는 상상력, 사물을 의인화하여 이해하는 영유아의 독특한 놀이 표현을 지지하고 교감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와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공동 놀이자로서 놀이 중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면서 영유아의 배움을 이끄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 영유아와 환경의 상호작용

영유아·놀이 중심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영유아와 환경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은 영유아의 놀이가 활성화되는 배경이자 영유아가 다양한 배움을 경험하는 원천이 된다. 영유아와 환경의 상호작용은 영유아 주변의 친근한 공간, 자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모든 환경과의 교감을 포함한다. 영유아는 놀이에서 다양한 사물, 자료, 자연물 등을 만지고 움직여 보며 새로운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창의적 표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영유아는 물과 모래, 블록과 종이 등을 가지고 매일 다른 놀이를 하며 즐긴다. 또한 종이로 접은 새에게 물을 먹여 주기도 하고, 나뭇잎이 떨어진 나무를 चु다고 감싸 주며 즐거워한다. 영유아가 환경과 교감하면서 표현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영유아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배우는 과정이다. 영유아는 스스로 환경을 충분히 반복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배워 나가므로, 교사는 영유아의 환경 탐색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존중하며 영유아가 환경과 즐겁게 상호작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영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교사는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된 각 영역이 영유아가 놀이하며 통합적으로 경험하는 내용임을 이해해야 한다. 각 영역을 영유아의 경험과 연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영유아는 놀이하며 표준보육과정 영역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경험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는 모래놀이를 하면서 신체를 움직이고, 또래와 대화하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모래와 물을 섞으며 물질의 변화에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이처럼 영유아는 놀이에서 여러 영역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며, 이러한 경험은 영역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에서 각 영역이 자연스럽게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영유아가 놀이하며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영역의 내용은 정해진 주제 이외에도 영유아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다양하게 통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는 영유아가 놀이하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계절이나 지역사회 문화와 환경 같은 친근한 주제, 영유아가 놀이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동화나 곤충, 그네와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경험과 각 영역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영유아가 관심을 가지는 그림책, 사물, 우연한 상황 등도 충분히 영유아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자원이 될 수 있다. 교사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놀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각 영역을 다양한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영유아의 경험과 연계하여 지원해야 한다.

바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관에서는 영유아의 일과에 놀이와 휴식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운영하되, 개별 영유아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기관에서는 영유아의 건강 상태, 날씨나 계절, 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일과를 획일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배변, 낮잠, 휴식 등 영유아마다 다른 신체 리듬과 정서 상태를 반영하여 운영해야 한다. 교사는 놀이 상황과 개별 영유아의 요구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일과를 원활하게 운영해야 한다. 특히 영아는 기관에 오면서 가정에서 생활하던 신체 리듬과 달라지는 변화를 겪게 된다. 영아의 월령이 낮을수록 개별 일과 운영은 더욱 중요하다. 교사는 영아가 기관의 일상생활과 신체 리듬에 잘 적응하도록 충분히 기다려 주며 지원해야 한다.

사 영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운다.

교사는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장애, 배경 등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개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움을 지원해야 한다. 영유아는 서로 다른 관심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맥락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놀이하고 배운다. 같은 연령이라도 영유아의 특성이 다르듯이 영유아가 놀이하는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또한 영유아가 가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가치 있게 여기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교사는 영유아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원하도록 발달 특성이나 장애 정도, 문화적 배경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다.

3) 평가

평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 가.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 나. 영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 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 라. 평가의 결과는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표준보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표준보육과정에서 평가는 기관에서 영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보육과정의 운영을 되돌아 보고 개선해 가는 과정이다. 놀이와 배움, 기록, 보육과정 계획의 수립과 실행 및 평가는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순환적 과정에서 동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준보육과정에서는 기관에서 영유아·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얻도록 평가를 간략화하고 각 기관의 자율적인 평가를 강조하였다. 각 기관은 평가의 목적, 대상, 방법, 결과의 활용을 바탕으로 표준보육과정 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평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가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평가의 목적은 영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표준보육과정 운영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그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각 기관에서는 지역 특성, 각 기관 및 반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하여 표준보육과정 운영을 개선하도록 자율적으로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평가의 내용, 주기 및 시기,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은 각 기관 구성원이 민주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나

영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평가는 영유아 평가와 표준보육과정의 운영 평가로 이루어진다. 영유아 평가는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행복과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서 영유아의 고유한 특성이나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의 배움과 성장을 돕도록 평가를 할 수 있다. 교사는 영유아의 배움이 나타나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서 영유아가 가장 즐기고 잘하는 것, 놀이의 특성, 흥미와 관심, 또래 관계, 놀이를 이어 가기 위한 자료의 활용 등에 주목하여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이로써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표준보육과정 운영 평가는 각 기관의 보육과정이 영유아 놀이 중심으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준보육과정 운영 평가에서는 놀이시간을 충분히 운영하였는지, 영유아 주도적인 놀이와 배움이 이루어졌는지, 놀이 지원이 적절한지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놀이에서 나타나는 영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부모와의 협력이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도 평가할 수 있다.

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평가 방법은 평가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기관은 평가 목적에 가장 적합한 평가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교사는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자 영유아의 실제 놀이 모습을 계획안에 기록할 수 있고, 놀이 결과물과 작품 등을 일상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영유아의 놀이를 관찰할 때에는 영유아의 말, 몸짓, 표정 등에서 드러나는 놀이의 의미와 특성 및 영유아의 요구나 주변 사람과의 소통에 주목하여 이 중 필요한 내용을 메모나 사진 등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기록한다. 이러한 관찰기록 자료는 반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계획안에 포함하여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관찰 및 기록을 성찰함으로써 영유아의 놀이와 삶에서 나타나는 배움의 의미와 성장 과정을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다.

교사는 개별 영유아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기보다는 배움이 나타나는 또래 사이의 놀이나 활동 등 영유아가 일상에서 놀이하며 배우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는 평가를 해야 한다. 교사는 각 영역의 내용을 영유아가 도달해야 할 목표나 성취해야 할 기준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 영유아가 놀이하며 영역별 내용을 경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기보다는 그러한 경험에서 어떤 배움이 일어났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표준보육과정 운영 평가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따라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기관이나 반별 상황이나 필요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표준보육과정 운영을 평가한다. 표준보육과정에서

는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 관찰기록, 영유아 평가와 표준보육과정 운영 평가 등 평가 자료를 만들고 수집하는 데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영유아의 놀이에 더 집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라 평가의 결과는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표준보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서 수집한 자료를 평가 목적에 맞게 종합하여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영유아 평가 결과는 영유아가 행복감을 느끼고 전인적으로 발달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활용해야 한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적 및 목표 등에 비추어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이해하고 영유아의 배움과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수집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영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이를 부모와의 면담자료 및 영유아 생활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자율적인 방식으로 실시한 표준보육과정 운영 평가의 결과는 각 기관에서 보육과정을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해설서

3

제3부

영역별 목표 및 내용 해설



1. 신체운동·건강

2. 의사소통

3. 사회관계

4. 예술경험

5. 자연탐구



1

신체운동 · 건강



비눗방울을 잡아 볼까, 살살?

영아는 오감을 통한 탐색과 신체운동 경험에서 신체를 인식하고 대소근육을 조절하며 운동 능력을 발달시켜 간다. 또한 위생, 청결, 식사, 배변 활동 및 안전을 성인에게 완전히 의존하던 것에서 점차 스스로 하고자 하는 독립심과 자율성을 발달시켜 간다.

신체운동·건강 영역은 영아가 감각과 신체를 활용하여 환경을 탐색하고 운동 능력을 발달시키며, 청결·식사·배변·휴식 등에서 건강한 생활의 기초를 경험하고, 놀이 및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경험을 해 보는 내용이다.

교사는 영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대소근육과 신체 협응의 활동을 즐겁게 경험하고, 청결·식사·배변·휴식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위험 신호에 반응하다 점차 스스로 조심하는 등 안전을 위한 기초 습관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목표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 1) 감각 경험과 신체활동을 즐긴다.
- 2) 건강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 3)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신체운동·건강 영역의 목표는 영아가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고, 대소근육 신체활동을 즐기며, 먹기·씻기·배변 등의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익히며, 교통수단 이용 및 각종 위험 상황에서 성인의 안내에 따라 대처하는 등 기초 안전 의식을 기르는 데 있다.

내용

내용범주	내용	
	0~1세	2세
신체활동 즐기기	•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	
	• 신체와 주변을 탐색한다.	•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 기본 운동을 시도한다.	• 기본 운동을 즐긴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	•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해 본다.
	• 음식에 관심을 가진다.	•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 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한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	
	•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신체활동 즐기기

영아가 오감과 신체운동 감각을 이용해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대소근육을 조절하며 실내외에서 기본운동 및 신체활동을 즐겁게 경험하는 내용이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영아가 청결, 음식 섭취, 배변 등에서 점차 자조 능력을 키우고,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며, 규칙적인 일과를 즐겁고 편안하게 경험하는 내용이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영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하고 생활하며, 일상 및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 신호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을 경험하는 내용이다.

내용범주

신체활동 즐기기

내 용

0~2세 공통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

다양한 감각은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접하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오감과 균형감 등의 신체운동 감각을 의미한다.

경험한다는 일상과 놀이의 다양한 맥락에서 영아 스스로 또는 교사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아가 성인이나 또래의 생김새와 목소리,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 주변에서 접하는 식물이나 놀이 자료의 모양과 향, 촉감, 음식의 맛 등을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다. 또한 몸을 움직일 때 일어나는 신체 위치와 자세, 균형의 변화 등을 느끼는 것도 포함된다.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는 영아가 오감 및 신체운동 감각을 통해 자신과 타인 및 주변 환경에 대해 알아가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성인과 의 눈맞춤이나 흔들리는 모빌 등 가까운 곳의 물체부터 초점을 맞추다가 점차 멀리 떨어진 물체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색을 지각하게 되면서 풍부한 시각적 경험을 한다.
- 영아는 다양한 방향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에 미소, 고개 돌리기, 웅얼이 등의 방법으로 반응한다.
- 영아는 손에 놀잇감이나 악기를 쥐고 흔들거나 두들기며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 본다.
- 영아는 자신이 사용하는 담요의 냄새를 맡거나 얼굴에 대며 촉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낀다.
- 교사가 수유하거나 기저귀를 갈아 주면서 신체를 만지고 미소 짓고 이야기할 때 영아는 시각, 청각, 촉각적 자극을 느끼며 즐거워한다.
- 영아는 수유에서 점차 이유식과 고형식으로 이동하며 음식을 입에 넣고 다양한 맛과 향을 경험하고 새로운 맛과 질감을 느낀다.

- 영아는 점토를 두드리고, 꺾 누르고, 찢고, 찌고, 손으로 쥐거나 냄새를 맡는 등 물체를 여러 감각과 방법으로 탐색한다.



- 영아는 자주 접하는 성인과 또래의 목소리, 좋아하는 담요와 인형 등 친숙한 물체의 감촉을 기억하고 구별한다.



- 영아가 접하는 환경이 점차 확장되면서 더 다양한 사물, 자연, 사람에 대해 복합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한다.

- 영아는 물과 모래, 점토, 스펀지, 종이와 천, 비누 거품 등 다양한 물질과 도구를 사용하면서 감각적 경험을 한다.



냄새, 촉감, 맛, 소리 등으로
간식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영아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놀이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영아가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하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비가 오면 비 오는 소리, 모습, 냄새나 만지면 느껴지는 감촉 등에 대해 영아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 교사는 다양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월령별 발달을 고려한 적절한 모빌이나 책을 제공하고, 창문을 열어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촉감이 다양한 사물과 놀잇감을 제공하고, 장르와 리듬이 다양한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
- 영아가 주도적으로 감각적 경험을 시도하도록 교사는 영아에게 새롭거나 영아의 선호와 흥미를 반영한 사물이나 놀잇감을 제공하는 등 동기를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 교사는 영아가 하는 감각적 경험이 통합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간식으로 사과를 먹을 때의 맛, 씹을 때의 소리, 사과의 향이나 색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 교사는 영아의 월령이 어릴수록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다양한 감각을 경험할 수 있게 지원한다. 예를 들어, 상황에 맞는 교사의 목소리 톤, 수유를 하거나 기저귀를 갈 때의 따뜻한 목소리, 영아가 볼 수 있는 거리에서의 상호작용, 낮잠을 잘 때 촉감이 다양한 담요나 천 등이 해당된다.
- 교사는 영아가 감각적 경험을 할 때 “시원한 물을 마시더니 ‘하!’ 하는 소리를 내는구나”와 같이 민감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 교사는 감각적 경험에서 영아가 선호하는 것과 선호하지 않는 것에 공감해 주며, 점차 수용 범위를 넓혀 가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모래를 만지니 불편하구나”와 같이 공감해 주고,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즐겁게 모래놀이를 하는 교사와 또래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조금씩 감각적 경험을 시도하도록 지원한다.

0~1세

신체와 주변을 탐색한다.

신체는 눈·코·입을 포함한 얼굴, 목·가슴·배·등으로 이루어진 몸통, 손발·팔다리·손가락·발가락을 포함하는 **영아의 몸**을 의미한다.

주변은 영아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교사와 또래 등의 **사람**, 생활용품과 놀잇감 등의 각종 **사물**, 기관의 **실내 외 공간**을 포괄하는 **인적·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탐색한다는 영아가 **오감과 신체운동 감각을 이용하여** 색깔, 형태, 크기, 촉감, 소리, 무게 등 **다양한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는 주변 자극을 바라보거나 귀 기울이고 냄새 맡고 입으로 빨아 보고 손으로 만져 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사물을 직접 찾아 쥐거나 흔들고 두들기고 올라타 보고 쓰다듬고 안아 보는 등의 움직임을 통해 신체와 주변의 특성을 파악해 간다.

신체와 주변을 탐색한다는 영아가 안전한 인적·물리적 환경에서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신체와 주변의 특성을 알아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신체를 조절하고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임을 경험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따뜻한 물체와 차가운 물체를 만져 보고, 온도에 따라 차가운 물체를 만졌을 때 나타나는 움츠리는 반응과 같이 차별적인 신체 반응을 경험하며 신체를 자각한다.
- 영아는 손에 다양한 물체를 쥐고 반복적으로 흔들거나 던졌을 때 물체가 만들어 내는 소리와 느낌의 차이를 실험하고 즐거워한다.
- 영아는 교사의 발소리, 또래가 내는 소리, 창문 여닫는 소리 등 친숙한 소리를 듣고 인식하며, 주변에서 신기한 소리가 들리면 움직이던 것을 멈추고 귀 기울인다.
- 영아는 좁은 공간에 들어가거나 넓은 공간을 걸어 다니며, 밝기나 크기 등 공간의 특성에 따라 신체를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좋은지 탐구한다.



- 영아는 인형과 같은 부드러운 물체는 조심스럽게, 플라스틱 놀잇감과 같이 딱딱한 물체는 더 강하게 잡는 등 사물에 따라 쥐는 힘을 점차 구분하여 조절한다.



물체를 입으로 가져가 빨며
촉감을 느껴 보는 영아



소리 나는 놀잇감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영아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가 신체와 주변을 탐색할 때 영아의 탐색 경험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입에 넣으면) “손가락이 부드러워! 입에 가득 차게 넣었네!”, (기저귀를 갈 때 물티슈가 달아서 움찔하면) “차가웠구나!”, (딸랑이를 세게 흔들면) “세게 흔들었더니 더 큰 소리가 나네!”와 같이 구체적으로 반응해 준다.
- 교사는 영아가 신체와 주변을 탐색할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영아가 자신이 주변과 분리된 존재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 가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단추를 눌렀더니 인형이 튀어나오네.”, “세게 밀었더니 블록이 넘어졌네!”와 같이 영아가 행위의 결과를 인식하도록 반응해 준다.
- 영아가 주변을 탐색할 때 영아의 운동 능력에 맞는 적절한 거리에 사물을 놓는다. 예를 들어, 영아가 누워서 탐색할 때는 약 30센티미터 떨어진 거리에, 앉아서 탐색할 때는 앞으로 넘어지지 않고 손을 뻗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거리에 사물을 놓는다.
- 일상에서 영아가 크기, 밝기, 촉감, 경도, 온도 등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공간과 사물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2세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신체는 눈·코·입을 포함한 얼굴, 목·가슴·배·등으로 이루어진 몸통, 손발·팔다리·손가락·발가락을 포함하는 **영아의 몸**을 의미한다.

인식한다는 자신의 신체가 머리와 몸통, 사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에는 일상생활 및 놀이를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목구비와 볼, 이마 등의 얼굴, 손과 손가락, 발과 발가락 등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체의 기본 구조와 각 부위의 기능을 기초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움직인다는 자신이 인식한 **신체 구조와 기능을 바탕으로 각 부분을 이용하여** 먹기, 씻기, 옷 입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및 돌기, 던지기, 달리기, 굴리기 등 놀이 중 다양한 행동을 하려고 **신체의 근육과 관절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는 영아가 인식한 자신의 신체 구조와 기능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및 놀이에서 필요에 따라 근육과 관절을 다양하게 움직여 보고 협응 및 조절에 점차 능숙해지는 경험을 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공을 던지거나 차 보고, 공을 앞과 좌우로 굴려 보낼 때 신체의 어느 부분을 이용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경험한다.
- 영아는 무겁거나 가벼운 물체를 굴리고 밀고 당기면서 손과 발, 팔과 다리, 허리에 힘을 적절하게 분배하며 조절해본다.



- 영아는 빠르게 달리다가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등 자신의 의도에 따라 신체를 조절하며 즐거워한다.

- 영아는 놀이 도중 몸을 회전하거나, 몸을 비틀어 휘어진 터널을 통과하거나, 경사를 오르내린다. 또한 높은 곳에 매달린 물체를 잡기 위해 까치발을 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손가락으로 물체를 잡아 본다.



- 영아는 퍼즐 맞추기, 지퍼 올리기, 영아용 가위로 자르기, 손이나 손가락, 포크로 간식과 급식 먹기 등을 하며 손과 손가락을 섬세하게 움직이고 힘을 조절한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다양한 사물과 기구를 제공하여 영아가 신체를 다채롭게 움직여 보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영아의 다양한 움직임을 유도하는 공이나 천, 높이 매달린 물체, 흔들리는 물체 등의 사물이나 영아용 미끄럼틀과 그네, 밀거나 발로 움직여 타는 차, 수레 등과 같은 기구를 제공할 수 있다.
- 교사는 특성이 다양한 사물을 준비하여 영아가 그 사물을 가지고 놀 때 사물의 특성에 따라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가볍거나 무거운 공, 크거나 작은 공, 잘 구르거나 구르지 않는 공을 제공한다면, 각 공의 특성에 따라 신체를 다르게 움직여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 영아가 사물 없이도 자신의 몸을 인식하고 움직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달려 보기, 높이 뛰어 보기, 달리다 멈추기, 달리다 방향 바꾸기 등을 해 보게 한다. 또한 산책길에 교사의 신호에 따라 멈추어 보기, 반환점이 있는 곳까지 달려갔다 오기 등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교사는 영아가 자연스럽게 하기 어려운 경험을 놀이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균형 잡기, 구불구불한 통로 지나가기 등을 경험하도록 벽을 따라 낮은 평균대를 놓고 벽을 짚으며 평균대 위에서 균형 잡기, 구불구불한 터널을 원하는 대로 통과해 보기 등을 놀이처럼 해 볼 수 있다.
- 교사는 영아가 오감과 신체운동 감각을 사용하여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일 때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더 잘 보이구나.”, “간식차가 들어오는 걸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았어?”, “공을 세게 차니까 더 멀리 갔네.”와 같은 반응이 해당한다.

0~2세 공통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대근육은 목을 가누거나 배밀이, 기기, 구르기, 앉기, 균형 잡기, 서기, 걷기, 달리기, 오르기, 두 발 모아 뛰기와 같은 **신체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크기가 큰 근육**을 의미한다.

소근육은 물체를 가리키거나, 만지거나, 집거나, 내려놓는 것과 같은 **정교한 움직임에 사용하는 크기가 작은 근육**을 의미한다.

조절한다는 무엇을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대근육 또는 소근육을 한 부위 이상 함께 사용하여 감각기관과 협응해 정교한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세히 보려고 배를 밀어서 혹은 기어서 더 가까이 가거나, 빨리 뛰려고 다리를 더 빨리 움직여 보거나, 높은 곳의 사물을 잡으려고 웅크렸다 힘주어 뛰어오으려는 시도 등이 해당한다.

대소근육을 조절한다는 영아가 신체운동 능력, 자기인식 및 자율성이 점차 발달하면서 일상생활과 놀이 중 의도한 바를 달성하려고 신체 협응을 바탕으로 대소근육을 사용하여 정교한 움직임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엎드려서 고개를 들고, 몸을 뒤집고, 배밀이를 하고, 기고, 붙잡고 일어서고, 걸음마를 시도하면서 대근육을 조절해 본다.



- 영아는 안전하게 밀 수 있는 놀잇감을 밀거나 끌어보면서 걷기와 끄는 데 필요한 대근육을 조절하고, 비교적 평평한 지면에서 안정적으로 걷거나 뛰어본다.
- 영아는 천천히 달리기, 천천히 돌기, 몸을 이용해 쉬운 기구나 도구를 던지기, 움직이지 않는 공을 차기, 낮은 장애물 짝발로 넘어보기 등을 시도한다.
- 영아는 공을 잡아서 던지기, 빠르게 걸어와서 유니바 넘기, 걸어와서 훌라후프 건너뛰기, 매달린 물체 폴짝 뛰어 손으로 치기 등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대근육을 협응해 본다.



대근육 기구에서 놀이하는 영아

- 영아는 눕거나 앉아서 모빌, 딸랑이, 놀잇감 등의 물체를 손바닥과 손가락 전체를 사용해 잡아서 놀이하거나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겨 본다.
- 영아는 크레용이나 손으로 칠 수 있는 크기의 블록, 점토, 퍼즐 등의 놀잇감을 엄지와 손 전체를 사용해 꼭 쥐거나 떼 보고, 더 작은 물체는 엄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을 이용해 잡아 본다.
- 영아는 영아용 가위를 안전하게 사용하여 재질이 다양한 점토나 종이 등의 사물을 잘라 본다.



- 영아는 손가락을 혼자 사용하거나 인형에게 우유를 먹이고 음식을 만들어 보는 등 놀이와 일상생활을 통해 손가락으로 물건을 잡거나 집어 본다.
- 영아는 한 손으로는 뚜껑이 있는 물체의 몸통을 쥐고 다른 손으로는 뚜껑을 따기, 커다란 구슬을 굵은 줄에 꿰어 보기, 크고 험거운 단추를 열기 등 놀이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양손과 손가락, 손목을 다르게 사용해 본다.
- 영아는 도구를 사용해 사물을 찢어 올리거나 담기, 느슨한 단추를 끼워 보기, 스티커를 떼어 내고 붙여 보기 등을 하면서 손과 손가락 근육을 섬세하게 조절해 본다.
- 영아는 손바닥에 올려놓은 놀잇감이나 스스로 잡은 놀잇감을 자연스럽게 말아 진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의 대소근육을 조절하는 노력과 성공의 기쁨을 표현하며 격려한다. 예를 들어, 기쁜 표정과 목소리로 “점 점 손가락으로 밥을 뜯 때 흘리지 않는구나.”, “무릎을 구부렸다 펴떡 뛰니 더 높이 뛰었네.”와 같이 반응할 수 있다.
- 영아가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대소근육을 사용하며 조절하고자 노력할 때 이를 격려한다. 예를 들어, 또래를 만나 반가워서 팔을 벌려 안거나, 점심을 먹다가 흘린 음식을 휴지로 집어 치워 보거나, 큰 단추를 스스로 빼 보고, 계단이나 경사로를 이용하는 것을 격려할 수 있다.
- 교사는 영아의 선호와 흥미에 따라 대소근육 사용 및 조절을 유발하도록 환경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퍼즐 맞추기, 구슬에 끈 끼우기, 누르면 음악이 나오는 놀잇감 등 소근육 사용을 유도하는 사물과 3~4단으로 낮은 계단, 트램펄린 등 대근육 사용과 조절을 유도하는 기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영아가 월령에 맞는 대소근육 사용과 조절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령에 맞는 모빌이나 딸랑이, 뒤집으려 할 때 주변 물건을 치우고 딱딱한 바닥에 엎드릴 기회, 배밀이·기기·걸음마를 시도할 때 영아가 기거나 뒤집는 방향에 영아가 선호하는 놀잇감을 제공한다.
- 영아가 특정 대소근육을 사용하거나 조절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교사는 영아가 스스로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원한다. 예를 들어, 뒤집으려 할 때나 걸으려고 할 때 교사가 도와주거나, 앉으려고 할 때 쿠션으로 양 옆을 지지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등은 지양한다.
- 영아가 점차 더 도전적인 대소근육 조절을 시도하도록 격려한다. 이때 영아의 사전 경험과 개인 성향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새로운 시도를 어려워하는 영아는 또래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원할 때 시도하도록 격려하고, 뛰어넘기를 잘하는 영아는 안전한 상황에서 더 높은 것을 뛰어넘어 보도록 격려할 수 있다.



기본 운동은 모든 운동의 기초로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몸을 옮기는 **이동 운동**, 몸을 한 장소에 고정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비이동 운동**, 사물을 이용하여 몸을 움직이는 **조작적 운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아는 배밀이, 기기, 서기, 잡고 움직이기, 스스로 걷기 등의 이동 운동과 뽀뽀, 흔들기, 뒤집기, 앉기, 밀고 당기기 등의 비이동 운동과 공 잡아 밀기, 물건 잡고 당기기, 쥐고 흔들기 등의 조작적 운동을 한다.

시도한다는 **다양한 행동을 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아는 손을 뻗어 책을 잡고 펼치며, 솜공을 양손에 쥐고 부딪혀 보거나 던져 보기도 한다.

기본 운동을 시도한다는 영아가 신체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며 이동·비이동·조작적 운동을 경험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팔다리로 기어 이동하며, 기는 속도나 방향을 바꾼다.



(이동 운동)

- 영아는 혼자 일어서려고 하며, 동시에 한 두 걸음을 떼고 스스로 균형을 잡고 걸으려고 시도하고, 벽이나 가구를 잡고 손과 발을 협응하여 옆으로 신체를 이동한다.

- 영아는 바닥의 놀잇감을 탐색하거나 집기 위해 끄르려 앉았다가 일어서는 경험을 한다.



(비이동 운동)



- 영아는 터널을 통과하고, 커다란 상자 속에 들어가고, 영아용 소파에 올라가는 경험을 한다.
- 영아는 토래와 마주 앉은 채로 스카프를 묶음으로 연결한 것이나 고리가 달린 끈을 양쪽에서 잡고 당겨 본다.
- 영아는 리본으로 원을 그리며 뱅글뱅글 돌거나, 골대로 공을 던져 넣어 본다.

(조작적 운동)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가 기본 운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영아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기기 시작하는 영아가 엎드려 있거나 누워 있는 영아를 넘어가지 않도록 안내한다.
- 교사는 영아의 기본 운동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는 점을 고려하여 반의 공간을 수시로 재배치한다. 예를 들어, 걷기 시작하는 영아가 많아지면 벽 쪽에 잡고 걸을 수 있는 봉이나 가구를 배치한다.
- 교사는 영아의 기본 운동 능력을 고려하여 놀잇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기나 앉기를 시도하는 영아에게는 쉽게 잡을 수 있는 가볍고 부드러운 놀잇감을, 앉거나 걸어 다니는 영아에게는 다양한 블록이나 촉감 책처럼 양손으로 집어서 탐색할 수 있는 놀잇감을 제공한다.

기본 운동은 모든 운동의 기초로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몸을 옮기는 **이동 운동**, 몸을 한 장소에 고정된 상태에서 하는 **비이동 운동**, 사물을 이용하여 몸을 움직이는 **조작적 운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아는 앞으로·뒤로·옆으로 걷기와 달리기, 점프하기 등의 이동 운동과 무릎이나 허리를 구부렸다가 펴기, 몸을 숙였다가 일으키기, 제자리에서 몸을 좌우로 비틀기 등의 비이동 운동과 공 던지고 받기, 큰 블록 쌓아 올리기 등의 조작적 운동을 한다.

즐긴다는 신체 운동 능력이 발달해 **비교적 능숙하고 편안하게 기본 운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에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기본 운동을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도적으로 반복하여 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즉, 영아는 자발적으로 점점 더 신체 움직임을 도전적으로 시도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기본 운동을 즐긴다는 영아가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이동·비이동·조작적 운동을 주도적으로 해 보며,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조절하는 것에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잡기 놀이를 통해 속도를 조절하며 달리고, 방향을 바꾸며 신체 균형감과 협응을 실험하며, 신체를 통제하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그리고 더 빨리 달리거나 더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하며 즐겁게 잡기 놀이를 반복한다.
- 영아는 더 멀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던지려고 두 팔로 공을 던지거나 받는 놀이를 신이 나서 반복한다.
- 영아는 한 발로 점점 더 오래 서 있거나 뒤로 걷는 걸음 수를 늘리려고 자발적으로 같은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 영아는 두 발을 번갈아 한 발씩 계단을 오르거나 계단의 마지막 칸을 두 발 모아 폴짝 뛰어내리는 등의 신체적 도전을 즐긴다.



- 영아는 공, 리본, 자신이 블록으로 만든 놀잇감 같은 사물을 가지고 놀면서 잡기, 쌓기, 돌리기, 살짝 밀고 당기기 등의 조작적 운동을 한다.

(조작적 운동)



두 발 모아 뛰기를 하는 영아
(이동 운동)



허리와 다리를 구부렸다 펴며
삽질을 하는 영아(비이동 운동)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가 이동·비이동·조작적 운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실내와 실외의 넓은 공간에서 놀이할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기본 운동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한 발로 균형 잡기, 일정한 거리만큼 뛰기, 작은 장애물 넘기 등을 놀이에서 경험하도록 한다.
- 영아가 다양한 기본 운동을 경험하도록 다양한 사물, 놀잇감, 기구와 설비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미끄럼틀, 계단, 공, 징검다리 매트, 리본, 동식물이나 교통기관 모형, 유아용 자전거, 경쾌한 음악 등을 제공한다.
- 교사는 영아의 경험이나 성향을 고려하여 기본 운동이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영아가 기차놀이를 하고자 할 때 끈을 제공하거나 기차 노래를 불러 줄 수 있다. 혹은 실수를 두려워하는 영아는 또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도해 보도록 기회를 줄 수 있다.
- 영아가 어느 정도 능숙해진 기본 운동을 즐겁게 시도해 보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시합처럼 해 보기, 노래를 부르며 하기,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해 보기 등이 해당한다.

실내외는 영아의 일상생활과 놀이가 이루어지는 **기관의 안과 밖 모든 공간**이다. 영아의 생활과 놀이가 이루어지는 **반, 복도와 계단과 같은 이동 공간**, 화장실이나 대근육 활동실 등의 **공용 공간**, **바깥 놀이터 등의 실외 공간을 모두 포함한다.**

신체활동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몸으로 하는 놀이를 포함한 다양한 행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아는 신체를 활용한 다양한 게임이나 율동에 참여하고, 실외 종합놀이터, 그네, 시소를 이용하여 놀이하며, 햇살과 바람을 느껴 보고 떨어지는 꽃잎이나 낙엽을 줍거나 구름을 향해 팔짝 뛰는 등의 신체활동을 수행한다.

즐긴다는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며 반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는 영아가 실내외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감각과 대소근육 협응 및 조절을 바탕으로 신체활동에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며 반복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평온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영아용 유아차를 타고 산책을 나간다.



- 영아는 놀이터에 나갈 준비를 하자고 할 때 활짝 웃고 좋아하거나 빠르게 정리를 시작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난 후 더 놀고 싶다고 말하거나 내일도 또 노는지 묻는 등 신체활동을 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운 경험임을 표현한다.

- 영아는 낮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손을 잡아 주면 다리를 힘껏 들어 계단을 넘고, 다 오른 후 “또 해!”라며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즐거워한다.



- 영아는 신체활동을 할 때 또래와 마주 보며 웃거나, 즐거운 표정을 보이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등 긍정적 정서와 활기찬 움직임을 보인다.



즐겁게 징검다리 건너기를
반복하는 2세 영아

- 영아는 신체활동을 할 때 새로 발견한 놀잇감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거나, 가만히 앉아 햇살과 바람을 느껴 보고, 흙, 잔디, 보도블록, 모래의 감촉 차이를 탐색하며 만족스러워한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기본 운동 요소 없이 자연을 접하고 가만히 감각적 요소를 탐색하는 것도 신체활동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지원한다.
- 교사는 준비하고 나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영아의 특성이나 비가 오거나 추운 기후·계절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되도록 실외 신체활동 시간을 일과에 포함한다. 유희실 등 실내 신체활동 공간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기관의 복도나 계단을 활용하여 신체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교사는 개별 영아의 신체적·정서적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다른 또래의 근처에서 앉아 쉬게 하거나 살필 수 있는 성인이 있는 분리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의 신체활동을 지켜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함께 즐겁게 참여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교사는 개별 영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신체활동의 동기를 유발하여 신체활동이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경쾌한 배경음악을 제공하거나, 동화책 내용을 표현해 보거나, 장애품을 뛰어넘거나, 훌라후프를 굴려 보거나, 공을 영아용 농구대에 넣어 보는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상호작용한다.

0~1세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

도움을 받는다는 영아가 몸을 깨끗이 하는 데 **교사의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몸은 이목구비와 볼, 이마, 치아를 포함한 얼굴과 목, 가슴과 배, 등을 포함한 몸통과 팔다리, 손발을 포함하는 **영아의 신체**를 의미한다.

깨끗이 한다는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로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는 초기에는 교사가 부드러운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 주는 것과 같이 성인에게 의존하다가, 점차 양치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신체를 단정하고 청결히 함에 교사의 도움을 받아 참여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는 영아가 교사의 도움을 받아 몸을 청결하고 단정히 해 보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수유 후나 잠들기 전에 교사가 부드러운 젖은 거즈나 깨끗한 천으로 잇몸을 닦아 주거나, 실리콘 손가락 칫솔이나 부드러운 아기용 칫솔을 사용해 칫솔질을 해 줄 때 상쾌함과 기분 좋음을 느낀다.
- 영아는 실내외 놀이 후, 기저귀 갈이 후, 식사 전후와 같이 규칙적으로 씻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아 씻고, 손으로 코 닦기 후같이 예외적으로 씻어야 하는 다양한 상황도 경험한다.
- 영아는 교사가 따뜻한 물로 몸을 씻겨 줄 때 혹은 교사가 배변의 징후를 알아채고 신속하게 기저귀를 갈아 주거나 몸을 닦아 주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기분이 좋아진다.
- 영아는 대소변으로 기저귀가 젖거나 불편하면 간단한 말이나 몸짓, 표정으로 기저귀를 갈아 달라고 표현한다.
- 영아는 교사의 도움을 받지만 점차 스스로 손을 씻어 보고, 식사 후 교사의 도움을 받아 양치질을 시도하거나 교사의 안내를 받아 휴지로 입을 닦아 본다.





식사 후 교사와 함께 즐겁게
양치질을 시도하는 영아

영아의 배움 지원

- 영아의 몸을 청결히 해 주는 것이 전적으로 교사가 해 주어야 하는 행위라는 인식보다는 교사가 영아 자조기술 발달의 기초를 함께 쌓아 가며 기본생활 습관을 기르는 과정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원한다.
- 교사는 양치하고 씻고 기저귀 가는 것을 권유할 때, 영아가 놀이에 열중하고 있으면 방해하지 말고 다른 영아부터 도와주는 등 영아의 놀이와 기분 상태 등을 고려한다.
- 교사는 관습적으로 씻기거나 기저귀를 갈기보다 영아가 청결해지고 교사와 유대를 쌓는 시간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시간이 즐겁도록 기저귀를 가는 동안 놀잇감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깨끗해지니 기분이 좋지?”와 같이 말하고 눈을 맞추며 따뜻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 교사는 영아가 양치하기, 씻기, 기저귀 갈기 등에서 스스로 하는 것의 비중을 점차 늘려 가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영아용 칫솔을 쓰면서부터는 스스로 자신의 칫솔을 찾아보고, 컵에 물을 받아 보고, 칫솔을 씻어보게 할 수 있고, 영아가 배변 후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 교사에게 표현하게 하고, 자신의 기저귀를 찾아오게 할 수 있다.
- 교사는 양치하기, 씻기, 기저귀 갈기가 가정과 연계되도록 칫솔이나 기저귀의 종류, 가정에서 씻거나 기저귀 가는 간격 등을 부모와 협의한다.

2세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해 본다.

자신의 몸과 주변은 이목구비와 볼, 이마, 치아를 포함한 얼굴과 목, 가슴, 배, 등을 포함한 몸통과 팔다리, 손발을 포함한 **영아의 신체**와 영아가 생활하고 놀이하는 실내외 공간 중 **영아가 머무르는 자리와 가까운 범위 안의 공간**을 의미한다.

깨끗이 해 본다는 영아가 **씻고 정리하고 치우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는 신체 운동 능력과 언제 씻고 정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점차 발달하면서 실외 놀이 후 혹은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식사 후 양치를 하고, 가지고 놀았던 놀잇감을 정리하는 등 신체와 주변을 **스스로 청결하고 단정하게 유지하고자 시도**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해 본다는 씻고 정리할 수 있는 신체조절 능력과 관련 규칙에 대한 이해가 점차 생겨나는 영아가 일상과 놀이에서 스스로 자신의 몸과 주변을 청결하고 단정히 해 보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자신의 칫솔과 양치컵을 찾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 치약을 짜며, 교사가 마무리 양치를 도와주면 스스로 즐겁게 이를 닦고 칫솔을 행구고 제자리에 정리한다.



- 영아는 일과 중 정기적으로 손을 씻어야 하는 때를 알고 자발적으로 씻는다. 또한 놀이 중 손이 더러워졌거나 코를 풀었을 때와 같이 필요할 때 스스로 손을 씻거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손을 씻을 때는 비누 거품의 촉감과 향을 느끼고, 깨끗해진 손을 보며 스스로 씻는 것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수건이나 핸드 드라이어로 손의 물기를 말린다.
- 영아는 서서 기저귀를 갈면서 성장한 기쁨을 경험하고, 기저귀 갈 필요나 배변 욕구를 느꼈을 때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화장실을 사용한 후 교사의 도움을 받아 물을 내리거나 휴지통에 휴지를 넣으면서 자신과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상태가 되었을 때의 기분 좋음을 경험한다.

- 영아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음식을 먹고 스스로 입을 닦으며 사용한 식판을 치운다. 사용한 휴지나 앉았던 자리에 떨어진 음식물,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험을 한다.



- 영아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놀이하던 놀잇감을 정리하고, 옷, 이불, 베개 등을 사용한 뒤에 자신의 능력에 맞게 개인 사물함이나 바구니에 정리한다.



스스로 세수하는 영아



스스로 양치하는 영아

영아의 배움 지원

- 영아가 자신의 몸과 주변을 청결히 하는 것은 자조 능력과 기본생활 습관을 갖추는 과정으로서 오랜 시간이 소요됨을 인식하고, 영아의 성장을 관찰한 후 획일적인 방식을 따르게 하기보다는 개별적 차이를 존중하며 점차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양치하기, 씻기, 정리하기를 매일의 관습처럼 따르게 하기보다 왜, 언제, 어떻게 양치하고 씻고 정리하는지를 영아가 알도록 상호작용한다. 예를 들어, “이제 점심 먹게 정리하고 손을 닦자”, “이에 잘 끼는 음식을 먹었으니 구석구석 깨끗이 닦자”와 같이 말할 수 있다.
- 교사는 양치하기, 씻기, 배변 훈련하기, 정리하기에서 영아가 정서적 만족감을 느끼도록 “거품이 정말 부드러워지?”, “기저귀를 가니까 보송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지?”와 같이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가 주는 즐거움을 표현하며 상호작용한다.
- 교사는 영아가 스스로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영아의 능력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다. 예를 들어, 눌러서 짜는 비누, 높이가 적당한 발판, 깊이가 적절한 양치컵, 흘린 음식을 집을 수 있는 휴지, 식판과 수저를 쉽게 분리하여 놓을 수 있게 배치한 동선, 발로 눌러서 여는 휴지통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교사는 영아가 단체로 움직여 줄을 서서 양치하거나 씻게 하기보다 놀이를 계속하면서 원하는 순서대로 양치하거나 씻는 방식으로 전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교사는 영아가 하루에 여러 번 정리하게 하여 놀이의 흐름을 끊기보다는 안전하게 동선을 확보하는 정도로만 정리하고 실외 놀이 후 돌아와서 다시 놀이하는 등 최소한으로 정리하도록 한다. 또한 유사한 놀잇감을 큰 바구니에 함께 정리하게 하는 등 영아의 능력에 맞게 정리정돈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감각적 처리를 어려워해서 양치나 씻기를 꺼리는 영아에게는 교사가 가정과 연계하여 구강 마사지로 감각적 민감도를 조절하도록 돕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칫솔을 잡고 입으로 가져가기, 치아에 칫솔 대어 보기, 입안에 칫솔 넣어 보기, 입안에서 칫솔을 움직여 보기 등을 순차적으로 꾸준히 지원한다.

0~1세

음식에 관심을 가진다.

음식은 집에서 가져온 모유, 분유, 이유식, 고형식, 간식을 포함하여 **영아가 기관에서 섭취하는 모든 먹을 것**을 의미한다.

관심을 가진다는 출생 후 모든 음식을 새로 접하는 과정에 있는 영아가 **음식의 맛과 질감, 온도와 향 등을 느끼거나 먹으려고 시도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는 이유식을 입에 넣고 삼키다가 점차 씹는 감각을 경험한다. 그리고 단맛, 신맛, 짠맛 등의 다양한 맛, 뜨겁거나 미지근하고 차가운 다양한 온도, 부드러운 유동식부터 잘게 썰어 놓은 딱딱한 과일까지 다양한 질감과 경도를 경험한다. 이때 영아는 손으로 음식을 만져 보며 촉각적 차이를 느끼고, 마음에 드는 음식은 성인의 손을 잡아 입으로 손가락을 가져가기도 한다.

음식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차 다양한 음식과 상호작용을 하는 영아가 음식 섭취 과정에서 오감을 동원해 음식을 탐색하며 맛, 질감, 온도, 향 등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다양한 이유식을 만지고 질감을 느끼며 새로운 음식의 맛을 경험한다.
- 영아는 이유식이 담긴 손가락을 잡은 성인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입으로 가져간다.
- 영아는 부드러운 고형식을 먹으면서 씹는 능력이 발달하고, 단맛, 짠맛, 신맛 등 다양한 맛과 음식의 질감을 접하면서 씹는 즐거움을 느낀다.
- 영아는 입으로는 씹으면서 손으로는 접시 위 음식을 만지고 냄새를 맡는 등 음식의 색과 형태, 냄새를 탐색하고 음식을 입에 넣어 맛보며 시각, 후각, 촉각, 미각적 경험을 연결해 본다.



- 영아는 성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손과 손가락을 이용해 음식을 집어 입에 넣어 본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가 감각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이유식과 고형식을 접하는 것이 음식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정과 협력하여 음식 알레르기 등을 파악한 후 개별 영아별로 이유식 및 고형식 시작 시기와 구성 계획을 수립한다.
- 교사는 간식과 점심시간을 빨리 먹이고 치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아가 음식에 대한 관심을 넓히고, 또래와 함께 먹고, 스스로 먹는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식한다.
- 교사는 영아의 감각 및 소근육 발달을 고려하여 영아용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하게 해 주고, 손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 간식이나 손가락으로 집었을 때 잘 부스러지지 않는 간식 등은 영아가 스스로 먹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기가 먹는 양에 대한 개인차가 큰 시기임을 이해하여 음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한다.
- 교사는 영아가 비선호 음식을 조금이라도 시도했을 때 격려하고, 또래가 먹는 모습을 함께 보거나 교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 주는 등 영아가 새로운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시도해 보도록 지원한다.

2세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음식은 간식과 식사를 포함하여 **영아가 기관에서 섭취하는 모든 먹을 것을** 의미한다.

즐겁게 먹는다는 영아가 스스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 보고 맛을 음미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등 또래 및 교사와 **편안한 분위기에서 기쁜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는 점차 포크나 손가락을 사용해 스스로 음식을 먹고 치워 보기도 하고, 식사 중 간단한 대화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며, 음식을 먹는 것이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것을 넘어 즐거운 사회적 활동임을 경험한다.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는 영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에 참여하며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포크나 손가락을 사용해 스스로 음식을 먹어 보며 눈과 손을 협응하고, 스스로 먹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즐거움을 경험한다.



- 영아는 교사 및 또래들과 함께 간식과 점심을 먹으며 새로운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새로운 맛과 질감을 탐색하며 즐거움을 느낀다. 또한 다른 또래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모방하거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긍정적이고 즐겁게 식사한다.

- 영아는 음식을 먹기 전에 기다리기, 간단한 감사 인사 등 기본적인 식사 예절을 익혀 기다리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 영아는 식사 후 남은 음식과 사용한 그릇, 식기, 흘린 음식을 스스로 치워 본다.
- 영아는 각종 반찬, 채소, 과일 등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색과 모양, 맛과 향, 질감을 탐색하고 감각적 경험을 표현한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가 간식 및 급식 시간이 단순히 먹는 시간을 넘어 또래나 교사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적당한 목소리로 대화하기, 음식을 삼킨 후 이야기하기,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하기 등의 사회적 예절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기에 음식 선호에서 개인차가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각 영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음식을 접하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적은 양만 시도해 보도록 하거나, 또래가 맛있게 먹는 모습 혹은 주방에서 조리하는 모습을 구경하도록 하여 호기심을 갖고 조금 먹어 보게 할 수 있다.
- 간식이나 급식 먹기를 준비하고, 먹고, 정리하는 과정에 영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비중을 늘려 가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영아가 특정 음식을 조금 또는 많이 달라고 요청하게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찾아서 앉게 할 수 있다. 또한 숟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영아에게는 깨끗이 먹어 보도록 격려할 수 있다.
- 교사는 음식의 이름만 소개하기보다는 색, 질감, 냄새, 맛 등에 대해서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눠 영아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먹도록 지원한다.
- 신체적 장애로 상지가 약하거나 쥐기 기술에 어려움이 있어 식사를 위한 보조도구를 필요로 하는 영아의 경우, 두꺼운 손잡이가 달린 식사 도구나 다목적 컵, 손바닥 스트랩 부착 식사 도구 등을 사용하여 영아가 독립적으로 음식을 탐색하며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0~1세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하루 일과는 영아가 등원해서 하원할 때까지 기관에서 보내는 놀이, 일상, 낮잠 및 휴식, 식사와 간식, 기저귀 갈이와 배변 등 일상생활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편안하게 경험한다는 영아가 기관에서 신체 리듬을 거스르는 경험 없이 안정감 있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사의 지원이 음식 섭취, 낮잠, 배변의 횟수나 시간, 규칙성 등에서 영아별 개인차를 고려하여 이루어져 영아가 기관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경험하며 안정감 있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는 영아가 놀이, 휴식, 낮잠, 식사 등 모든 일과를 신체 리듬과 필요에 맞추어 건강하고 편안하게 경험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교사의 부드러운 말이나 포옹, 신체 접촉과 눈 맞춤을 통해 안심하며 잠들고, 편안히 수유와 음식 섭취를 경험한다.



- 영아는 낮잠 후 깨어났을 때 교사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걸며 먼저 주면 낮잠 후 놀이로 편안히 전환하는 경험을 한다.

- 영아는 수유와 이유식, 낮잠 시간 등 자신의 신체 리듬에 기반한 규칙적 일과를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 영아가 흥미로운 놀잇감을 탐색할 때 교사가 민감하게 반응해 주면 편안하게 놀이한다.

- 놀이 후 영아가 피로를 느낄 때 교사가 적절한 시점에 휴식을 취하도록 안내하면 영아는 휴식 후 놀이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특히 월령이 어린 영아의 먹고, 자고, 놀고, 기저귀 가는 하루의 리듬 패턴 차이를 이해하여 일과를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예를 들어, 수유나 간식 시간을 영아별 리듬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 월령이 어릴수록 영아의 신체 리듬에 기반한 일상생활에 초점을 두어 일과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놀이기보다 잘 자고 일어났을 때,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을 때 놀이하도록 한다.
- 일과를 보내면서 영아의 신체적·정서적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따뜻하고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영아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지내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교사는 영아가 보이는 배고픔, 졸림, 기저귀 불편함, 부모가 보고 싶음, 또래와 갈등 등의 신호를 알아채서 적절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 교사는 영아에게 많이 웃어 주고, 눈 맞춰 주고, 이야기해 주고, 안아 주고, 다정하게 말함으로써 영아가 편안한 일과를 보내도록 지원한다.

2세

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한다.

하루 일과는 영아가 등원해서 하원할 때까지 기관에서 보내는 놀이, 일상, 낮잠 및 휴식, 식사와 간식, 배변 등 일상생활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즐겁게 경험한다는 일과의 흐름이 예측 가능하고, 일과를 보내는 데 영아가 **주도적으로 선택·참여**함으로써 영아가 통제감과 성취감, 기대감 등 긍정적 정서를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는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무슨 놀잇감으로 어떤 놀이를 할지, 낮잠을 어디서 얼마나 잘지 등 원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며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상황을 조절하고 있음과 스스로 이루어 낸 것, 앞으로 이루어 낼 것에 대한 부딪힘과 기대감, 기쁨 등을 경험한다.

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한다는 영아가 놀이, 휴식, 낮잠, 식사 등 규칙적인 일과를 주도적으로 보내면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자신이 선택한 놀이에서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주변 또래와 상호작용하며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 영아는 놀이 후 졸리거나 피곤함을 느낄 때 신체 컨디션을 인식하고 교사에게 표현한다. 또한 언어 영역이나 역할 영역의 소파 등 휴식할 장소를 스스로 찾아 쉬어 본다.



- 영아는 낮잠을 자고 일어나 에너지를 회복하고 다시 즐겁게 주도적으로 일과에 참여한다.
- 영아는 놀이가 끝난 후 교사의 도움을 받아 놀이한 놀잇감과 각종 도구 등을 스스로 정리하며 자신이 일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데에서 오는 만족감을 경험한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가 실내외에서 충분히 놀이하며 자연을 접할 기회를 매일 제공한다.
- 교사는 영아의 흥미를 반영한 공간과 놀잇감을 제공하거나 영아 스스로 공간을 변화시키고 놀잇감을 발견하도록 하여 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가 하루를 주도적으로 지내며 통제감, 성취감,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도록 불필요한 지시나 제한을 삼간다.
- 교사는 일과가 전환될 때 영아별로 시차를 두어 전이함으로써 일과 전체가 연결되도록 해 준다. 예를 들어, 식사 후 양치질을 마친 영아부터 다시 놀이하기, 놀이하다가 원하는 영아부터 낮잠 잘 자리를 정리하고 이불을 펴도록 운영함으로써 영아 개인별로 전이에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 교사는 영아가 스스로 선택한 놀이를 주도적으로 할 때와 먹기, 휴식하기, 씻기 등의 일상생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격려하고, 영아의 컨디션을 고려하여 놀이시간, 낮잠 시간, 급·간식 시간의 길이나 시기를 조절한다.

0~2세 공통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

건강한은 출생 이후 배변 훈련이 끝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영아의 기질, 신체 조절과 리듬, 인지 및 언어 능력에서의 개인차를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배변이 자연스럽게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며, **영아가 배변을 불안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배변 습관을 갖는다는 영아가 배변 욕구가 일어났을 때 **신체적 신호**를 알아차리고 이를 **표현**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배변하는 것을 이해하고, **배변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리듬을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영아가 몸과 마음의 편안함 속에서 배변 활동을 받아들이고 일정한 리듬을 기반으로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기르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기저귀가 젖거나 더러워졌을 때 칭얼거림이나 울음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한다.
 - 영아는 성인이 기저귀를 갈아 주었을 때 기분 좋음을 음성이나 표정으로 표현하고, 기저귀를 가는 동안 교사와 다양한 상호작용이나 놀이를 함으로써 배변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느낀다.
 - 영아는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저귀를 찾아 가져오거나 읽을 책을 고르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배변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다.
-
- 영아는 배변 관련 신체 조절 능력 및 인지적·언어적 발달과 함께 배변 욕구를 느꼈을 때 대소변을 참고 교사에게 언어와 몸짓, 표정 등의 신호로 표현한다.



- 영아는 화장실 사용을 직접 연습하거나, 인형과 소형 변기 모형을 사용해 놀이로 배변 과정을 연습한다.

- 영아는 배변 신호가 왔을 때 이를 조절하여 성공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한 후 그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자율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배변 훈련을 긍정적으로 경험한다.



- 영아는 배변과 관련된 노래나 이야기로 교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화장실에서의 배변 과정을 즐거운 놀이로 경험한다.

- 영아는 배변 후 손 씻기 등 기본 위생 습관을 포함하여 건강한 배변 습관을 기른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가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 것이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건강과도 관련이 있고 영아의 신체, 인지, 언어, 정서 발달이 배변 훈련과 관련 있음을 이해하여 준비되지 않은 영아를 재촉하지 않는다.
- 교사는 기저귀를 갈아 주거나 배변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영아가 배변 훈련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영아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거나, 부드럽게 닦아 주고 갈아 주고 씻겨 주며, 기분 좋음을 표정과 웃음으로 표현하면서 영아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 교사는 연령 3세 이후까지 배변 훈련을 하지 않는 영아의 부모와 소통하여 적절한 시기에 배변 훈련을 하는 것이 자아 개념과 도래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알린다.
- 배변 욕구를 알리는 영아의 신체적 표현을 민감하게 관찰하여, 영아가 실수해서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특히, 언어 표현에 결함이 있는 영아도 몸짓이나 시각 자료를 사용해 스스로 배변 의사를 표현하도록 지원한다.
- 영아가 배변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고 교사에게 미리 알렸을 때와 영아가 스스로 배변 욕구를 조절하여 성공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했을 때 크게 격려해 주고, 이때 느끼는 자율감과 성취감을 공감해 준다.
- 교사는 배변 훈련과 관련된 책, 노래, 소형 변기나 인형을 이용한 놀이, 변기에 앉거나 서 보는 연습 등을 해 봄으로써 영아가 배변 과정을 친숙하게 느끼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가 배변 훈련 과정에 수반되는 바지나 속옷 내리기, 옷 입기, 손이나 몸 씻기를 배변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도록 지원한다. 화장실 사용에 능숙해진 영아에게는 배변 후에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거나 휴지를 변기나 휴지통에 버리는 등 공중 화장실 사용 규칙도 함께 알려 준다.

내용범주

안전하게 생활하기

내 용

0~1세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안전한 상황은 영아가 다치거나 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거나 **위험이 최소화된 환경**을 의미한다. 영아가 자유롭게 경험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안전한 무독성 재료 놀잇감, 모서리가 둥글게 마감된 가구, 충격을 보호하거나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깔개와 같이 위험 요소가 최대한 제거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놀이하고 생활한다는 영아가 **등원부터 하원 사이에 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며, 놀이하기와 먹기, 잠자기, 씻기, 배변하기, 이동하기 등이 포함된다.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는 영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하기, 낮잠 자기와 휴식하기, 식사와 간식 먹기, 이동하기 등을 경험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또래나 가구와 부딪히지 않고 부드러운 매트와 가드가 설치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기고, 붙잡고 서고, 한 발씩 떼어 걸어 보면서 신체 균형을 잡는 법을 경험한다.



- 영아는 비교적 안전한 표면, 기구, 도구를 사용해서 마음껏 놀이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나 또래를 다치지 않게 하는 부드러운 공이나 봉, 풍선, 한지 등의 안전한 도구와 자료를 가지고 놀이한다.



- 영아는 안전한 무독성 놀잇감을 입에 넣고 물고 흔들며 마음껏 탐색하고, 너무 작거나 날카로워서 위험한 놀잇감을 제외하고 모양, 재질, 특성이 다양한 놀잇감으로 즐겁게 놀이한다.
- 영아는 표면이 벗겨져 일어났거나 일부가 깨지지 않은 안전한 가구와 식기, 옷걸이와 바구니 같은 일상용품 및 씻는데 필요한 설비 등이 잘 갖추어진 환경에서 생활한다.
- 영아는 전선이 잘 정리되고 콘센트에 안전 커버가 씌워진 환경에서 생활하고, 콘센트를 만지지 않도록 교사의 안내를 받으며 안전한 생활 습관을 익힌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구석구석까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무독성 놀잇감이나 콘센트 덮개 외에도 활동성이 증가하면서 낮고 구석진 곳도 들어가 탐색하는 영아의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구석과 가구 아래까지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위험한 물건이 없어야 한다.
- 교사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과 시작 전에 놀이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반의 공간, 가구, 자료 등을 점검한다. 예를 들어, 교사는 놀잇감이나 개인 물품을 넣는 바구니, 칫솔과 양치컵, 턱받이 등 영아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낱거나 깨져서 위험하지는 않은지 수시로 점검한다.
- 교사는 감각적 탐색을 즐기는 영아를 위해 오감을 자극하면서도 안전하고 다양한 놀잇감과 자료를 준비한다. 또한 신체운동 조절에 대한 영아의 높아진 욕구를 반영하여 안전한 낮은 장애물이나 계단 넘기, 대근육 신체운동 기구 등을 제공하여 안전하게 놀이하도록 지원한다.

2세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안전하게는 영아가 **점진적으로 위험을 인식**하여 교사에게 알려 도움을 받거나 주도적으로 **위험을 제거하거나 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는 신체운동 및 조절 능력이 발달하면서 자율감과 주도성도 함께 발달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증가하며, 동시에 안전한 상황 혹은 위험 요소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장되면서 스스로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려는 모습을 나타낸다.

놀이하고 생활한다는 영아가 **등원부터 하원 사이에 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며, 놀이하기와 먹기, 입기와 벗기, 잠자기, 씻기, 배변하기 등이 포함된다.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는 신체적인 도전을 더욱 많이 시도하는 영아가 일과를 보내면서 위험 요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조심스럽게 행동해 보는 경험을 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이 나뭇가지 내가 치웠어요.”와 같이 안전하게 놀이한 상황을 교사나 또래에게 자랑하거나, 바닥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놀잇감을 정리한다.



- 영아는 망가진 퍼즐을 교사에게 가져다주거나 바닥에 물을 흘렸을 때 “뉘아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교사에게 알린다.
- 영아가 미끄러지기 쉬운 바닥을 보고 또래에게 “조심해, 미끄러워.”라고 말해준다.
-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교사에게 “나 여기서 뛰어도 돼요?”라고 물어보고 안전한지 확인한다.

- 미끄럼틀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다른 영아들이 안전하게 내려온 후 올라가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교사의 안내에 따라 손잡이를 잡고 “손잡이를 잡아야 안전해.”라고 말하며 안전한 습관을 실천한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안전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과 위험할 수 있지만 영아의 새로운 시도를 격려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어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가지만, 놀이나 생활에 몰입하면 위험에 주의하는 것을 빈번하게 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여 지원한다.
- 영아가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조심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천천히 걸어서 안전하게 이동했구나.”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안전 행동을 장려한다.
- 교사는 뛰어넘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등 점차 신체적으로 더 도전적인 활동을 시도하는 영아의 경향을 반영하여 충격을 완충하고 미끄럼을 방지하는 바닥 매트, 고정 손잡이가 있는 적절한 높이의 미끄럼틀, 유니바, 트램펄린, 평형대 등의 놀이기구를 제공한다.
- 교사는 영아가 책상의 모서리 보호 장치, 문의 손가락 끼임 방지 장치 및 도어클로저, 잠금장치, 전기 콘센트 덮개 등의 용도를 이해하고 스스로 조심하도록 안내하고 격려한다.

0~2세 공통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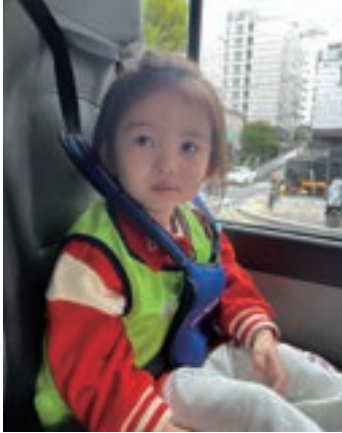
안전한 상황은 영아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신체적·심리적 위험이 최소화된 환경**을 의미한다. 영아가 영아용 카시트 같은 차량 내 보호 장치에 탑승하고, 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 교사의 도움을 받아 승하차하고, 교사가 불편함을 해소해 주거나 부드러운 말로 안심시켜 주는 등 교사의 보호와 안내하에 함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는 영아가 **교사의 안내와 지도, 지원을 받아** 등·하원, 견학, 체험학습 등의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는 영아가 교사의 적절한 안내와 지원을 받아 교사와 함께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경험을 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등·하원 때 동승한 성인의 도움을 받아 영아용 카시트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며, 불안이나 불편을 느끼는 경우 성인의 도움으로 안정을 회복한다.



- 영아는 성인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하차해서 기관으로 들어간다.
- 영아는 성인의 도움을 받아 점차 어린이용 카시트에 스스로 앉고 안전벨트 착용을 시도한다.
- 영아는 차량이 완전히 멈춘 후 성인의 도움을 받아 카시트에서 내려와, 문이 열릴 때 안전한지 주변을 확인한 후 내린다.
- 영아는 성인의 지도를 받아 중간에 안전벨트 풀지 않기, 내려오려고 몸부림치지 않기 등을 지키며 차량이 이동할 때 안전하게 앉아 있다.
- 영아는 성인의 지도를 받아 줄을 서서 한 명씩 성인의 손을 잡고 차례로 타고 내리는 등 주의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한다.

- 영아는 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배우고 실제 어린이용 카시트와 인형을 이용하여 안전벨트 착용하는 법을 놀이처럼 익힌다.



- 영아는 교통기관 이용과 관련된 책, 놀이, 경험 이야기하기 등을 통해 안전하게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의 월령이 어리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수록 부모가 직접 등·하원을 시키도록 협의한다.
- 교사는 현장학습 등을 위해 차량 이동 중 영아가 카시트에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있는지, 카시트에 앉았을 때 불편함이나 불안을 호소하지는 않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서 해결해 주거나 따뜻한 말과 표정으로 안심시킨다.
- 교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명씩 태우고 내려 주어 영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 교사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카시트 풀기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한다.
- 교사는 영아의 신체, 인지,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점차 카시트에 올라 보기 등을 혼자 하도록 격려한 후 반드시 바로 앉았는지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채워 준다.
- 교사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카시트, 2~3단으로 구성된 계단 등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물품을 가지고 영아가 놀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교사는 책이나 각종 교통기관 놀잇감처럼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놀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의자를 연결하여 버스를 만든 후 타고 내리는 놀이 등을 함께 하도록 한다.

0~1세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위험하다는 말은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사가 다양한 어휘, 억양, 몸짓, 행동으로 영아에게 알리는 신호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사가 조심하라거나 멈추라고 안내하는 말이나 단호한 어조, 손으로 가위표를 하거나 가로젓는 몸짓 등이 해당된다.

주의한다는 영아가 교사가 보내는 **위험 신호에 관심을 보이고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는 교사의 경고를 듣고 행동을 멈추거나 시선을 교사에게 돌려 상황을 살피는 등 초기 단계의 안전 의식을 나타낸다.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는 영아가 위험을 알리는 교사의 다양한 신호를 듣고 행동을 멈추거나 교사의 반응을 살피는 등 기본적인 안전 의식을 형성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다른 영아가 교사의 주의 신호에 반응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위험에 주의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한다.
- 영아는 위험을 피하려고 행동하기 전에 멈춰서 교사의 반응을 살피거나 도움을 요청한다.
- 영아는 화재, 지진 등에 대비한 훈련에서 교사의 품에 안기거나 손을 잡고 빠르게 이동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경험을 한다.

- 영아는 교사의 다급한 목소리, 손으로 멈추라고 표현하는 제스처, 빠르게 다가오는 등의 억양, 몸짓, 행동에 주목하고 반응하는 경험을 한다. 예를 들어, 교사의 “안돼.”, “위험해.”, “조심하자.”와 같은 주의를 듣고 위험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행동을 멈출 수 있다.



- 영아는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건, 물체가 쏟아질 수 있는 상황 등 위험 상황이나 물건에 대한 교사의 부드러지만 명확한 신호와 안내를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점차 위험한 물건과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킨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영아가 상황을 더 잘 인식하도록 억양, 몸짓, 말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분명하게 위험 신호를 보낸다.
- 교사는 위험이 임박했으면 말로 안내하기보다는 즉각적 행동으로 제지하거나 도와준다. 예를 들어, “위험해.”라고 말하는 대신 직접 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영아를 내려 주고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 위험해서 선생님이 내려 주었다.”고 안내한다.
-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위험해, 안 돼, 하지 마.”와 같이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주변을 안 보고 달리면 친구와 부딪혀. 꼭 앞을 잘 살피면서 달리자.”, “던지면 깨질 수 있어. 조심히 내려놓자.” 등과 같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 신체적으로 활발하고 도전적인 활동을 좋아하거나 겁이 없는 영아 등 위험 상황과 관련 있는 영아의 기질이나 놀이 특성을 고려하며 주의 깊게 관찰한다.
- 교사는 비상대피훈련 전에 영아가 놀라거나 겁먹지 않도록 “큰 소리가 나면 놀던 것을 멈추고 신발도 신지 않고 선생님과 함께 밖으로 빨리 나갈 거야.”라고 미리 설명한다. 또한 겁이 많거나 잘 놀라는 영아의 특성에 따라 귀를 막아 주는 등의 개별적인 방법으로 영아가 비상대피훈련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한다.

2세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위험한 상황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손 끼임,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뿐 아니라 화재, 지진 등의 **재해 상황**을 의미한다.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는 영아가 또래 및 교사와 함께 **위험한 상황의 특징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는 위험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방법을 놀이와 활동, 훈련을 통해 안전하게 경험함으로써 위험 상황을 인식하고 두려움 대신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익혀 간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는 영아가 사고, 화재, 재난 등에 적절히 대처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놀이와 훈련을 통해 안전하게 경험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놀이와 일상 중 공을 던질 때는 또래가 없는 쪽을 향해 던지기, 가위는 들고 다니지 않고 사용 후 바로 내려놓기 등과 같이 교사가 알려 주는 방법을 듣고 적절하게 대처한다.



- 영아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인식 없이 포크를 입에 물고 걷다가 교사의 안내를 받고 위험할 수 있음에 대한 인식을 넓힌다.
- 영아는 또래가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경우와 같이 또래의 위험한 행동이나 상황을 교사에게 말이나 손짓으로 알려 주거나 또래에게 하지 않도록 말한다.
- 영아는 소방차 놀이를 하며 교사와 대화하고 비상대피 훈련을 왜, 어떻게 하는지 간접적으로 경험한다.

- 영아는 소방대피 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놀이를 중단하고 신발과 옷, 놀잇감 모두 두고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이동하는 등 소방대피 훈련 때에 해야 하는 행동을 직접 경험한다. 이때 교사를 따라 안전하게 실외로 대피했을 때 신속하게 이동한 것에 대한 성취감과 자부심, 안도감을 경험한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의 인지, 언어 발달을 고려하여 어떤 상황이 왜 위험한지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예를 들어, 포크를 입에 문 채로 돌아다니거나 가방끈을 토레 목에 칭칭 감는 등 일상생활이나 놀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 “혹시 바깥 놀이터에 날카로운 것이 떨어져 있으면 만지지 말고 선생님에게 먼저 알려 줘.”와 같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교사에게 알리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 교사는 비상대피 훈련을 하는 상황과 이유를 영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려준다. 예를 들어, “불이 나면 열린 밖으로 피해야 해. 연기가 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 그래서 안전하게 가장 빨리 밖으로 나가는 법을 미리 연습해 두는 거야.”와 같이 안내할 수 있다.
- 교사는 비상대피 훈련을 할 때 영아가 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을 알려 주고, 움직임이 느리거나 겁이 많은 개별 영아의 특성에 따라 손을 잡아 주는 등 개별적으로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대피하지 않고 반에 숨거나 남아 있는 영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교사는 비상대피 훈련 후 영아와 경험을 나누고 격려한 뒤 반으로 돌아가서 하던 일과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도록 지원한다.

2

의사소통



소리가 나네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비언어 및 언어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을 즐긴다. 점차 영아는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대화하며 소통하고, 그림과 상징으로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의사소통 영역은 영아가 말소리와 말을 듣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말하고, 끼적이기에서 시작하여 그림, 상징 등으로 쓰기를 소통 수단으로 알아 가고,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듣기와 만들기를 좋아하며, 비언어를 포함하여 언어로 소통하는 능력을 키워 간다는 내용이다.

교사는 영아가 시도하는 다양한 소통의 방식과 도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며, 언어나 비언어로 호응하여 소통하고, 영아가 교사 혹은 또래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도록 지원한다.

목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 1) 일상생활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즐긴다.
- 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 3) 책과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의사소통 영역의 목표는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소리와 말을 듣고 말하며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그림, 상징 등의 의미를 읽는 것과 끼적이기와 같은 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책과 이야기를 즐기며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내용

내용범주	내용	
	0~1세	2세
듣기와 말하기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표정, 몸짓,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에 관심을 가진다.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듣기와 말하기

영아가 자신에게 말하는 사람의 표정, 몸짓, 주변 소리, 말소리, 이야기 등에 주의를 기울여 듣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하고, 자신의 요구나 느낌 등을 말하는 내용이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영아가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지고, 그림과 같은 끼적이기를 하며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 등을 소통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영아가 책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고 이어 가는 것을 반복하며 이를 즐기는 내용이다.

내용범주

듣기와 말하기

내 용

0~1세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표정은 비언어적 소통 방식 중 하나이며 기쁨, 신남, 화남, 슬픔, 놀라움, 반가움 등의 **느낌**이나 **기분**이 영아나 성인의 얼굴에 미소, 웃음, 찡그림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몸짓은 영아나 성인이 시선, 손가락, 손, 머리 등의 **신체**를 움직여 자신의 **의도**를 상대와 나누는 **비언어적 소통** 방식을 말한다. 영아는 시선을 고정하거나, 고개를 돌려 찾아보거나, 간단한 손동작인 몸짓 언어 등을 사용한다.

말은 영아나 교사가 **소리, 단어, 노래** 등의 음성을 활용하여 소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변의 소리는 영아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영아의 귀에 들리는** 놀잇감 소리, 대화, 벨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등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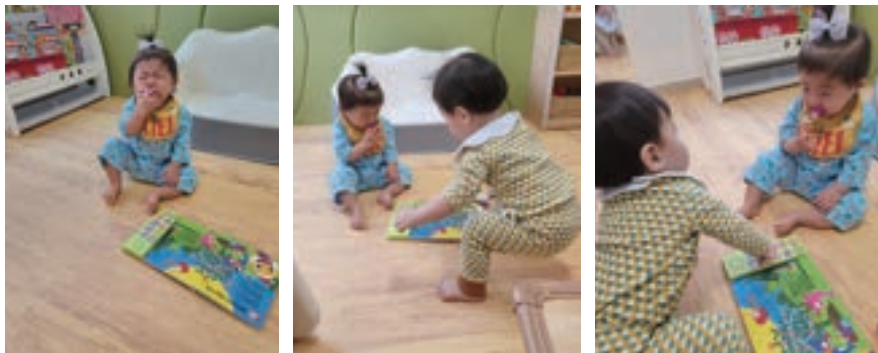
주의를 기울인다는 영아가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을 **바라보거나**, 상대방과 주의를 나누며, **의도**를 알아차리려 **듣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아는 교사가 웃는 모습을 보고 함께 웃거나, 교사나 또래의 움직임에 따라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양쪽으로 흔들어 부정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손을 흔들어 인사하기도 한다. 교사가 부르면 다가오거나,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면 행동을 멈추기도 한다.

표정, 몸짓, 말이나 주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영아가 상대방의 얼굴에 나타나는 느낌이나 기분, 상대방이 만드는 몸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교사나 또래의 말이나 주변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의도를 알아차리려고 듣는 것을 알아 가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가 체온을 측정하는 기계 앞으로 다가가 발바닥 모양 위에 서서, 기계에서 나는 “정상입니다.”라는 소리를 들으며 시선을 고정한다. 다른 영아도 기계 앞으로 다가와 바라보다가, 발바닥 모양 위에 서서 “정상입니다.” 소리가 나기를 기다린다. 영아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며 의미를 알아차리고 있다.





- 적응 중인 영아가 불편한 느낌으로 손을 얼굴에 대고 우는 소리를 내자, 한 영아가 다가온다. 이 영아는 책에서 노래가 나오는 버튼을 눌러 주며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한다. 울던 영아는 의도를 알아차리는 듯 또래의 몸짓에 시선을 보내고 울음을 멈춘다. 두 영아는 표정, 몸짓, 소리와 같은 비언어적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

- 산책을 하던 중, 영아가 손을 내밀며 “자!”라고 말하자, 또래도 손을 내민다. 두 영아가 몸짓과 말소리로 손을 잡고 싶다는 서로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내민 손을 잡아 몸짓과 말소리로 소통하고 있다.



- 교사가 영아를 안아 주려 하자, 영아는 교사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팔을 뻗으며 소통한다.
- 교사가 영아에게 놀잇감의 이름을 말하면서 손으로 가리킬 때, 영아는 가리킨 곳을 쳐다보거나 손가락을 뻗어 보면서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차려 간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의 이름을 부르거나 흥미로운 소리를 내어 영아가 말하는 사람을 향해 몸을 돌리거나 시선을 맞추며 주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영아가 교사의 목소리에 친숙함을 느끼며 말소리에 주의를 기울일 때, 교사는 영아의 말소리를 반복하거나 운율이 있는 표현 등으로 영아와 소통하고 있음을 표현해 준다.
- 교사는 영아에게 말할 때 미소 짓기, 활짝 웃기, 박수 치기,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표현하기 등의 다양한 표정, 손짓, 몸짓 같은 비언어적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소통한다.
- 교사는 높은 음조, 간단한 단어, 긴 모음, 리듬감 있는 짧은 말소리,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소리 등 영아가 평소 좋아하는 목소리를 사용한다.
- 소리 나는 책, 악기, 빗소리, 동물 소리와 같은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 사람의 말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제공하여 영아가 다양한 소리를 경험하도록 해 준다.

2세

표정, 몸짓,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표정은 비언어적 소통 방식 중 하나이며 기쁨, 신남, 화남, 슬픔, 놀라움, 반가움 등의 **느낌**이나 **기분**이 영아나 성인의 얼굴에 미소, 웃음, 찡그림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주의를 기울이거나 몰입할 때의 상태가 영아의 얼굴에 나타나기도 한다.

몸짓은 영아나 성인이 자신의 **감정, 느낌, 생각** 등을 나타내려고 시선, 손가락, 손, 머리 등의 **신체**를 움직여 **의도**를 적극적으로 상대와 나누는 **비언어적 소통** 방식이다. 영아는 손으로 방향을 표시하고, 화남을 표현하려고 팔짱을 끼거나 손을 얼굴에 대고 우는 것과 같이 몸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나타낸다.

말은 영아나 교사가 단어, 문장 등의 음성으로 나누는 **대화나 이야기, 지시** 등으로 **소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는 영아가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이 만드는 소통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평소에 듣는 말 소리의 패턴, 리듬, 억양 등에 반응하여 **맥락**을 알아차리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듣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아는 울먹이는 토래를 안아서 위로하거나,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며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기도 한다. 토래가 가리키는 놀잇감을 집어 주기도 하고, 토래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옆으로 다가가기도 하며, 조심하라는 말에 행동을 멈추기도 한다.

표정, 몸짓,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는 영아가 상대방의 얼굴에 나타나는 느낌이나 기분, 상대방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교사나 토래의 대화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듣는 것을 알아가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놀이기구 위에 앉아 있던 영아가, 올라오려고 시도하다가 잘 안 되자 우는 토래의 표정을 보고 의도를 알아차린다. “내가 올려 줄게.” 말하며 아래로 내려와 의자를 쌓아 준다. “여기를 밟은 다음 여기(줄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면 돼.” 라고 말하며 토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소통의 즐거움을 알아 간다.



- 영아가 의자에 앉아 선생님이 되어, “뽕뽕. 해가 떴어요. 어디 가세요? 하나, 둘...”을 센다. 어린이가 되어 앉아 있던 영아가 “평평”이라고 말하자, 선생님이 된 영아가 “평평” 단어를 듣고, 다시 “평평 눈이 오는데 어디 가세요?”라고 평평 단어를 넣어 말한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알아 가고 있다.



- 영아는 놀이할 때 놀이의 흐름을 바꾸려고 “이렇게 해 볼까?”라고 말하며 또래의 표정을 살피기도 하고, 놀이 맥락을 알아보려고 “뭐라고?”라고 물어보기도 한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대화하는 즐거움을 배워 가고 있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 영아의 관심과 의도를 언어로 말해 주어 소통하고 있음을 보이고, 영아가 이어서 소통을 시도하도록 기다려준다.
- 교사는 영아가 자신의 이름이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사물, 놀잇감, 행동의 명칭 등을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말소리로 들려주어 자연스럽게 의미를 알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가 교사나 또래의 표정, 눈길, 손짓, 몸짓 등을 바라보고 다가가거나 따라 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격려하며 소통을 즐기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상호작용을 한다.
- 교사는 영아가 또래와 표정, 몸짓, 말 등으로 소통할 때 서로 충분히 호응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0~1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교사나 또래가 영아를 향하여 표정, 몸짓, 억양 등을 포함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 등을 **짧은 음절의 소리, 단어와 문장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는 영아가 교사나 또래가 말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거나 소리를 내는 등**으로 **호응**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영아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짧은 음절의 소리, 단어 등으로 상대방과 **소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아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호응하기도 하고, 한 음절 또는 한 단어 등의 소리를 내서 자신도 이야기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머리를 끄덕이거나 흔들며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기도 하고, 노래를 듣다가 아는 단어를 크게 말해 보기도 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는 영아가 자신에게 향하는 교사나 또래가 말하는 소리, 단어와 문장을 들으며, 표정, 몸짓 등을 포함하여 짧은 음절의 소리, 단어 등으로 호응하는 것을 알아 가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교사가 웃는 표정으로 영아의 얼굴을 보면서 “오늘 즐거웠어?”라고 묻자, 영아가 교사의 얼굴에 눈길을 고정하고 “아, 아” 소리를 내면서 교사의 말소리를 듣고 있음을 알린다. 자신이 말소리를 내면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음을 알아 간다.
- 산책 중에 교사가 “오늘은 어디로 갈까? 거기에는 길이 없는데”라고 말하자, 영아가 교사의 말을 듣고 손을 뻗어 방향을 가리키거나, 방향을 바꾸며 “저기, 저기 가자!”라고 말하며 걸어간다. 영아는 손으로 가리키고 말을 하며 교사와 소통하는 것을 알아 간다.



- 화난 표정의 영아에게 교사가 “화가 나는 일이 있구나.”라고 말하자, 영아가 교사의 얼굴을 쳐다본다. 영아는 “어” 하며 손으로 또래를 가리키고, 또 “어” 하며 바구니를 얼굴에 댄다. 또래가 지나가며 바구니를 쳐서 얼굴을 부딪치게 된 상황을 몸짓과 말소리로 교사에게 알리고 있다.

영아의 배움 지원

- 영아가 흥미를 느끼는 것을 응시하면서 표정을 짓거나 소리를 내면 교사는 영아와 함께 바라보며 구체적인 말과 몸짓을 사용하여 영아의 의사 표현을 도와준다. 교사가 영아의 의사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영아는 자신이 내는 소리 중에 의미 있는 말소리가 있음을 알게 되고 말소리 내는 것을 즐기게 된다.
- 영아는 교사의 표정과 말소리와 몸짓을 모방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교사는 상황에 맞게 다양한 표정, 목소리의 높낮이와 크기 등을 조절하여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고 이를 반복해준다.
- 교사의 말에 영아가 소리나 웅얼이로 반응하면, 교사는 짧고 알아듣기 쉬운 말소리로 반응하여 영아의 발성 시도를 격려한다.
- 교사는 영아의 의사 표현 방식에 개인차가 있음을 고려하여, 영아가 몸짓만으로 표현하거나 웅얼이로 반응할 때에도 이를 존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영아에게 말소리를 내도록 무리하게 요구하기보다 영아의 현재 표현 수준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한다.

2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교사나 또래가 영아에게 표정, 몸짓, 억양 등을 포함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 등을 단어와 문장으로 말하는 **대화**를 의미한다.

듣고 말한다는 영아가 교사나 또래의 이야기에 관심과 흥미를 보이고, **이야기의 내용, 대화의 규칙이나 흐름** 등을 알아차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여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아는 한 단어나 두 단어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또래의 이야기를 듣고 왜냐고 묻기도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고, 교사나 또래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 가기도 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는 영아가 교사나 또래의 표정, 몸짓, 말에서 이야기의 내용과 대화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말로 표현하여 대화하는 것을 알아 가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의 손에 붙어 있는 밴드를 본 다른 영아가 “밴드 왜 붙였어?”라고 묻자, “응~ 그냥 붙였어”라고 답한다. 다시 영아가 “안 아파?”라고 묻자, “응. 안 아파.”라고 답한다. 다시 “이거 봐. 밴드 예쁘지?”라고 묻자, 그 질문에 영아가 “응. 아프지 마.”라고 답한다. 두 영아가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자신의 상태나 생각을 말하며 소통한다.



- 영아가 “나는 노란 수박 먹어 본 적 있어.”라고 말한다. 다른 영아가 이야기를 듣고 토래가 가리키는 노란 수박 그림에 눈길을 주며, “나는 빨간 수박 먹어 봤어. 노란 수박은 무슨 맛이야?”라고 묻는다. 영아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맥락에 맞는 말을 하며 소통한다.



- 토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용에 따라 표정을 바꾸고, “와우”, “오!”라고 말하며 호응한다. “뭐야?”라고 의미를 물어보기도 한다. 토래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험을 말하거나, 새로운 상황을 덧붙여 이야기를 짓기도 하며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 간다.

영아의 배움 지원

- 영아는 자신의 의도나 관심을 구체적으로 확장해 주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므로, 교사는 영아의 말이나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반복하거나 확장하여 적극적으로 말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 영아와 대화할 때 교사는 영아가 말할 차례에 눈길을 주거나,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 영아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기다려 주고, 교사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교사는 영아가 단어 또는 문장으로 말하면 영아의 반응을 수용하여 “응, 공이야! 빨간 공이지?”와 같이 영아의 이야기를 다시 말해 주거나 확장해 주어, 영아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흐름에 적합하게 말하는 시도를 즐기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가 흥미를 보이는 사물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거나 간단한 질문을 한다.
- 교사는 영아가 상대방의 질문이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 갈 기회를 제공한다.

0~1세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표정은 비언어적 소통 방식 중 하나이며 기쁨, 신남, 화남, 슬픔, 놀라움, 반가움 등의 **느낌**이나 **기분**이 영아나 성인의 얼굴에 미소, 웃음, 찡그림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몸짓은 영아나 성인이 시선, 손가락, 손, 머리 등의 **신체**를 움직여 자신의 **의도**를 상대와 나누는 **비언어적 소통** 방식을 말한다. 영아는 시선을 고정하거나, 고개를 돌려 찾아보거나, 간단한 손동작인 몸짓 언어 등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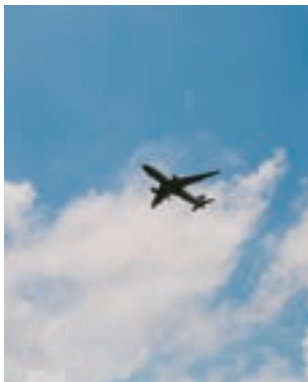
말소리는 자신의 느낌, 상태, 감정, 생각 등을 **소통**하려는 시도로써 영아가 다양한 강약, 억양, 높낮이, 리듬이 있는 **음성**이나 **단어**를 사용하여 만들어 내는 소리를 의미한다.

의사를 표현한다는 영아가 자신의 느낌, 상태, 감정, 생각, 요구 등의 **의도**를 **전달**하려는 비언어적·언어적 시도를 의미한다. 영아는 “안녕.”이라는 말에 손을 흔들거나, 부정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고개를 흔들거나, 의도를 전달하려고 짧은 음절의 소리나 단어로 말한다.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는 영아가 자신의 느낌, 상태, 감정, 생각, 요구 등을 비언어적 소통 방식을 포함하여 음성이나 단어로 표현하여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을 알아 가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교사나 또래에게 웃는 표정으로 팔다리를 빠르게 움직여 좋다는 감정을 나타내거나, 얼굴을 찡그리며 싫다는 감정을 표현하거나, 불편함을 울음소리로 나타낸다.
- 바깥 놀이 중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본 영아가 손가락으로 비행기를 가리키며 “어!”라고 말한다. 교사가 “비행기가 지나가네.”라고 말하자, 영아가 다시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어~”라고 말한다. 교사가 “너도 비행기를 타 봤어?”라고 하자, 영아가 “응.”이라고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 몸짓, 말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교사와 소통한다.



- 돼지 모자를 쓴 영아가 녹음기를 가리키며 교사에게 노래를 틀어 달라는 의사를 몸짓으로 표현한다. 바닥에 놀잇감이 많아 춤추다가 다칠 수 있으니 놀잇감을 치우자는 교사의 말을 듣고, 영아는 시무룩한 표정과 고개를 숙이는 몸짓으로 실망스러움을 표현한다.



영아의 배움 지원

- 영아가 울음을 포함하여 짧은 소리나 표정, 몸짓 등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어떤 것에 관심을 보이며 응시할 때, 교사는 이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적절한 말이나 질문을 한다. 예를 들어, 영아가 우유를 가리키며 손을 뻗는다면 “우유를 마시고 싶구나! 우유 주세요~”와 같이 상황에 맞는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언어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 교사는 영아와 눈을 맞추고, 친근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며, 생생한 표정과 명확한 몸짓을 사용하여 영아가 자연스럽게 교사를 따라 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한다.
- 교사는 상황에 어울리는 말과 함께 풍부한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여 영아가 교사의 의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지원한다.

2세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자신의 요구는 영아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느낌은 영아 자신이나 교사와 또래의 기쁨, 신남, 화남, 슬픔, 놀라움, 반가움, 울음 등의 **기분**이나 **감정, 의도** 등을 감각적으로 알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말한다는 영아가 몸짓, 표정, 손동작 등 비언어적 방법과 함께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전달하려고 단어나 문장을 **음성언어**로 짧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는 바깥 놀이를 나가자고 말하기도 하고, 놀이 방법을 설명하거나 몸짓으로 시범을 보이고,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의도 등을 말과 표정으로 표현한다.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는 영아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자신의 느낌, 상태, 감정, 생각, 의도를 몸짓 등의 비언어적 방식과 함께 단어나 문장으로 짧게 표현하여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을 알아 가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놀이를 정리하고 바깥으로 나가자는 교사의 말을 듣고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교사에게 “나가기 싫어! 반에서 놀고 싶어.”라며 반에서 더 놀이하고 싶은 요구를 말한다.

- 블록과 모형 자동차를 가지고 놀이하고 있는 또래에게 한 영아가 다가가서 또래의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며 “나도 같이 하자.”라고 말한다. 또래와 함께 놀이하고 싶은 요구를 말하여 소통한다.



- 영아는 다른 영아가 다가와 자신이 놀이하고 있는 소꿉 그릇에 점토를 넣자, “하지 마. 그거 내 거야.”라고 화난 감정과 화가 난 이유를 또래에게 말하여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자 한다.

영아의 배움 지원

- 영아가 자신의 요구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에도, 교사는 영아의 요구나 느낌을 알아차려 이를 구체적인 언어로 모델링하여 반복적으로 들려줄 수 있다.
- 교사는 영아가 또래와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의 요구나 느낌을 말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언어 표현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책을 같이 보자고 하네.”와 같이 영아의 언어 표현을 도와줄 수 있다.
- 선천적인 요인으로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영아의 경우, 교사는 그림이나 사진으로 된 의사소통 책, 의사소통 목걸이 등을 사용해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시도함으로써 영아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보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 자폐성 장애가 있는 영아의 경우,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기보다 시각적 단서에 더 잘 반응하므로, 교사는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도록 지원한다.

내용범주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내 용

0~2세 공통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의 그림은 영아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사진, 그림책을 포함한 책자나 인쇄물, 디지털 기기 등에 나타난 사물의 형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이 담긴 **이미지**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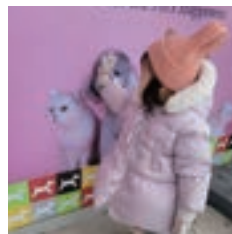
상징은 개념이나 의미를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낸 **그림, 신호, 표지판, 상표, 숫자, 글자**와 같은 **기호** 등을 의미한다. 영아의 서랍장이나 신발장의 자리, 놀잇감 등에 붙어 있거나 약속을 나타내는 그림, 사진, 숫자, 글자 등의 **표시**가 포함된다.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흥미를 느껴 주의를 기울이고 **의미하는 바를 알아 가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영아의 관심 가지기는 시선, 표정, 몸짓, 소리, 말소리, 이야기하기 등의 행위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아는 책에 있는 그림이나 숫자에 시선을 고정하거나, 동물 그림을 보고 동물 흉내를 내기도 하고, 녹색 신호를 가리키며 건너자고 말하기도 하고, 반의 장에 붙어 있는 또래의 사진이나 이름 글자를 보며 손으로 또래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름을 말하며 읽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또래와 함께 그림 등을 보며 짧은 단어와 문장으로 말하기도 한다.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주변의 사진, 그림책을 포함한 인쇄물의 그림, 글자, 숫자 등과 같은 기호가 의미하는 바가 있음을 알고 그 의미를 읽어 보려고 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두 영아가 책에 있는 쇠똥 그림을 보고 “으으으” 하며 코를 막기도 하고, 우유 그림의 우유를 손으로 집어 입에 가져다 대고 “냠냠냠” 하며 우유를 먹는 흉내를 내면서 몸짓과 소리로 그림의 의미를 표현한다.



- 산책하던 중 영아가 애견용품 가게에 붙어 있는 강아지 사진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강아지 사진을 쓰다듬으면서 “멍멍이”라고 교사에게 말하며, 그림에 있는 동물을 알고 있다는 것을 교사에게 알린다.



- 한 영아가 교사가 붙여 둔 놀이 장면 사진을 보면서 “여기 현서야.”라고 말하며 사진에 현서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 옆에 있던 현서가 사진 속의 책을 들고 와서 “이거! 이거!”라고 말하며, 사진에서 책을 읽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리킨다. 두 영아는 사진 장면을 말로 표현하고, 사진의 의미를 알아 가고 있다.

- 그림책의 비행기 그림을 보다가 한 영아가 다른 영아에게 “너는 어떤 비행기 좋아해?”라고 물으며 비행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의도를 말한다. 질문을 들은 영아는 “내가 좋아하는 비행기는 이거야”라고 손으로 가리키고, “비행기 숨 만들어 보자.”라며 토레와 함께 자석 블록으로 비행기를 만든다. 두 영아는 그림책의 비행기 그림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함께 비행기를 만들며 놀이한다.



- 영아가 놀이터 표지판을 보고 손가락으로 놀이기구를 가리키면서 “여기 가자.”라고 말하며, 토레와 표지판 상징의 의미를 나누며 알아 가고 있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와 함께 그림책, 인쇄물을 함께 보며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 그림이나 상징의 의미를 말해준다. “귀여운 강아지네!”, “여기 무엇이 있을까?”와 같이 설명하거나 질문을 던져 영아가 그림과 상징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간단한 말소리, 몸짓, 이야기로 표현하도록 지원해 줄 수 있다.
- 영아가 그림이나 상징을 보고 반응하거나 표현하려고 할 때, 교사는 영아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기다려 주고, 그림이나 상징의 의미에 대한 영아의 표현을 그대로 존중한다.
- 영아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친숙한 동물, 과일, 가족사진, 영아의 사진이 있는 이름표 등을 붙이거나, 퍼즐, 그림 카드 등과 같이 간단한 상징이나 그림이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그 의미를 알아 가도록 지원해 준다.
- 크기가 다양한 그림책, 그림이나 상징이 있는 인쇄물을 두는 공간을 마련하여 영아가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0~1세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

끼적이기는 영아의 초기 쓰기 행동에 해당하며, 영아가 쓰거나 그리기 도구를 손에 쥐고 무작위로 움직여 흔적을 남기는 행위를 말한다.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자신이 끼적인 흔적에 주의를 기울여 바라보고, 결과물에 흥미를 보이며, 이를 교사나 또래와 공유하려고 보여 주거나 가리키고 단어로 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쓰거나 그리기 도구를 사용하여 흔적을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만들어진 흔적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으로 초기 쓰기를 알아 가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분필로 선을 긋다가 색을 칠해 주듯이 분필을 꼭 눌러 힘을 주어 칠하기를 반복한다. 잠시 일어나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쳐다보고, 다시 앉아서 색칠하며 흔적을 만든다.



- 영아는 마커를 잡고 빠른 속도로 팔을 움직이며 발바닥에 칠하고, 끼적거린 흔적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끼적이기를 한 발바닥을 교사에게 보여 준다.

- 영아는 한 손으로는 종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빨간색 크레용을 움켜잡고, 빠르게 혹은 느리게 무작위로 움직여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을 바라보고, “우와~ 불이 났어.”라고 흔적의 의미를 말한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가 자유롭게 끼적이기를 시도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하며, 여유로운 공간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큰 종이를 바닥이나 테이블, 벽에 붙여 영아가 다양한 자세로 끼적이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영아가 부담 없이 끼적이기를 시도할 수 있도록 끼적인 흔적을 쉽게 지울 수 있는 재료나 벽면 공간을 제공한다.
- 영아가 끼적이기에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도록 촉감과 질감이 다양한 종이, 매끄럽거나 거친 벽면과 바닥 등 감각적으로 흥미로운 표면을 제공하여 끼적이기를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한다.
- 두꺼운 크레용, 물에 쉽게 씻기는 마커, 손에 잡기 편한 색연필 등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 영아가 끼적이기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 영아가 끼적이기를 시도할 때 교사는 미소를 짓거나 칭찬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영아의 끼적거림을 따라 하며 “와! 선이 생겼네!”, “빨간색이 예쁘구나!”와 같이 언어로 표현한다.

2세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

끼적이며는 영아의 초기 쓰기 행동에 해당하며, 영아가 쓰거나 그리기 도구를 손과 손가락을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선을 긋고 **그림**과 같은 형태로 흔적을 남기는 행위를 말한다.

표현하기는 영아가 느낌이나 생각, 의미 등을 선이나 **모양**, **그림**, **말로** 나타내는 행위이다.

즐긴다는 영아가 자신의 감정, 느낌, 생각 등을 선, 그림, 상징 등으로 나타내고,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자발적**으로 이를 **반복**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는 끼적이기를 하며 의미를 부여하고, 다시 끼적이기를 **지속**하기도 한다.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는 영아가 쓰거나 그리기 도구를 사용하여 선이나 모양, 그림, 말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고 반복하며 초기 쓰기를 알아 가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원을 그리고 점을 찍으며 “선생님, 이거 고래야, 고래”, 긴 선을 가리키며 “물, 여기서 고래가 물을 뱉어내는 거야.”, 가늘게 선을 그리며 “여기는 고래 꼬리야.”라며, 생각을 선으로 그리고 말로 표현하며 끼적인 의미를 교사와 소통한다.



- 영아는 자신이 만든 작품이 자신의 것임을 나타내려고 의도적으로 선을 그으며 자신의 이름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남긴다.

- 영아는 종이에 끼적이면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형아, 사랑해. 선생님, 사랑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상징을 적극 활용한다. 상징을 활용한 끼적이기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아 가고 있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의 끼적이기가 자신의 생각, 느낌 등을 선, 그림, 상징 등으로 나타내고 그 의미를 나누거나, 이야기를 만들어 또래 혹은 교사와 소통하려는 것임을 알고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인정한다.
- 영아가 자유롭게 끼적이기를 시도하도록 끼적이기를 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끼적일 수 있는 화이트보드나 물감 보드 등을 활용한 끼적이기 공간을 준비한다. 색종이, 골판지, 부드러운 종이 등 질감과 크기가 다양한 종이와 두꺼운 크레용, 색연필, 물에 씻기는 마커 등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쓰기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 교사는 영아가 끼적이기를 즐길 수 있도록 지켜보며 미소를 짓는 등의 관심을 나타낸다. 혼자 끼적이기를 어려워하는 영아에게는 손에 쥐기 쉽거나 손으로 잡기에 부담이 적은 초크, 물붓, 색 모래 등 재미있는 도구를 탐색하고 활용하게 해 보거나 그리기 도구를 손에 쥐는 것을 함께 잡아 도와줄 수 있다.
- 영아가 끼적이며 만든 결과물을 벽이나 게시판에 전시하거나, 책으로 만들어 책 읽기 공간에 비치하여 또래와 함께 볼 수 있도록 한다.

0~1세

책에 관심을 가진다.

책은 영아에게 사물, 물체 혹은 놀잇감으로서 **탐색**할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야기**와 **그림**으로 다양한 상황과 주변 세계를 경험하게 해 주는 **문화 환경**이다. 책에는 그림책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쇄물이 포함된다.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책을 놀잇감으로 **탐색**하거나 책에 있는 그림과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을 의미한다. 영아가 책에 눈동자를 고정하거나 움직이고, 책을 물고, 빨고, 밀고, 깔고 앉고, 들어 올리고, 책장을 넘기려 하고, 책의 그림 등을 보며 소리와 말소리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듣고 책의 내용을 알아 가는 경험 등으로 나타난다.

책에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책 자체를 탐색하는 것을 포함하여 책의 그림과 상징의 의미, 책 보는 것을 알아 가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블록을 쌓다가 책꽂이에 있는 책을 가져와서 블록 사이에 끼워서 쌓으며, 그림책을 놀잇감으로 활용한다.



- 영아 세 명이 소리 나는 그림책을 함께 보고 있다. 한 영아가 책의 물 내려가는 소리 버튼을 누른 후 입술과 혀를 움직이면서 “푸~ 푸~” 소리를 따라 하며 반복한다. 다른 영아도 물 내려가는 소리를 내 본다. 영아들은 그림을 함께 바라보며 몸짓과 소리로 의미를 표현하고, 책을 함께 보며 즐거워한다.

- 영아는 책을 꺼내어 책상에 펴 놓고, 또래가 보고 있는 책을 바라본다. 한 영아가 “나비”라고 말하자, 다른 영아가 소리 나는 책에서 나비 노래를 틀고, 또 다른 영아는 나비 노래를 흥얼거린다. 또래와 함께 그림에 대하여 말하고 그림과 관련된 노래를 부르며 책 보는 것을 알아 간다.



- 교사가 그림책의 얼음집 그림을 보여 주며, “아이 차가워.”라고 말하자, 그림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얼음집 그림을 만지는 척한다. 교사가 읽어 주는 그림책의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



영아의 배움 지원

- 영아는 책을 손과 입으로 탐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사는 형겅책, 비닐책, 두꺼운 보드북 등 재질과 촉감이 다양한 책을 제공한다. 또한 입체 그림책이나 촉감 책 등을 활용하여 영아가 책을 만지고 탐색하며 책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영아가 책을 보거나 책에 손을 뻗는 등의 반응을 보일 때, 교사는 “책을 보고 있구나!”, “책을 읽고 싶구나. 같이 넘겨 볼까?”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책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영아가 시선이나 손짓으로 그림책의 그림이나 부분을 가리킬 때, 교사는 영아와 함께 그림을 보며 “이게 강아지야!”, “여기 고양이네!”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해 주어 영아가 책을 함께 보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한다.
- 교사는 영아가 책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도록 큰 그림과 짧은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을 읽어 준다. 책을 읽는 동안 음성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사용하여 영아가 소리와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게 해 주며, 등장인물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내거나 소품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 영아가 자유롭게 책을 보고 놀이할 수 있도록 즐겨 보는 책을 비치해 두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책은 영아가 **이야기**와 **그림**을 통해 다양한 상황과 주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문해 환경**이다. 책에는 그림 책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인쇄물이 포함된다.

관심을 가지고는 영아가 혼자 혹은 교사, 또래와 함께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단어 혹은 몸짓으로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는 좋아하는 책이 생기기도 한다.

상상한다는 영아가 책 속의 이야기에 몰입하여 그 내용에서 떠오르는 움직임이나 단어를 떠올리거나,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는 책 속에서 새롭게 접한 단어나 개념을 경험과 연결하여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며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즐긴다.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는 영아가 책 속의 그림, 등장인물, 상황 등과 관련지어 이야기를 지어내며 책 보는 것을 즐기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가 '불이야!' 책을 함께 보며, 소방대피 훈련의 경험을 떠올려 책 속 인물이 대피하는 장면을 따라 해 본다. 코와 입을 막은 채 고개를 숙이며 책 내용을 말과 몸짓으로 읽으며 책의 내용을 풍부하게 경험한다.



- 영아는 도서관에서 “선생님, 이거 버섯 책이야.”라고 말하며 자신이 원하는 책을 스스로 꺼낸다. 버섯 그림을 짚으며 “이거는 이름이 꽃이야. 이거는 빨간색이고 이거는 버섯처럼 생겨서 이름도 버섯이야.”라고 말한다. 포자가 퍼져서 연기처럼 보이는 버섯을 가리키며 “이건 왜 그래? 방귀 뀌었나 봐.”라고,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며 이야기를 지어 책 보는 즐거움을 알아 간다.



- 영아가 식물이나 동물 등이 있는 그림책을 골라서 모아 놓고 책장을 넘기면서, 동일한 식물이나 동물을 찾아 손가락으로 짚고 말하며 책 내용의 유사성을 찾아 가며 책 보기를 즐긴다.

영아의 배움 지원

- 동물 그림책, 일상생활을 다룬 이야기책 등 영아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책을 제공하고, 영아가 책에 쉽게 접근하여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 교사는 영아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마련하고, 책을 함께 보며 영아가 관심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말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질문을 던져 책의 내용을 상상하고 이야기하며 함께 책을 보는 즐거움을 나눈다.
- 영아가 책 속의 그림이나 이야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 때, 교사는 이야기를 적어 주거나, 영아가 만든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어 영아가 책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준다.
- 교사는 책 속의 이야기나 등장인물과 관련된 동물 인형, 모형 집, 모자 등 놀잇감이나 소품을 제공하여 영아가 이야기 속 장면을 놀이로 확장하고, 책 속의 이야기를 상상하며 풍부하게 만들며 즐기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책의 내용을 연계하여 영아가 상상하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책에 등장한 동물의 몸짓과 소리를 표현하며 영아의 상상 놀이를 장려하고, 상자, 천, 종이, 물감 등을 활용하여 책 속 배경이나 캐릭터를 영아가 탐색하고 이야기를 재현해 보는 놀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0~2세 공통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말놀이는 짧은 소리를 반복하거나, 단어의 높이, 강약, 길이 등을 달리하며 **운율**을 만들거나, 소리나 단어를 일정하게 반복하거나, **의성어**나 **의태어**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또한 말과 행위를 연결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야기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말**, 자신이 경험한 일이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일러 주는 말**, 어떤 사실 또는 있지 않은 일을 **꾸며 하는 말**을 의미한다. 영아는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경험, 사건 등을 말로 이어 가거나, 그림이나 글자와 비슷한 상징을 이용하여 맥락이 이어지지 않아도 연결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재미를 느낀다는 영아가 **흥미로워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부듯하게 여기고, 반복하고, 자발적으로 즐기는 것**을 말한다. 영아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만들기도 하고, 혼자 혹은 또래와 함께 맥락에 맞지 않아도 이야기를 이어 가고, 때로는 그림을 그려 이야기책을 만들어 교사나 또래에게 보여 주는 것을 즐긴다. 영아는 말놀이와 이야기를 하며 단어와 다양한 문장 표현을 알아 가고, 이를 활용하고 반복하기를 즐긴다.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는 영아가 말로 만드는 다양한 운율, 리듬, 패턴을 즐기고,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바꾸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이야기를 만들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교사가 반복적이고 운율이 있는 말을 할 때 웃기도 하고, 교사의 말소리를 따라 하거나, 말소리를 만들어 보는 것을 좋아한다.

- 영아는 손인형을 한 아름 안아서 책상에 올려놓고 돼지 인형을 가리킨다. 입술을 모아 “고~ 고~” 소리를 내고, 양손에 소 인형을 들고 입술을 벌리며 “머~ 머~” 소리를 반복하며 말놀이를 한다. 영아는 동물을 나타내는 말을 하면서 말놀이를 한다.



- 영아는 소리가 나는 동물 책에서 닭 소리를 듣고, 웃으면서 고개를 들고 “꼬끼오!”라고 말한다. 의성어의 의미와 행위를 연결하는 재미를 알아 간다.



- 영아가 호랑이 인형을 안고 있다가, 토레가 인형을 앓히는 것을 보고 인형을 내려놓으며 “앓아.”라고 말한다. 호랑이가 넘어질 때마다 인형을 쓰다듬으며 “앓아.”라는 말을 반복하며 말과 행위를 연결한다.

- 영아가 토레와 함께 놀이한 사진으로 만든 책을 보면서, 놀이 상황을 떠올린다. “옛날 옛날에 돼지와 늑대가 살았어요. 후~ 불었더니 안 돼. 여기는 내 집이야. 후~ 바람을 불었더니, 도깨비가 나타났다니까. 그래서 하하하하. 그래서 애도 살았어요.”라며 자신의 경험을 그림책과 연결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즐거움을 알아 간다.



- 영아가 조심스럽게 블록을 하나씩 올리고 쌓은 블록이 무너지지 않을 때마다, 강약과 길이 등을 달리하며 “와우~” 소리를 반복하기도 하고, 쌓은 블록이 무너지려고 하자 리듬감 있게 “오~”라고 말하며 즐거워한다.

- 영아가 모래와 동물 모형을 가지고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어 경험과 연결한다.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로 만들어 이야기의 맥락을 만드는 즐거움을 알아 간다.



“새우야,
모래 속에 들어가 있어.”



“꼭꼭 숨어야 해.
상어가 쫓아오고 있어.”



“남남남.
새우를 먹어 버릴 거야.”

- 영아는 아는 단어와 생소한 단어를 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며 즐거워한다. 좋아하는 것을 싫다고 말하거나, 가야 하는 상황에서 눕자고 말하는 것과 같이 상황과 다르게 혹은 반대로 말하거나 이야기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짧고 운율이 있는 말소리나 짧은 단어와 소리를 반복하는 말놀이를 자주 사용하여 영아가 말놀이와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도리도리 까꿍!’, ‘개구리가 개굴개굴’, ‘자동차가 부릉부릉’과 같이 반복적인 표현과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여 말놀이나 이야기를 유도할 수 있다.
- 영아가 웅얼이, 짧은 음절, 간단한 단어를 흉내 낼 때, 교사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언어 표현을 확장하고 격려한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하거나 놀잇감을 정리하거나 옷을 입다가 “내가, 내가”와 같은 말을 할 때, 교사는 “내가, 내가 할 게요.”라고 맞장구치면서 말놀이를 함께 할 수 있다.
- 교사가 책을 읽어 줄 때 길고 복잡한 이야기는 영아의 반응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각색하여 들려준다.
- 영아의 관심이 줄어들면, 목소리의 높낮이나 크기를 조절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이야기를 짧게 마무리한다. 또한 “뒷이야기는 낮잠 시간에 들려줄게.”와 같이 이후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거나, 영아가 관심을 보였던 부분을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며 상호작용을 지속할 수 있다.
- 교사는 다양한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영아가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도록 목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등장인물의 소리를 흉내 내며 이야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식사 시간에 “남남, 맛있다!”, 놀잇감을 정리할 때 “씩씩 담아요!”와 같이 리듬감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영아가 일상 생활에서 언어를 놀이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사회관계



붕붕 함께 밀어 보자

영아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감각을 열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며 배워 나간다. 이 과정에서 영아는 자신이 주변 세계와 연결되었으면서 동시에 분리되어 있음을 경험 하며, 서서히 독립된 존재임을 알아 간다. 영아가 성장하면서 사회관계는 가족에서부터 반에서 함께 지내는 교사, 또래로 넓어지며, 영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고유함과 자신이 소속된 사회를 점차적으로 알아 간다.

사회관계 영역은 영아가 주변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고유함을 알아 가며 긍정적 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 생활하는 즐거움을 알아 가는 내용이다.

교사는 영아가 가족, 또래, 교사 등 주변의 친숙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을 알아 가고, 서로를 존중하고 더불어 지내는 즐거움을 경험하며 긍정적 사회관계를 배우고 성장하도록 지원 한다.

목표

나를 알아가며,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한다.

- 1) 나를 알고 긍정적으로 여긴다.
- 2) 함께 지내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사회관계 영역의 목표는 영아가 자신의 욕구와 감정, 좋아하는 것 등을 알아 가며 자신의 고유함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또래나 가족 등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며 함께 지내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데 있다.

내용

내용범주	내용	
	0~1세	2세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의 고유함을 알아간다. • 나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한다.	
	• 나에게 친숙한 것을 안다.	•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본다.
더불어 생활하기	•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 가족에게 관심을 가진다.
	•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 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안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

영아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에게 친숙한 것을 알아 가며, 좋아하는 것을 해 보면서 점차 자신의 고유함을 알아 가는 내용이다.

더불어 생활하기

영아가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끼며, 가족, 또래, 교사 등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갖고, 반에서 함께 지내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내용이다.

내용범주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내 용

0~2세 공통

나의 고유함을 알아간다.

나의 고유함은 영아가 다양한 움직임과 감각을 통해 자신이 주변과 분리되어 있음을 느끼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감각, 모습, 감정, 이름 등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영아는 자신의 의지로 신체를 움직일 수 있으며,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있고, 여러 상황에서 다른 영아와는 구분되는 자기만의 느낌, 즐거움, 화남, 슬픔 등의 **고유한 감정**을 경험한다. 또한 친숙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는 이름, 잘할 때 받는 칭찬, 가족이나 반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표현이 존중받는 경험을 하며 **자기만의 사회적 고유함**을 만들어 간다.

알아간다는 영아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서서히 느끼며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고유함을 알아간다는 영아가 주변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을 고유한 존재로 알아 가고 다른 사람 누구로도 대체하기 어려운 자신을 소중하고 긍정적으로 여기게 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교사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보거나 팔을 뻗어 반응한다. 이름과 자신을 관계 지으며 자신의 사회적 고유함을 알아 가고 있다.

- 영아가 휴지 갑에서 휴지를 힘주어 뽑거나, 바닥에 붙은 스티커를 집중하여 떼어 보거나, 통 안에서 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 보고 있다. 영아는 자신만의 독특한 감각을 사용해 주변과 다양한 관계를 맺어 가고 있다.



- 영아는 바닥에 비친 그림자를 살펴보고 주변과 분리된 자신의 신체 모습과 자신의 의지에 따른 움직임을 경험하며 자신을 고유한 존재로 알아 가고 있다.
- 영아는 거울에 비친 또래의 모습을 응시한다. 영아는 또래와 다른 자신의 생김새, 표정 등을 알아차리면서 자신의 고유한 외적 특성을 알아 가고 있다.
- 영아는 거울 앞에서 머리에 리본을 단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리본 좋아. 나 이거 좋아해!”라고 말한다. 영아는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며 자신의 고유함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 영아는 가정 외에 자신이 속한 사회적 공동체에서 같은 반 또래들과 함께 지내면서 소속감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주어진 고유한 특성을 배우고 있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00아, 안녕”, “오늘 00이 기분이 좋아 보이네.” 등 상황에 따라 영아의 이름을 자주 불러 준다.
- 영아가 자신만의 이름, 얼굴, 자신만이 가진 사물 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도록 영아의 옷장이나 사물함에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이름표, 사물의 사진 등을 붙인다. 또한 교사는 “00이 가방이에요.”, “00이 옷장이에요.”와 같이 자주 말해 주어 영아가 자신과 관련된 사물과 공간을 인식하도록 지원한다.
- “00이는 옷을 때 보조개가 들어가네.”, “00이 오늘은 머리를 위로 묶고 왔네.”, “00이는 노란색 옷을 입고 왔네.”라고 말하여 영아가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알아 가도록 언어적으로 지원한다.
- 영아가 놀이할 때 “웃는 걸 보니 즐거운 일이 있었구나.”, “00이와 놀이하고 싶은데 00이가 안 와서 보고 싶구나.” 등 영아의 표정과 기분을 살피고 미소 짓거나 안아 주며 영아가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을 알아 가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가 모빌을 바라보거나, 놀이하며 창문 밖을 두렷이 응시하는 상황에서 “모빌을 만지고 싶구나”, “창문 밖이 궁금해? 함께 볼까?”와 같이 영아의 고유한 행동이나 선호를 알아차리고 존중하며 상호작용한다.
- 교사는 영아가 또래와 놀이할 때 “궁금한 게 많구나.”, “아주 조심스럽게 만지는구나.”, “파란 옷을 좋아하는구나. 선생님도 파란색 좋아하는데.” 등 영아의 놀이 모습을 칭찬하거나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 등·하원을 포함하여 상황에 따라 같은 반 영아들의 사진이나 반 이름 등을 자주 짚어 주고 함께 찾아보며 영아가 자신이 사회적으로 속한 공동체에서 고유함을 알아 가도록 공간이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원한다.

0~2세 공통 나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한다.

나의 욕구는 영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려고 자신의 신체와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바라거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하며, 이는 **건강과 안전, 관계와 놀이, 관심과 애정 등에 대한 욕구**를 포함한다.

나의 감정은 영아가 일상생활이나 놀이를 하면서 스스로 또는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기쁨, 분노, 슬픔, 속상함 등의 **느낌이나 기분**을 의미한다.

표현한다는 영아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다양한 표정이나 행동, 언어나 매체 등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한다는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욕구와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산책길에 발견한 꽃을 바라보며 관심을 가진다. 꽃에 가까이 다가간 영아는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살살 만지고 미소를 지으며 만족스러운 감정을 표현한다.
- 영아는 교사와 까꿍 놀이를 하고 있다. 자신이 숨었다가 나타났을 때 교사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까르르 웃는다. 영아는 즐겁고 흥분되는 감정을 긴장된 몸짓과 웃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 영아는 또래가 놀이하는 놀잇감을 쳐다보거나 손으로 만져 보려고 시도한다. 영아는 또래에게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고 싶은 마음을 표정과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다.

- 영아는 그림책에 나오는 토끼처럼 움직이고 싶은 마음을 흉내 내는 행동으로 표현한다. 영아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경험하고 있다.



- 영아는 교사에게 “쉬”라고 말하며 배변 욕구를 표현하고 화장실로 가서 소변을 본다. 영아는 자신의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교사에게 격려받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낀다.

- 영아가 또래에게 전날 재미있게 놀았던 일을 다양한 표정과 행동, 언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영아는 자신의 경험과 느끼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가 배고픔, 배변, 피로 등으로 울거나 짜증 내거나 보챌 때 영아의 감정에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생리적 욕구를 충족해 주고, 영아의 개별 생활 리듬을 고려하여 수유 시간, 기저귀 갈기,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등을 제공한다.
- 영아가 다양한 감정을 놀이로 표현하도록 흔들거나 두드려서 소리 나는 악기, 빠르기가 다양한 음악, 스카프, 밀가루 반죽, 물놀이, 부드러운 솜공, 담기 쏘기 놀잇감 등 영아가 놀이하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 중에 다양한 욕구와 감정을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나타내는지 교사는 지속적이며 주의 깊게 관찰하여 파악하고, “00이 배고팠구나.”, “00이 심심했구나. 함께 놀까?”, “00이 저걸 갖고 싶었구나. 선생님하고 가져와 볼까?” 등 따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공감한다.
- 영아가 속상할 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교사는 바람직한 감정 표현 방법에 대해 모범을 보이고, 영아가 화가 나거나 조용히 지내고 싶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나 놀잇감 등을 제공한다.

0~1세

나에게 친숙한 것을 안다.

나에게 친숙한 것은 영아가 일상과 놀이에서 **자주 만나고 접하면서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 물건, 공간** 등을 의미한다. 영아는 **가족이나 또래, 교사**와 자주 만나면서 친숙함을 느끼고, 양말, 모자 등 자주 접촉하는 **물건**에서 익숙함을 느끼며, 빛이 비치는 창문이나 아늑한 소파 등의 **공간**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안다는 영아가 주변을 자주 접하면서 점차 익숙해지고 편안한 것을 느끼고, 자신에게 친숙한 것과 낯선 것을 **구별하여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영아는 친숙한 것에 대해 **자주 만지기, 다가가기, 미소 짓기, 반복하기** 등의 다양한 반응적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나에게 친숙한 것을 안다는 영아가 자신이 자주 접하는 사람, 물건, 공간 등이 주는 편안함과 익숙함을 경험하고 안정감을 느끼며, 자신과 세상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알아 가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자신에게 친숙한 인형을 입으로 물거나 손으로 만져 보며 촉감을 느끼고, 인형의 모양과 움직임을 눈으로 살펴본다. 영아는 자신이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물건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 영아는 교사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고 눈을 맞추며 활짝 웃는다. 영아는 온정적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는 교사에게 반응적 행동을 나타내며 친근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 영아는 여러 가지 놀잇감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하여 놀이한다. 영아는 안정감을 가지고 놀이하며 자기와 세상의 관계를 맺어 가고 있다.

- 영아는 산책 후 반에 돌아와 바구니에서 자신의 물병을 찾아 뚜껑을 열고 물을 마신다. 영아는 자신의 물건을 구별하고 익숙하게 사용하면서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한 일과를 보내고 있다.



- 영아는 토래와 자주 놀이하는 익숙한 공간에서 오르내리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아늑한 쿠션이 있는 공간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휴식을 취한다. 영아는 친숙한 공간에 머물며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일상생활에서 다정하고 친숙한 목소리로 영아의 이름을 자주 불러 주고, 반에 들어올 때 미소를 짓거나 팔을 벌려 안아 주어 영아가 자신에게 편안하고 친숙한 사람이 있음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 영아가 놀이 중에 토래를 만날 때 “00이도 옆에서 그림책 보고 있네.,” “00이는 먼저 와서 블록으로 쌓고 있네.” 등 토래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토래의 이름과 토래가 하는 놀이 행동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며 지원한다.
- 영아가 가정에서 친숙하게 대했던 인형, 가방, 이불 등 사물을 반에서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아가 반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지원하고, 점차 반의 새로운 놀잇감, 물건, 사람 등으로 친숙한 것을 넓혀 가며 경험하도록 가정과 연결된 안정된 환경을 구성한다.
- 영아가 귀가 시간에 자신의 가방을 가지고 오거나 사물함에 양말을 넣는 등 자신의 물건이나 놀잇감을 자주 만지고 편안한 모습을 보일 때 미소를 짓거나, “가방 메고 갈 거야?,” “옷장에 양말을 잘 넣었네.” 등 언어적 표현을 함으로써 친숙한 사물과의 관계를 넓히며 배워 가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에게 익숙한 놀이 공간, 즉 빛이 비치는 창문이나 아늑한 소파, 반의 구석진 곳 등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한다.

2세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본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란 영아의 **관심**을 끌거나 **즐거움**을 주는 **대상과 활동**을 말한다. 실로폰을 만지고 두드려 보기, 동화책의 소리 버튼 눌러 보기, 자동차를 바닥에 굴리기 등 만족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싶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해본다는 영아가 일상생활이나 놀이에서 **마음이 이끌리고 관심이 가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경험하며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는 행동**을 의미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본다는 영아가 자신의 관심을 끌거나 즐거움을 주는 것을 찾아 자기 주도적인 방식으로 다루거나 시도해 보는 경험을 해 봄으로써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알아 가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스펀지 터널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놀이에 관심을 보이며 반복하고 있다. 영아가 터널 끝에 다다랐을 때 자신을 보고 있던 또래를 발견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영아는 자신의 새로운 시도를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다.



- 영아는 뽕뽕에 올라갔다 살금살금 내려오기도 하고, 살짝 뛰어 매트 위에 앉기도 하면서 폭신한 감각을 즐기고 있다. 영아는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놀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 보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알아 가고 있다.

- 영아는 재질이 다양한 블록을 가지고 더 높이 쌓기를 시도하고 있다. 영아는 관심을 끄는 놀잇감을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놀이하면서 자신의 유능함을 느끼고 있다.



- 영아는 즐겨 보는 그림책을 가져와 또래에게 그림책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영아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주도적으로 시도해 보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가 어떤 놀이나 놀잇감을 반복적으로 선택하여 선호하는지를 관찰하고 “00이가 좋아하는 인형 찾아볼까?”, “여기 사진에 00이가 좋아하는 자동차가 있네. 00이가 찾아보자.” 등 좋아하는 놀이나 놀잇감을 영아와 함께 찾아보거나 영아 스스로 찾아보도록 지원한다.
- 영아가 좋아하는 놀이나 놀잇감을 영아의 손이 닿기 쉬운 교구장에 넣어 영아가 쉽게 찾고 선택하도록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 즐겁게 놀이하도록 환경을 구성한다.
- 영아가 좋아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선택해서 놀이할 때, 여러 방식으로 굴리는 것을 즐기는지, 높이 쌓는 것을 좋아하는지, 두드리기를 재미있어 하는지 등 영아가 놀이나 놀잇감을 즐기는 방식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영아에게 충분한 놀이 시간을 제공한다.
- 영아가 좋아하는 놀이나 놀잇감에 대한 선호가 또래 영아와 같을 수 있으므로 선호도가 높은 놀잇감은 여러 개 준비하여 갈등이나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고, 좋아하는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영아가 자신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놀잇감을 선택해 가지고 놀이할 때 “손전등을 누르니 빛이 나오네!”, “손전등으로 무엇을 비춰 볼까?” 등 영아의 선택을 존중하며 스스로 시도하고 도전해 보도록 언어적으로 지원한다.

내용범주

더불어 생활하기

내 용

0~1세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안정적인 애착이란 영아가 특정한 사람, 물건, 공간 등에 가지는 정서적 신뢰와 유대감을 의미한다. 영아는 자신의 욕구를 민감하게 충족해 주는 양육자나 교사, 낮잠이나 휴식을 취할 때 편안함을 주는 인형이나 이불, 놀이 가지고 다니고 싶은 자동차 등의 사물이나 놀잇감,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집, 자기 반, 서랍장이나 자주 산책 가는 길 등의 친숙한 공간에서 안정감을 경험한다.

형성한다는 영아가 애착의 대상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이를 지속적으로 찾으려 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는 영아가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특정한 사람, 물건, 공간 등에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교사에게 다가와 교사의 몸에 얼굴을 숨기는 영아에게 교사가 “어디 있지?”라고 말하며 찾는 척하자 영아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얼굴을 보여 주며 활짝 웃는다. 영아는 교사와 까꿍 놀이를 하면서, 자신에게 특별한 교사와의 관계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방식으로 정서적 신뢰와 유대감을 맺어 가고 있다.



- 영아는 낮잠 시간에 자신의 담요를 만지작거리거나 인형에 얼굴을 비빈다. 영아는 자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물건에 애착을 느끼며 안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다.

- 영아는 교사 옆에서 또래와 함께 놀이를 하면서 긍정적인 정서와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영아는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토대로 또래와의 유대감을 경험하며 안정적으로 사회관계를 맺어 가고 있다.



- 영아는 가족의 사진, 자기 옷과 가방 등 자신에게 친숙한 물건이 있는 사물함 주변의 공간에 편안함을 느끼고, 그 공간에 지속적으로 머물며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고 있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의 기저귀를 갈아 주거나 옷을 갈아입히거나 이유식을 먹여 주는 등 일대일로 상호작용하며 영아가 교사에게 신뢰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한다.
- 영아가 학기 초 양육자와 떨어져 울면서 등원하기 어려워할 때 따뜻하게 안아 주고, “여기 곰돌이 인형이 있네. 안녕, OO야? 반가워. 우리 같이 놀자.”와 같이 말을 걸며 영아가 낯선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반에서 친숙한 사물이나 교사와 긍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영아가 특정 담요, 동물 인형, 자동차 등의 놀잇감이나 가방, 물병 등 자신의 물건을 지속적으로 찾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사물이나 놀잇감에서 편안함과 위안을 찾고자 하는 영아의 마음을 존중하고 수용함으로써 반에서 안정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영아가 자신의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 조용하고 아늑한 휴식 공간,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 기저귀 갈이나 배변을 할 수 있는 공간 등을 구성하고,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 중에 자유롭게 반의 친숙한 공간에 가서 편안하게 머물며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한다.
- 교사는 영아의 눈빛과 몸짓, 소리에 귀 기울여 “복 두드리는 놀이가 재미있구나. 더 해 볼까?”와 같이 표현하며, 영아가 친숙한 대상과의 안정적 관계를 기반으로 주변의 새로운 대상을 탐색하며 사회적 관계를 넓혀 갈 수 있도록 격려한다.

2세

가족에게 관심을 가진다.

가족은 영아와 한 공간에서 살아가며 일상적인 의식주를 같이 경험하고, 기쁨, 즐거움, 슬픔, 걱정 등의 감정을 교감하며, 영아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말한다. 가족에는 영아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며 안정감을 주는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양육자, 형제·자매, 자주 만나 친숙한 친척 등도 포함된다.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가족을 자신과 특별한 관계로 여기고 **살펴보며 궁금해하는 것**을 말한다. 영아는 가족을 찾거나, 미소 짓거나, 안기는 등 **친밀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가족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자신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게 편안함과 소중함, 애정을 느끼고 표현하면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경험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가 벽에 붙어 있는 자신의 가족사진을 찾고 사진 속 가족 구성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기 우리 아빠, 엄마, 언니.”라고 말한다. 영아는 몸짓과 언어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 영아는 가족 인형을 갖고 놀거나 종이에 얼굴 그림을 그리고 “할머니 사랑해.”라고 말한다. 영아는 가족에 대한 소중한 느낌을 놀이, 행동, 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 영아는 하원 시간에 자신을 데리러 온 가족을 보고 환한 표정을 지으며 반갑게 달려가 안긴다. 영아는 가족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편하고 친밀한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다.



- 영아는 가족과 함께 하원하는 길에 오늘 놀이했던 종이 상자 자동차를 보여 주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영아는 가족과 편안하게 일상의 경험을 공유하며 안정감을 경험하고 있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가 가족사진에 관심을 보일 때 “사진 보니까 아바, 엄마와 바다에 갔던 게 기억났구나. 아바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 등 구체적인 언어 표현으로 영아가 자신의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영아가 소꿉놀이를 할 때 교사는 “OO가 아빠처럼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있구나!” 등 영아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가족에 대한 친밀함, 소중함, 애정의 느낌을 반영한 언어 표현으로 지원한다.
- 영아가 가족과 관련된 동화책을 듣거나 가족이 있는 사진, 다정한 가족 인형 등을 자주 접하도록 놀이 자료를 제공하여 영아가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지원한다.
- 영아가 등·하원할 때 교사가 가족과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교사가 영아의 가족에게 관심을 갖고 존중하고 있음을 느끼도록 지원한다.
- 다양한 국적, 인종, 장애 등을 반영한 놀잇감이나 그림책, 사진 등을 제공하여 영아 가족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존중받도록 환경을 구성한다.
- 교사는 가족과의 면담, 등·하원 시 짧은 대화, 알림장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가정에서의 경험과 기관에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가족과의 경험이 기관의 배움과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0~1세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또래는 같은 연령대 영아로서, 자신과 비슷하거나 다른 감정과 흥미, 놀이 성향을 가지고 **일상생활과 놀이**를 함께하며 관계를 맺어 가는 사이를 의미한다.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또래에게 **흥미를 느끼고 지켜보며 궁금해하는 것**을 말한다. 영아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래에게 미소 짓기, 다가가기, 옆에 앉기, 흉내 내기 등의 **신체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표정, 음성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자신과 같은 연령대의 비슷하거나 다른 관심을 가진 또래 영아를 자신과 구별되는 다른 존재로 여기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맺어 가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가 기어다니며 새로운 시선으로 이곳저곳을 둘러 보다가 누워 있는 다른 영아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 영아는 자신과는 다른 존재인 또래가 함께 있음을 알고 있다.



- 영아가 다른 영아를 향해 팔을 뻗어 관심을 보인다. 영아들은 쳐다보고 눈을 맞추며, 서로에게 흥미를 느끼고 궁금해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영아가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 또래를 지켜보다가 그 옆으로 기어가 앉아 또래가 가지고 놀이하는 놀잇감을 만지려고 한다. 영아는 자신과 비슷한 흥미를 가진 또래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 한 영아가 상자 속에 들어가자 다른 영아가 흥미를 느끼고 상자로 다가간다. 비슷한 흥미를 가진 두 영아는 눈을 맞추어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며 또래 관계를 맺어 가고 있다.



- 영아가 교사에게 요청하여 포대기로 인형을 업자, 다른 영아도 영아를 따라서 포대기로 인형을 업혀 달라고 한다. 두 영아는 인형을 만지거나 우유를 먹이는 등 서로의 놀이 행동을 따라 한다. 영아는 비슷한 놀이 성향을 가진 또래와 다양한 움직임으로 소통하며 더불어 지내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가 거울을 통해 자신과 또래의 모습을 살펴보거나 영아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때 또래 영아의 이름을 넣어 노래를 불러 주어 영아가 또래에게 서로 관심을 가지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가 또래의 옆에 다가가 지켜보고 있을 때 “00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와, 00이 기분이 좋은가 보다.”, “00이가 놀이하는 자동차가 궁금한가 보구나.” 등 또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래 간의 다양한 표정과 행동, 감정과 흥미 등을 언어적으로 표현한다.
- 영아가 또래와 동일한 놀이감을 갖고 싶어 하거나, 또래를 따라다니거나, 또래의 행동을 따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일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며 놀이할 수 있도록 일과를 운영한다.
- 교사는 “00이가 인형을 업어 주고 있구나.”, “블록을 길게 늘어놓아 다리를 만드나?” 등 또래가 노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영아가 또래의 놀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가 또래를 보고 미소를 짓거나, 또래의 주의를 끄는 소리를 내거나, 또래 가까이에서 앉아 놀이하거나, 또래의 행동을 모방할 때 미소, 끄덕임 등 긍정적인 표정을 보이며 영아가 또래에게 관심 보이는 모습을 격려한다.

2세

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또래는 같은 연령대 영아로서, 자신과 비슷하거나 다른 감정과 흥미, 놀이 성향을 가지고 **일상생활과 놀이**를 **함께하며 관계를 맺어 가는 사이**를 의미한다.

함께 놀이한다는 영아 두 명 이상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영아는 또래 옆에 앉기, 바라보고 따라 하기 등의 **행동**을 나타내거나, 또래와 놀잇감을 **각자 가지고 놀거나,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함께 놀이하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으며 나누는** 등의 방식으로 놀이하기도 한다.

또래와 함께 놀이한다는 영아가 주변의 또래와 다양한 방식으로 놀이하는 경험을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아 가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가 장 보기, 아기 돌보기 등 일상에서 경험한 일을 놀이로 나타내고 있다. 영아는 옆에서 함께 놀이하는 또래의 모습을 바라보고 비슷한 방식으로 따라 하며 함께 놀이하고 있다.



- 영아들이 한 공간에 나란히 모여 버블랩 방울 터뜨리기에 흥미를 가지고 놀이하고 있다. 영아는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어 놀이하며 또래 관계를 맺어 가고 있다.

- 영아가 원통 블록을 입에 대고 큰 소리를 낸다. 또래의 놀이를 집중하여 바라보던 다른 영아가 영아의 놀이를 따라 하며 반응한다. 두 영아는 다양한 방식으로 즐겁게 놀이하며 우호적으로 관계 맺는 경험을 하고 있다.



- 영아가 또래와 함께 사각 블록으로 침대를 만들고 누워서 자는 상황을 설정하여 놀이한다. 영아는 또래와 구성물을 만들며 함께 놀이하는 것이 즐거운 일임을 알아 가고 있다.

- 영아는 산책길에 긴 통나무를 발견하고 “기차야, 타!”라고 말한다. 다른 장소에 있던 또래들이 주위로 모여 함께 기차를 타는 상황을 상상하여 놀이하면서, 더 큰 놀이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 관계 맺는 경험을 하고 있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가 놀이하는 또래 옆에 앉아 또래를 지켜볼 때 “00이가 00이와 같이 놀이하고 싶구나.”라고 말하며 또래와 동일한 놀이감을 옆에 놓아 주거나 공간을 확장하여 또래와 함께 놀이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한다.
- 영아가 밀고 끌 수 있는 손수레나 자전거, 물건을 모아 담을 수 있는 바구니, 둘이 함께 탈 수 있는 시소, 서로 연주할 수 있는 악기 등 또래와 같이 할 수 있는 놀이감을 제공하여 또래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00이가 나누어 준 놀이감으로 더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졌네.”, “00이는 소방차, 00이는 경찰차를 갖고 둘이 같이 경주하면 더 재미있겠다.” 등 영아가 놀이감을 서로 주고받거나 나누며 놀이하는 모습을 언어로 표현하여 함께 놀이하는 모습을 격려한다.
- 교사는 영아가 충분한 놀이 시간과 손 씻기, 간식 먹기, 점심 먹기, 낮잠 자기 등의 일상생활을 또래와 함께 놀이처럼 즐기며 보낼 수 있도록 일과를 지원한다.

0~2세 공통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영아가 함께 지내는 관계 속에서 주변의 또래나 교사 등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즐거움, 기쁨, 슬픔과 속상함 등의 느낌이나 기분**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영아와 함께 지내거나 놀이하는 또래나 교사가 나타내는 다양한 표정, 움직임, 행동을 말한다.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행동**에는 웃음이나 미소, 울음 등의 **다양한 표정**과 먹기, 흥얼거리기, 기어가기, 흔들기 등 영아의 **주의를 끄는 움직임**, 그리고 손 내밀기, 안기, 끼어들기 등 **영아를 향한 행동**도 포함한다.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가까이 지내는 또래나 교사 등 다른 사람들이 나타내는 표정, 감정, 행동에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영아는 관심이 가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보고 **쳐다보기, 기다리기, 쓰다듬기 등의 반응적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또래나 교사 등 함께 지내거나 놀이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내는 다양한 감정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놀잇감을 뺏겨 시무룩한 또래에게 다가가 이마를 가만히 맞댄다. 영아는 또래의 속상한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하는 행동으로 반응하고 있다.



- 영아는 등원 시간에 엄마와 떨어지기 힘들어서 울고 있는 또래에게 다가가 눈물을 닦아 준다. 영아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슬픈 감정에 관심을 갖고, 위로하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 영아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또래를 바라본다. 영아는 또래의 표정을 흉내 내는 행동으로 반응하며 즐거운 감정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

- 영아는 블록으로 성을 쌓은 토래의 행동과 만족스러운 표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토래에게 박수로 반응한다. 영아는 토래가 느끼는 자랑스러운 감정을 존중하며 긍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 음식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던 영아가 자신의 옆에서 놀잇감을 쳐다보고 있는 토래를 발견하고 놀잇감을 건네준다. 영아는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토래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놀잇감을 나눠 주며 더불어 지내는 방식을 배우고 있다.



- 영아는 토래가 넘어진 것을 보고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켜 준다. 영아는 토래의 넘어진 행동과 속상한 감정을 알아차리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00이가 신나게 뛰어다니는 걸 보니 바깥에 나와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 “00이 표정을 보니 놀이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 속상한가 봐!” 등 영아가 다른 영아의 감정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언어적으로 지원한다.
- 영아가 주변의 다른 영아가 가족과 헤어져 울거나, 흥미를 끄는 놀잇감을 향해 기어가거나, 교사를 보고 웃으며 손을 내미는 등 감정과 행동을 나타낼 때, 교사는 안아 주기, 놀잇감 선반에서 꺼내 주기, 미소 지으며 손 잡아 주기 등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교사는 영아와 그림책을 읽으며 영아가 등장인물의 다양한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고, “00이가 울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00이의 생일을 어떻게 축하해 줄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하여 다양한 반응적 행동을 예측해 보도록 지원한다.
- 토래 간에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사는 각 영아의 욕구와 감정을 읽어 주고, 영아가 서로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감정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격려하며 토래와의 사회적 관계 맺기를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가 역할을 맡아 상상하며 놀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놀이 자료와 공간을 제공하거나 놀이에 함께 참여하게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험을 하도록 지원한다.

0~1세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반은 영아가 또래나 교사와 함께 일과를 보내며 생활하는 **물리적 공간**이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온정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 공간**을 의미한다.

편안하게 지낸다는 영아가 함께 지내는 사람, 공간, 일과에서 **친밀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는 교사나 또래가 자신에게 민감하게 귀 기울이거나, 수유나 이유, 수면과 배변 등의 생활 리듬, 성향 등이 존중되는 환경과 분위기에서 **안락함과 평온함을 경험**한다.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는 영아가 또래와 교사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반에 익숙해지고, 따뜻함과 안락함, 신뢰감 등을 경험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가 졸린 표정으로 교사에게 다가가 몸을 기대자 교사는 영아를 안아 토닥여 준다. 자신의 필요에 대한 교사의 따뜻하고 민감한 반응을 통해 영아는 반이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편안한 공간임을 경험하고 있다.



- 영아는 반에서 식사, 수면, 배변 등 일상의 일을 할 때 자신의 고유한 생활 리듬과 요구가 존중되는 배려를 받으며 안락함과 신뢰감을 갖고 편안한 일과를 보내고 있다.

- 기저귀 갈이가 끝나자 영아가 다리를 쭉 편다. 교사가 여느 때와 같이 교사의 손바닥에 영아의 발바닥을 대고 밀어 주는 스트레칭을 반복하자 영아는 까르르 웃으면서 반에서 이루어지는 익숙한 일과에 긴장감 없이 편안하게 참여하고 있다.



- 영아는 자신에게 익숙하고 흥미로운 놀잇감이 안정감 있게 배치되어 있는 안락한 공간에서 자신에게 민감하게 귀 기울여 주는 온정적인 교사, 친숙한 또래와 함께 놀이하며 안락함과 평온함을 경험하고 있다.

- 영아는 점심시간이 다가와 놀잇감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도 블록을 손에 꼭 쥐고 정리하지 않는다. 교사는 “블록 놀이 더 하고 싶어?”라고 묻고, “그럼 블록 놀이 조금만 더 하고 밥 먹을까?”라고 이야기하고 기다려 준다. 영아는 자신의 욕구와 성향이 존중되는 환경과 분위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일과에서 영아가 경험하는 간식이나 수유, 점심, 낮잠, 산책 등 중요한 일상생활을 일정하게 반복되는 흐름으로 운영하여 영아가 일과를 예측하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의 개별적인 수면, 배변, 이유 및 식사 등의 생리적 욕구나 놀이하고 싶어 하는 관심을 알아차리고, 졸린 영아가 휴식을 취하도록 안아 주거나 충분히 놀이한 후에 간식을 먹도록 하는 등 영아의 신체 리듬과 요구에 맞게 일과를 여유롭고 유연하게 조정하여 영아가 하루를 평온하고 안락하게 보내도록 지원한다.
- 반에 영아가 편안하게 눕거나 쉴 수 있는 쿠션이나 아늑한 공간을 마련하거나, 평소 영아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그림책 등의 놀잇감을 제공하여 영아가 자유롭게 놀이하면서 반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영아가 또래 옆에서 그림책을 보거나, 음악 소리에 맞춰 몸을 움직이거나, 보자기를 덮고 눕는 놀이를 하는 등 간단한 놀이와 활동을 하여 영아가 또래와 경험을 공유하며 즐거움을 느끼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00이가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났구나.”, “00이가 그 공을 만져보고 싶었구나. 공을 이곳으로 굴려 볼까?” 등 영아의 표정과 행동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온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반응함으로써, 교사가 항상 자신을 존중하고 언제든지 안길 수 있는 편안함 사람임을 느끼고 영아가 교사에게 신뢰감을 갖도록 지원한다.

2세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안다.

지켜야 할 약속은 영아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 가며 **서로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가 존중하고 따라야 할 것은 차례 지키기, 양보하기, 기다리기, 자기 물건과 놀잇감 정리하기 등을 포함한다.

안다는 영아가 정해진 규칙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아, 교사 등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음을 이해하고, **자신도 이를 지키려고 시도해 보는 것**을 말한다.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안다는 영아가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경험을 통해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이 있음을 알고, 이를 지키려는 행동을 하여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며 성장해 간다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등원하여 자신을 맞이해 주는 교사와 반갑게 인사한다. 영아는 교사와 만나 인사하며 반가움을 표현해 보는 경험을 하며 사회관계를 맺어 가고 있다.



- 영아는 놀이기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또래들로 붐비는 상황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영아는 모두가 원하는 놀이를 즐겁게 하려면 차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 영아는 또래에게 무엇을 양보하거나, 또래가 잃어버린 놀잇감을 함께 찾으러 가거나, 오름대를 오르는 또래에게 손을 뻗어 도와준다. 영아는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지켜야 하는 약속을 존중하고 따르는 행동을 하며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 영아는 신발장에서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있는 칸을 찾아 스스로 신발을 넣거나, 옷걸이에 자기 옷을 걸어 정리한다. 영아는 자기 물건을 정리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시도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00이가 옷이 떨어지지 않게 잘 걸었구나. 단추도 끼웠네!”, “00이도 그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친구도 갖고 놀 수 있도록 양보했구나.” 등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약속을 지키려고 시도한 노력을 칭찬하며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가 실내외 놀이기구는 자기 순서가 되어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래와 함께 놀이하려고 스스로 욕구를 참고 기다려 보는 시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가 자기 물건이나 놀잇감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개인 사물함에 영아의 사진과 이름을 붙여놓거나 놀잇감 선반에 놀잇감 사진을 붙여 놓는 등 놀이 환경을 지원한다.
- 영아가 서로를 방해하거나 놀잇감을 빼앗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는 놀잇감을 충분히 제공하고, 충분히 움직여 놀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놀이 환경을 지원한다.
- 교사는 등·하원 시간에 먼저 공손하고 따뜻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영아가 인사하기 등 반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4

예술경험



토토야, 이쁘지?

영아는 특별한 방식과 다양한 감각으로 자연과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느끼며 아름다움을 찾아 간다. 영아는 자신의 몸과 여러 가지 재료, 도구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느낌, 생각, 감정을 다양한 예술로 표현하며 즐긴다.

예술경험 영역은 영아가 자연과 생활에서 만나는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기쁨과 놀람,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며 느끼는 것을 다양한 소리와 리듬, 노래, 움직임과 춤, 미술과 모방 또는 상상 놀이 등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내용이다.

교사는 다양한 예술경험 속에서 영아가 느끼는 아름다움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 예술 표현을 즐기도록 충분한 시간, 공간, 재료를 지원하여 영아의 탐색과 상상을 격려한다.

목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 1)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 2) 자유롭게 예술 표현을 한다.

예술경험 영역의 목표는 영아가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며 경험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소리와 움직임, 미술 등 다양한 예술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있다.

내용

내용범주	내용	
	0~1세	2세
아름다움 찾아보기	•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	•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한다.
	•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한다.
	• 다양한 미술 재료를 경험한다.	•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한다.
	• 모방하기를 즐긴다.	• 상상놀이를 한다.

아름다움 찾아보기

영아가 자신의 신체와 주변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연과 생활,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느끼는 내용이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영아가 자신의 느낌, 생각, 감정을 다양한 소리와 리듬, 노래,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한 미술 재료를 경험하며, 주변에서 경험한 것을 모방하거나 상상놀이를 자유로운 표현을 즐기는 내용이다.

내용범주

아름다움 찾아보기

내 용

0~2세 공통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자연은 영아가 등·하원길, 산책길, 실내외 놀이 공간에서 마주치는 주변 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꽃과 풀, 곤충, 고양이 등의 **동식물**, 작은 열매나 물, 흙, 돌멩이 등의 **자연물**, 햇살, 바람, 비와 같은 **자연현상**을 포함한다.

생활이란 영아가 기관에서 **일과를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아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일상**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이**를 포함한다.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은 영아가 주변 환경을 보고, 듣고, 만지면서 **예쁘고 신기하거나 기분 좋은 것 등의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아가 주변 환경에서 특별하게 마음을 끄는 것에 대해 유심히 바라보거나, 귀 기울이거나, 쓰다듬거나, 조심스럽게 안아 보거나, 손뼉을 치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영아가 주변 환경에서 만나는 대상에 대해 감탄, 즐거움, 만족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다양한 꽃 중에서 하얀 민들레꽃을 발견하고, 한참 동안 살펴보면서 신기해하고 즐거워한다. 민들레꽃의 향기를 맡고, 바라보고, 만져 보는 감각적 경험에서 영아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정서를 느낀다.



- 영아는 교사가 만들어 주는 커다란 나뭇잎의 그림자 모양에서 빛의 움직임과 밝기가 만들어 내는 아름다움을 느낀다.

- 영아가 산책길에 네모난 종이 액자 틀을 들고 나무, 잔디, 하늘 등 평상시 지나쳤던 다양한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서 프레임 안에 펼쳐진 새로운 풍경과 장면을 보고 놀라며 즐거워하고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 영아는 여러 가지 나뭇잎으로 꾸미기를 한 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옷에 붙은 은행나뭇잎을 보고 “어, 예쁘네! 더 붙여 볼까?”라고 하면서 단풍나뭇잎과 은행나뭇잎으로 자신만의 무늬를 만들어 가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 영아는 수족관을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물고기의 움직임과 색깔이 다양한 해초, 물결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색과 모양의 변화에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수족관을 손바닥으로 두드리고 “아~ 아!” 등의 감탄하는 소리를 내며 즐거워한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가 날씨에 따라 산책, 바깥 놀이를 하며 다양한 자연을 몸으로 경험하도록 지원하고, 반에서도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느끼는 등 영아가 자연과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지원한다.
- 영아가 우연히 발견한 식물이나 떨어지는 빗방울 등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때, 교사는 함께 바라보며 영아가 느끼는 아름다움에 공감해 준다. 영아가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눈빛, 웅얼이, 손뼉을 치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모습을 말로 표현해 주며 영아가 충분히 느끼도록 기다려 준다.
-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모빌이나 교사의 옷, 인형 등에 관심을 기울일 때, 교사는 가까이 다가가서 또래와 함께 만지고 바라보며 아름다운 느낌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영아반에 색깔이 아늑한 천, 모양과 무늬가 비정형적인 가구,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화분과 소품 등을 제공하여 특별한 놀이 자료뿐만 아니라 공간이 주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0~2세 공통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예술은 영아가 재미있는 것을 만들고 **표현하는 과정 자체와 결과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듣고 보거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형식과 경험**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감정과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상상 놀이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주변의 소리나 리듬, 움직임과 춤, 미술, 상상 놀이 등에 관심을 가지고 **감탄, 즐거움, 만족, 슬픔, 놀람 등의 다양한 감정과 특별한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정적인 음악, 스카프의 하늘거리는 움직임, 물감이나 점토의 색이 섞이며 표현되는 변화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리를 지르거나, 교사가 손 인형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짓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영아가 자신이 표현하거나 경험한 예술에서 감탄, 즐거움, 만족, 슬픔, 놀람 등의 다양한 감정과 특별한 정서를 경험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바닥에 펼쳐진 커다란 종이와 박스 위에서 붓 또는 자신의 손과 발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표현한다. 빨간색과 노란색 물감이 묻은 자신의 손과 발을 전지에 찍어 보다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그림자, 자신의 발과 발 모양 물감 자국을 바라보며 “우와, 반짝반짝!”이라고 말하며, 예술적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알아 간다.



- 영아들은 투명 이젤 위에 조각 셀로판지를 붙여 꾸며 보고, 교사는 영아들이 꾸민 투명 셀로판지 이젤을 사진으로 찍어 보여 준다. 영아들은 자기가 꾸민 예술 표현을 사진으로 감상하며 “우와~!”라는 감탄사로 표현하고 신기함과 만족감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

- 영아가 바깥 놀이터에서 하늘거리는 스카프 천을 들고 달리기 시작하면, 바람과 달리는 속도에 따라 스카프 천이 살랑인다. 영아는 바람에 흔들리고, 맑은 햇빛에 따라 반짝이기도 비치기도 하는 스카프 천의 다양한 움직임을 보며 표현의 아름다움을 알아 간다.
- 영아가 일상에서 끼적이지기를 한 다양한 표현을 교사가 영아들이 보기에 편안한 방법으로 전시해 주었다. 영아는 벽면에 전시된 작품을 보며 “나 잘 그렸지?”라고 묻고, 또래의 미소에 함께 웃는다. 영아는 자신이 표현한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 영아들이 기관에 방문한 인형극단의 인형극을 재미있게 보면서 인형의 모양과 움직임, 등장인물의 이야기와 노래 등 예술에서 즐거움을 경험한다.



영아의 배움 지원

- 영아에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와 같은 부드럽고 편안한 음악을 들려주어 영아가 소리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미술작품, 음악, 춤, 인형극과 같은 다양한 예술 장르를 접하며 친숙함을 느끼고 예술에 관심을 가지도록, 교사는 현장학습이나 기관으로 찾아오는 공연, 영상을 통한 관람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 교사는 영아가 완성된 형태의 작품뿐만 아니라 예술적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름다움을 느껴 보도록 영아의 감상을 격려하거나, 영아가 미술이나 동작 등을 표현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전시 또는 감상하도록 지원한다.
- 영아에게 특별한 놀이 자료나 예술 작품 등을 천장과 창문, 벽면이나 복도, 야외 바깥 놀이터 등 다양한 장소에 전시하여 영아가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내용범주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내 용

0~1세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

소리는 자신의 몸과 주변 환경에서 **영아의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영아는 소리를 귀로 듣거나 몸으로 느끼기도 한다. **자신의 몸에서 들리는 소리**는 웅얼이, 목소리, 손뼉 치기 등이고, **자연과 생활에서 들리는 소리**는 낙엽을 밟으며 나는 바스락 소리와 딸랑이나 종을 흔들 때 나는 소리 등이다.

리듬은 운율이 있는 말소리나 노래 등 주변의 다양한 소리에서 영아가 특별히 귀 기울이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길고 짧은, 강하고 약한, 반복적인 소리 패턴** 등을 의미한다. 교사가 불러 주는 노래나 운율감 있는 말 놀이, 교사가 안고 흔들는 움직임 속에서 리듬을 느낄 수 있고, 특별한 목소리를 만들어 내거나 고개를 까닥이면서 리듬감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노래는 영아가 주변에서 자주 듣는 동요, 자장가 등을 포함한 **가락과 리듬이 있는 소리**를 의미하며, 영아의 노래는 웅얼이, 흥얼거림, 한 음절로 부르기 등으로 나타난다.

표현한다는 영아가 웅얼이를 하거나, 목소리로 흥얼거리거나, 노래의 일부를 부르거나 악기나 사물을 두드려 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 느낌,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는 영아가 주변 환경에서 듣거나 보고 느끼는 것을 몸이나 놀이 자료로 내는 소리, 가락이나 장단, 강약, 운율이 있는 소리와 노래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타내 보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장구를 바라보더니 손으로 만져 보다가 손바닥으로 쳐 본다. 영아는 손바닥의 세기를 다르게 하여 장구를 두드릴 때 소리의 크기가 다르게 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다양하게 두드려서 소리를 표현한다.



- 영아들이 바깥 놀이터에서 통을 반복적으로 두드리다가 리듬감을 느끼고, 리듬을 만들거나 서로의 리듬을 따라 해 본다.

- 영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따라 해 본다. 또래와 손을 잡고 흔들며 '안녕'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노래 부르는 즐거움을 느낀다.



- 영아는 교사가 자장가를 불러 주거나 운율 있는 말소리로 이야기해 줄 때 교사의 소리와 비슷하게 높낮이가 있는 웅얼이로 호응하며 표현한다.
- 영아는 익숙한 노래와 소리에도 즐거움을 표현하지만, 새로운 노래나 소리가 들릴 때 소리 나는 쪽으로 시선을 멈추면서 귀 기울여 듣거나 몸으로 느낌을 표현하기도 한다.



- 영아가 페트병에 단추를 넣어 만든 마라카스 악기를 바깥 놀이 중에 막대로 두드리고 보고 굴러 보고 움직여 보면서 다양한 소리를 찾아보고 만 들어 보는 즐거움을 느낀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가 실내외 환경에서 나는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신기해할 때 함께 귀 기울이며 반응해 주고, 영아가 웅얼이나 목소리로 다양한 소리를 내어 볼 때 함께 소리로 호응하면서 영아가 충분히 소리를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사가 일상생활에서 영아에게 운율 있는 말소리로 이야기해 주고, 손유희 노래나 다양한 노래를 리듬감 있게 불러 주어 영아가 리듬감을 느끼고 소리나 몸으로 표현하도록 지원한다.
- 영아반에 소리 나는 인형, 음악 소리가 나는 놀잇감 등을 다양하게 배치하고, 영아가 손으로 두드리는 것에 관심을 보일 때는 북처럼 두드리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제공하여, 영아가 소리를 깊고 다양하게 탐색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가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노래에 맞춰 몸을 흔들고 손뼉을 치는 등으로 표현할 때 함께 따라 불러 주거나 눈을 맞추고 고개를 흔들며 반응해 주어 영아가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지원한다.

2세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한다.

익숙한 노래는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자주 들어 **친숙하거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동요, 자장가 등을 말한다.

익숙한 리듬은 친숙한 사람의 운율이 있는 말소리, 손뼉 치는 소리, 시계 소리 등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길고 짧은, 강하고 약한, 반복적인 소리 패턴** 등을 의미한다.

표현한다는 영아가 목소리나 손발 같은 자신의 신체, 사물, 악기 등을 사용하여 **감정과 느낌, 생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는 다양한 노래와 리듬에 익숙해지며 자주 들어 본 노래를 섞어 부르거나 일부를 변형하여 부르고, 일상과 놀이 중에 혼자서 혹은 또래와 함께 노래 부르기를 즐긴다. 또한 규칙적인 리듬과 소리 패턴에 따라 자유롭게 노래하거나 익숙한 리듬을 악기를 두드리거나 인형을 토닥여 주는 등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 낸다.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한다는 영아가 친숙함을 느껴 익숙한 노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르거나, 악기나 놀이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익숙한 리듬을 만들어 보면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들이 큰 통에서 울리는 소리를 신기해한다. “부부부~ 부부부부~” 말놀이 리듬을 만들고 서로의 표현을 듣고 따라 해 보며 묻고 답하기, 반복, 모방 등의 음악적 특징을 경험해 본다.



- 같은 반 또래의 생일잔치 날 “00에게 노래를 불러 주고 싶어요.”라며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탬버린과 함께 노래 부르면서 또래에게 축하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 영아는 놀이 중에 또래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있다가 또래의 노래를 따라 함께 따라 부르면서 즐거워한다.

- 영아들이 함께 다양한 복으로 익숙한 노래에 맞춰 리듬을 표현해 보기도 하고 옆에 있는 또래에게 “이렇게 해봐”라고 알려 주기도 하면서 다양한 소리를 표현해 본다.



- 영아들은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오고, 놀이가 지속되고 몰입하면서 노래의 일부분만 부르거나 두 가지 노래를 섞어 부르는 등 노래를 변형하여 부른다.



- 영아들이 바깥 놀이터에서 함께 손을 잡고 평소에 즐겨 부르는 노래를 리듬에 맞춰 동글게 돌아가면서 불러 보며 함께 리듬에 맞추어 움직이는 즐거움을 느낀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의 낮잠, 식사, 정리 시간 등 일과 중에 영아가 노래와 리듬에 익숙해지도록 노래나 리듬을 반복적으로 들려주거나, 영아와 함께 노래 부르기, 다양한 악기로 비슷한 소리를 내어 보기 등 표현하는 과정을 즐겁게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 중에 소리 나는 사물을 흔들며 익숙한 리듬이나 노래를 흥얼거릴 때 교사가 함께 맞추어 주거나 리듬을 더해 주며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즐겁게 표현해 보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가 알고 있는 노래를 섞어 부르거나 일부분 지어 부르는 특징이 있음을 알고, 노래와 리듬을 정확하게 표현하거나 박자를 맞추는 것보다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즐기도록 자발적이고 창의적이며 즐거운 표현에 귀 기울인다.
- 교사는 노래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는 영아에게는 또래의 노래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뼉을 쳐 보는 등 꼭 소리 내어 노래를 부르지 않더라도 리듬에 점차 익숙해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놀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노래 부르기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배경음악으로 노래를 틀어 두거나, 노랫말과 관련된 그림이나 소품을 제공한다.

0~1세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움직임이란 영아가 주변 환경에서 느끼는 것을 몸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몸을 이동하거나 제 자리에 서서 흔들거나, 정지해 보는 것까지 포함**한다. 영아에게 움직임은 흥겨운 노래나 소리에 맞춰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고 고개를 위아래로 까닥이거나, 살랑거리는 스카프를 보고 나비처럼 팔을 흔들거나, 악어처럼 기어 보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표현한다는 영아가 **즐거움, 신남, 슬픔 등의 감정이나 듣고 보고 느낀 것을 움직임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표현은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얼굴 표정이나 손끝과 발끝 등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움직임으로 표현한다는 영아가 주변 환경에서 듣고 보며 느끼는 것에 대한 기분이나 감정을 몸을 움직여 나타내 보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가 유희실에서 놀이를 하다가,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자신의 양손을 쭉 뻗은 채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며 몸을 흔들어 노래에 맞추어 표현한다.



-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거나 박수를 치면서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 영아가 자동차를 타다가 하늘 위를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고는 “나도 비행기!”라고 외치며, 자동차를 들고 몸을 하늘로 향하게 움직여 자신의 생각을 움직임으로 표현해 본다.

- 영아가 음악 소리에 맞춰 스카프를 빠르게, 높이 흔들어 보면서 음악의 느낌을 다양한 스카프의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또한 또래와 함께 스카프를 연결하여 큰 스카프의 움직임을 만들어 보고 서로 힘을 조절하면서 음악에 맞춰 함께 움직이는 즐거움을 느낀다.



- ‘나비야 나비야’ 노래를 흥얼거리며 두 손을 나비처럼 흔들면서 제자리에서 또는 걸어 다니면서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몸을 움직여 표현할 때 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하거나, 영아의 움직임을 따라하거나 끄덕이는 등의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영아가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움직임이며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음악, 그림, 스카프, 큰 천 등의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 교사는 영아가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것이 큰 동작으로 두드러지지 않더라도 얼굴 표정이나 손가락, 발가락의 까닥거림 등 미세한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영아의 움직임을 따라 하며 공감해준다.
- 교사는 영아들이 함께 모여 움직임으로 표현하기를 즐길 때 영아 간 간격을 충분히 두고 움직이도록 해 주고, 주변의 책상 모서리나 교구장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전에 공간을 점검하여 영아들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즐기는 환경이 안전하도록 지원한다.

2세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한다.

움직임은 영아가 주변 환경에서 느끼는 것을 몸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의 몸을 이동하거나 제자리에 서서 흔들거나, 정지해 보는 것까지 포함한다. 영아에게 움직임은 **빠르고 느린 소리나 음악에 따라 동작을 바꿔 보거나**, 리본 막대와 같은 **놀이 자료를 사용해 몸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이야기 속 공룡처럼 걸어 보기도 하는 등 **의도적이고 다양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춤은 영아가 소리, 리듬, 노래 등을 듣거나, 그림 또는 영상 등을 보며 **자신의 느낌을 자유롭게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에게 춤은 즉흥적이거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노래에 맞춰 규칙이 있는 동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표현한다는 영아가 **기쁘고 신나고 놀라는 감정과 느낌**을 엉덩이를 찔룩거리거나, 눈을 감고 미소 짓거나, 손끝과 발끝을 쪽 펴는 등 **몸의 각 부분을 자유롭게 움직여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아 스스로 또는 또래나 교사와 즐겁게 움직이는 경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한다는 영아가 주변 환경에서 듣고 보며 느끼는 것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나타내 보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또래가 부르는 '그대로 멈춰라!' 노래를 듣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여 본다. 영아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라는 노래의 리듬에서 '멈춰라!' 부분이 나올 때 움직이던 몸을 정지하며 규칙이 있는 동작으로 춤을 표현해 본다.



- 영아는 노래를 부르면서 손유희나 율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면서도 자신이 즉흥적으로 만든 율동을 하면서 표현해 본다.

- 직접 만든 종이 리본을 가지고 모양과 길이가 다양한 리본이 만들어 지도록 팔과 다리를 움직여 보고, 빙글 돌아보거나 여러 장소로 이동하면서 도구와 함께 다양한 동작으로 표현해 본다.
- 영아가 공룡 모형에서 치켜세워진 꼬리를 자세히 살펴보고, 한쪽 무릎과 양팔로 몸을 지탱한 채 다리를 들어 올려 공룡과 비슷하게 몸을 움직여 표현해 본다.
- 영아가 무언 음악극의 애니메이션이 벽면에 틀어져 있는 것을 보고 감상하다가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의 음악에 맞추어 움직이면서 다양한 춤으로 표현해 본다.



- 영아는 ‘떼굴떼굴 굴러라~ 떼굴떼굴 굴러라’와 같은 노래를 부르며 빙글빙글 돌거나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즐거워한다.

영아의 배움 지원

- 영아가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몸으로 표현할 때, 교사는 영아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여 보거나 영아의 표현을 언어적으로 묘사해 주어 영아가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지원한다.
- 영아가 소리나 음악에 맞춰 움직이거나 춤을 출 때, 교사는 영아의 표현을 존중하고 격려해 주어 영아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지원한다. 영아가 음악의 특징이나 변화에 따라 움직일 때는 표정이나 눈 맞춤, 끄덕임 등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호응해 주며 영아의 자유로운 표현을 지원할 수 있다.
- 영아가 주변 세계에서 보는 상징이나 그림, 모형이나 사물 자료 등에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할 때 풍부하고 사실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스카프, 리듬막대 등의 다양한 소품을 제공하되, 소품을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하게 제공한다.
- 교사는 영아들이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활동을 할 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영아 간 간격을 충분히 두고 움직이도록 거리를 조정해 주거나 주변 사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사전에 공간을 점검하며 영아들이 또래와 함께 움직이고 춤추는 것을 마음껏 즐기도록 지원한다.

0~1세

다양한 미술 재료를 경험한다.

다양한 미술 재료란 영아가 그리거나 뿌리거나 만들어 보는 등 감각적 탐색과 표현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재료를 의미한다. 영아에게 미술 재료는 큰 도화지나 전지, 무독성 크레파스, 스티커, 여러 가지 모양의 도장 등 **평면적 표현 재료**부터 밀가루 점토, 수수깡과 같이 촉감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입체적 표현 재료**, 나뭇잎, 흙, 돌멩이 등 **자연물**이나 병뚜기나 감자 등의 **식재료**도 포함된다.

경험한다는 영아가 미술 재료를 누르고, 찌고, 쥐어 보고, 그려 보고, 문지르고, 섞어 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하며, 감각적 즐거움을 느끼는 과정에서 재료가 지닌 차가움, 따스함, 끈적임, 까칠까칠함 등의 질감과 색, 모양 등의 **독특한 특성을 알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미술 재료를 경험한다는 영아가 물감, 크레파스, 먹, 색종이, 수수깡 등의 일반적인 미술 재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재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미술적 표현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재료의 특성을 알아 가며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즐기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가 흙 크레파스를 만져 보고 두드려 보고, 바닥에 끼적여 보면서, 울퉁불퉁한 바닥에 그리는 느낌이 종이와 다를 것을 경험한다.



- 영아는 점토를 조물거리며 재료의 질감을 느껴 보다가 잘게 뜯어도 보고, 모양 찌는 틀을 사용해 점토 위에 별 모양을 찍어 보며 재료의 특성을 탐색해 본다.

- 영아가 동그란 도트 물감을 종이에 콩콩 찍어 보다가, 영아 자신의 몸이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미술 재료가 된다는 재미를 느끼며 자신의 발과 손에 찍어 본다.



- 영아는 전분으로 놀이하며, 전분에 물감을 섞어 보다가 끈적한 전분의 느낌을 한참 동안 느껴 보고 물감 액체가 만나 서로 흐르고 뒤섞이며, 색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한다.



- 영아는 여러 색 습자지를 뭉쳐 보며 얇은 종이의 구겨지는 느낌을 탐색하고, 색 습자지에 물을 부려 보는 경험을 하며 종이에서 여러 가지 색이 나오는 것을 보며 신기해한다.

- 산책길에 모아 온 솔방울, 나뭇가지, 나뭇잎을 물감으로 색칠하며, 자연물도 다양한 미술 재료가 되는 것을 경험한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재질, 색, 모양을 지닌 미술 재료를 비치해, 영아가 재료의 색과 질감, 크기의 차이를 직접 비교해 보고, 동일 재료도 다른 방식으로 놀이하고 표현해 볼 수 있음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종이, 색종이 등 일반적 미술 재료뿐만 아니라 천, 나뭇잎, 흙 등의 재료에 크레용, 물감 또는 꾸미기 재료를 더하여 영아가 다양한 미술 재료를 탐색하고 표현하는 즐거움을 알아 가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가 미술 재료를 경험할 때 보이는 시도를 격려하고, 영아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미술 재료를 충분히 탐색해 보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물감 등 피부에 닿는 미술 재료는 식용 색소, 영아 전용 물감 등을 사용해 영아가 온몸으로 미술 재료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너무 크기가 작은 미술 재료는 코에 넣거나 삼킬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2세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한다.

다양한 미술 재료란 영아가 그리거나 부리거나 만들어 보는 등 감각적 탐색과 표현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재료를 의미한다. 영아에게 미술 재료는 종이, 색연필, 무독성 크레파스 등의 **평면적 표현 재료**와 점토류, 우유갑, 휴지 심 같은 **입체적 표현 재료**, 나뭇잎, 솔방울, 돌멩이 등 **자연물**이나 파프리카, 식빵 등 **식재료**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다양한 미술 도구란 영아가 미술 재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하고, 변화시켜 보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사물을 의미한다. 영아에게 미술 도구는 붓, 스펀지, 도장, 안전가위, 밀대 등 **일반적인 미술 도구** 외에도 종이컵, 수세미, 숟가락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물건**이 포함된다.

표현한다는 영아가 그리고, 붙이고, 접고, 자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료가 지닌 특성을 탐색하고,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영아가 의도적으로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연히 만들어질 수도 있다.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한다는 영아가 여러 가지 미술 재료가 지닌 질감, 색, 모양 등의 특성을 탐색하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재료를 변화시키고, 의도적으로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나타내기를 즐기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가 붓으로 물감 놀이를 하다가 “선생님, 이것 봐요.”라며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 보인다. 손으로 물감을 만져 보고 발로 그림을 그려 보며, 색을 즉흥적으로 혼합할 때의 아름다움과 재미를 경험한다.



- 영아는 다양한 롤러에 물감을 묻혀 커다란 상자에 색을 칠해 보며, 롤러의 모양에 따라 무늬가 다르게 표현되고, 색이 섞이며 나타나는 변화를 느낀다.



- 영아가 모래 위에 나뭇가지를 조절하며 동그라미를 표현해 본다. 부드러운 흙에 선이 그어지는 느낌과 반복되는 모양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 영아는 집을 만들기 위해 벽돌 블록을 종이테이프로 고정하고, 커다란 박스 종이에 그림을 그린 뒤 안전가위로 자르고 있다.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만들면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을 알아 간다.



- 영아는 여러 색깔 점토를 혼합해 밀대로 납작한 모양을 만들어 보고, 스파게티 면을 잘라 점토 위에 꽂아 고슴도치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재료가 지닌 다른 특성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낀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가 미술 재료와 도구를 탐색하며 표현할 때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의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돕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창의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영아에게 익숙하거나 새로운 미술 재료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 미술 도구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영아에게는 그림이나 손잡이 보조도구를 지원함으로써 영아가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표현해 보도록 지원한다.
- 영아가 자연물을 포함한 다양한 미술 재료의 모양과 크기, 색을 탐색하거나, 물감으로 채색하거나, 다르게 배열해 보는 과정에서 색과 모양 배열의 시각적 균형과 리듬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지원한다.
- 영아가 자발적으로 미술 재료와 도구를 활용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영아의 표현을 존중하며, 세밀한 소근육 조절이 필요한 재료를 점차적으로 제공하며 더욱 풍부하게 표현하도록 지원한다.



0~1세

모방하기를 즐긴다.

모방하기는 영아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사람, 사물, 동식물 등의 소리, 표정, 몸짓을 따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아에게 익숙하고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일 수도 있고, 특별하게 주의를 끄는 것일 수도 있다.

즐긴다는 것은 영아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소 짓기, 소리 내어 웃기 등의 감정 표현이나 지속적으로 행동하기로 나타난다.

모방하기를 즐긴다는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익숙하거나 관심을 끄는 대상과 상황을 따라 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가 선생님에게 다가와 머리를 손으로 만지더니 드라 이기를 들고 온다. 드라이기 놀잇감으로 “위잉~” 소리를 내며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말리는 흥내를 낸다.



- 바깥 놀이를 나가기 전, 교사가 ‘악어 떼’ 동요를 들려주자 영아들이 동시에 바닥에 엎드려 기어가면서 악어의 움직임을 신체로 표현하며 모방하기를 즐긴다.

- 영아가 바깥 놀이터에서 모래놀이용 냄비와 손가락을 들고 놀이하다가 손가락으로 냄비를 두드리기 시작한다. 냄비에서 “딩~ 딩~” 소리가 나자 영아는 입으로 “딩~ 딩~” 소리를 내며 냄비를 두드려 나는 소리를 모방해 본다.
- 교사가 영아와 함께 간식을 먹다가 영아가 입을 크게 벌리고 간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에 깜짝 놀란 표정을 짓자 영아도 교사의 놀란 표정을 따라 흥내 내어 본다. 교사가 코를 찡긋거리자 영아는 자신의 코를 찡긋해 보며 교사의 표정을 따라 하며 웃는다.

- 엄마 아빠와 함께 식사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어서 밥 먹자~ 맛있겠다!”라고 말하며 또래와 함께 그릇을 놓고 물을 따르고 밥을 먹는 흉내를 내 본다.



- 영아들이 박스의 그림을 보고 거북이 등껍질을 떠올린 후, 스스로 거북이가 되어 거북이 등껍질(상자)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는 놀이를 한다. 영아들은 거북이의 특징을 떠올리며 놀이 자료를 활용해 모방하는 것을 즐긴다.

- 바닥에 있는 초록색과 연두색 촉감 퍼즐을 밟아 보던 영아가 “나뭇잎 같다!”라고 말하고는 곧장 초록색 촉감 판 위에 엎드려 꾸물꾸물 기어 애벌레의 특징을 몸으로 따라 해 본다.

영아의 배움 지원

- 영아가 일상생활의 경험을 모방할 때, 교사는 영아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며 따라 해 볼 수 있다. 영아의 모방하기는 놀이 자료가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영아의 행동 자체에 초점을 두어 영아가 모방하는 것이 즐거운 경험임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가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경험을 떠올려 모방할 때, 구체적인 맥락에서 놀이 자료와 상호작용 등으로 영아가 다양한 모방하기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형견, 천, 스펀지 블록 등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는 놀이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반에 놀이 자료를 배치할 때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종의 인형이나 음식 모형 등을 함께 제공한다.
- 발달이 느린 영아에게는 그림책이나 사진, 영상, 직접적인 경험 등을 풍부하게 제공하여 영아가 자신만의 표현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세

상상놀이를 한다.

상상놀이는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주의 깊게 본 것을 흉내 내거나,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한 대상이 되어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물과 사람의 움직임, 소리, 자연현상 등을 주의 깊게 보고 따라 하거나, 자신에게 익숙하거나 인상적인 경험, 그림책 또는 영상매체에서 본 장면을 떠올리며 자유롭게 놀이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상놀이는 혼자 또는 또래나 교사와 상호작용하면서 할 수도 있고, 보자기, 인형, 블록 등 놀이 자료를 활용하거나 놀이 자료 없이도 할 수 있다.

상상놀이를 한다는 영아가 익숙하거나, 인상적으로 경험했거나,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한 대상이나 상황을 자유롭게 상상하며 놀이하는 것을 즐기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바깥 놀이터에서 거미를 본 영아가 “으악, 거미다!” 하고 도망갔다가 잠시 후 보이는 네트에 대롱대롱 매달리며 자신의 신체를 거미로 표현하고, 또래에게 “나는 거미다!”라고 무서운 목소리로 말하여 자신의 상상을 신체와 언어로 표현한다.



- 동물 모형에게 동물원을 만들어 주고, 동물들이 자고 있는 호랑이의 집에 놀러 오는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구체적인 모형을 활용하여 함께 상상놀이를 경험한다.
- 영아는 바닥에 교사가 만들어 둔 초록색과 연두색 촉감길을 따라 걸어 보다가 “나뭇잎 같다!”라고 말하고는 촉감길 위에 엎드린다. 그리고 촉감길을 따라 꾸물꾸물 기어 보며 “나는 애벌레야!”라고 말하며 웃는다.

- 캠핑 놀이를 하며 영아들이 블록으로 모닥불을 만들고 고기 모형과 비닐 장갑 등을 사용해서 “이번엔 내가 구울래.” 하면서 고기 굽는 흉내를 낸다. 다른 영아는 “빨리 고기 주세요.” 하면서 텐트에서 밥 먹기를 기다리는 흉내를 낸다.



- 낮잠 시간에 일찍 일어난 영아는 낮잠을 자고 일어나는 영아들에게 다가가 빗으로 머리를 빗는 흉내를 내고 얼굴을 쓱 쓱 문질러 주며 또래 영아들에게 머리를 빗겨 주고 로션을 발라 주는 놀이를 한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가 상상놀이를 즐길 때 잠시 기다려 주거나 개방적인 질문을 하며 영아의 즐거운 상상이 이어지도록 격려한다.
- 교사는 영아의 상상놀이에 개인적 경험과 문화적·발달적 차이가 반영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영아의 표현에 귀 기울이며 영아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가 상상놀이를 확장해 나가도록 놀이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상 이야기, 등장인물의 요소 등을 추가하여 영아가 상상놀이를 즐기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가 상상놀이를 할 때 자연스럽게 또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영아들이 함께 상상놀이를 하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격려한다.

5

자연탐구



어디서 나오는 거지?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한다. 이처럼 타고난 호기심 때문에 영아는 깨어 있는 동안 끊임없이 만지고 움직이고 듣고 보고 맛보고 냄새 맡으면서 세상의 다채로운 것들을 조금씩 배워 간다.

자연탐구 영역은 영아가 호기심을 바탕으로 생활하면서 접하는 다양한 사물, 사람, 동식물, 자연 현상과 상호작용하며, 수, 공간, 모양, 규칙성, 생명, 자연 등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하고 배우는 과정을 즐기는 내용이다.

교사는 영아의 고유한 배움의 방식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영아가 주변 환경과 자연을 주도적으로 탐색하며 배움을 즐기도록 격려한다.

목표

주변 환경과 자연을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 1) 일상에서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 2)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다.
- 3)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

자연탐구 영역의 목표는 영아가 주변 환경과 자연에서 발견하는 흥미로운 탐색 거리를 마음껏 탐구하며 즐기고, 살아 있는 생명과 자연의 변화를 경이롭게 여기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데 있다.

내용

내용범주	내용	
	0~1세	2세
탐구과정 즐기기	- 주변 환경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 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 -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 규칙성을 경험한다.	•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 사물을 갖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 날씨의 변화를 느낀다.	•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

탐구과정 즐기기

영아가 주변 환경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사물과 자연을 탐색하며 즐거워하는 내용이다.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영아가 놀이와 일상에서 물체의 특성, 수, 공간, 모양, 규칙성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사물을 갖고 다름에 따라 구분하며 주변의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영아가 주변의 동물과 식물에 관심을 가지며, 날씨의 변화를 느끼고 점차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내용이다.

내용범주

탐구과정 즐기기

내 용

0~2세 공통 주변 환경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주변 환경은 가정, 반, 놀이터, 공원과 같이 영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 놀잇감, 생활도구, 가구와 같이 영아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물건, 빛, 소리, 냄새** 등을 포함한다.

자연은 영아가 생활하면서 만나는 곤충, 새, 강아지와 같은 **동물**, 풀, 꽃, 나무와 같은 **식물**, 물, 모래, 흙, 돌멩이와 같은 **자연물**, 햇빛, 구름, 비, 바람과 같은 **자연현상** 등을 포함한다.

호기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자주 접하는 사물이나 상황과 같이 익숙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의 호기심은 가리키기, 응시하기, 가까이 다가가기, 놀라움과 궁금함을 몸짓이나 말소리나 말로 표현하고 알리기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주변 환경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자주 접하는 물건, 동식물, 자연물, 자연현상 등에 대해 궁금해하며 주의를 기울이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가 딸랑이를 손에 쥐고 흔들어 소리가 나자, 소리가 나는 곳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 영아는 딸랑이를 흔들면서 자신의 행동이 소리로 연결되자 딸랑이를 잡은 손을 보며 웅얼이를 한다.
- 영아가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에 시선을 고정한다. 물방울이 움직일 때마다 그 움직임을 따라가며 손을 뻗어 본다.
- 영아는 벽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니 잠시 쳐다보다가 벽의 오목한 공간에 손가락을 넣어 꺾 눌러 본다.



- 영아는 비가 온 뒤 바깥 놀이를 나가 바닥에 고인 물에 손을 넣고, 자신의 방식으로 휘저어서 생기는 물과 모래의 움직임을 유심히 바라본다.



- 영아는 손전등으로 벽, 바닥, 천장을 비추며 빛의 움직임을 따라다닌다. 전등 빛을 손으로 잡으려 하기도 하고 발로 밟아 보기도 하지만 빛이 잡히지 않는다.



- 영아가 놀이터에서 기어가는 개미를 발견하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개미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개미가 움직이자 영아는 이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손으로 가리키거나 “응!” 하고 소리를 내어 반응한다. 개미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영아도 몸을 움직여 개미를 따라간다.

- 영아는 그림자를 발견하고 손을 뻗어 만져 본다. 그림자가 따라 움직이자 그림자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가 평소 궁금해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을 파악하고, 연관된 자료나 그림책 등을 제공하여 놀이가 확장되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영아가 자동차에 호기심을 가진다면 자동차 놀잇감, 자동차 그림책, 도로 매트 등을 제공하여 호기심을 지속하게 해 줄 수 있다.
- 교사는 영아가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호기심을 가지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영아가 물웅덩이를 바라보고 있다면, 곧바로 “손으로 물장구쳐 볼 까?”라고 제안하지 않고, 영아 스스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다려 준다.
- 교사는 영아가 주변 환경이나 자연에 호기심을 가질 때, 영아의 관심을 따라 함께 바라보고 주의를 기울이며 궁금해한다.
- 교사는 영아가 탐구 중에 나타내는 가리키기, 소리 내기 등의 의사 표현에 귀 기울이고, “개미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구나!”와 같은 언어적 상호작용이나 꼬덕이기, 미소 짓기와 같은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영아의 호기심을 격려한다.

0~2세 공통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사물은 영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자주 접하는 물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모빌, 공, 블록, 인형, 상자와 같은 **놀잇감**과 **놀이 자료**, 미끄럼틀, 그네, 시소와 같은 **놀이기구**, 그림책, 잡지, 광고지와 같은 **인쇄물**, 과일, 빵, 채소와 같은 **음식**, 젓병, 수저, 컵, 식판, 칫솔과 같이 영아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 도구**, 속옷, 양말, 신발과 같은 **의류**, 의자, 책상, 소파와 같은 **가구** 등이 포함된다.

자연은 영아가 생활하면서 만나는 곤충, 새, 강아지와 같은 **동물**, 풀, 꽃, 나무와 같은 **식물**, 물, 모래, 흙, 돌멩이와 같은 **자연물**, 햇빛, 구름, 비, 바람과 같은 **자연현상** 등을 포함한다.

탐색하기는 영아가 호기심을 느끼는 사물이나 자연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관찰하기, 만져 보기, 냄새 맡기, 몸으로 느껴 보기, 흔들어 소리 내 보거나 움직여 보기, 뭉치거나 나누어 보기, 두드려 보기, 눌러 보기, 비교하기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탐색하기를 즐긴다는 영아가 사물과 자연에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알아보는 과정을 좋아하여 반복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는 영아가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물과 자연을 다양한 방식으로 살펴보고 알아 가는 과정을 좋아하여 이를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더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가 원통 블록을 머리 위에 올리기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다가 성공하자, 교사 및 또래와 함께 즐거워한다.



- 영아가 두 손에 막대를 쥐고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하자, 교사가 두 손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노래를 부른다. 영아는 막대를 들고 반 곳곳의 놀잇감을 두드려 보며 소리가 달라지는 것에 귀 기울이고 소리 내어 웃는다.



- 영아가 쌀과자를 손으로 움켜쥐고 만지작거린다. 쌀과자가 부서지자 흥미로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다시 손으로 만져 보기를 반복한다. 이후 부서진 쌀과자를 입에 가져가 맛을 본 뒤, 소리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 영아는 흔들 목마에 올라타 손잡이를 잡고 몸을 앞뒤로 움직여 본다. 몸을 더 강하게 흔들거나 천천히 움직여 보고, 손잡이를 놓았다가 다시 잡아 보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친다.

- 영아는 산책 중에 커다란 나무의 껍질이 벗겨져 있는 곳을 발견하고, 한참 동안 집중해서 바라본다.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주위 나무껍질 속을 이리저리 쭉서 보며 나무껍질의 특성을 탐색한다. 나무껍질이 땅바닥에 떨어지자 그것을 주워 들고 비벼 보다가 한참 동안 집중해서 바라본다.



- 영아는 경사로에 모래를 뿌린 뒤, 물을 천천히 조금씩 부어 보다가 빠르고 많은 양의 물을 부어 보는 행동을 반복한다. 물을 빠르게 많이 부을 때 모래가 경사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모래가 흘러나가는 것을 막아 본다. 손으로 모래의 흐름을 막는 데 성공하자 영아는 미소를 짓는다.

영아의 배움 지원

- 영아가 사물과 자연을 탐색할 때, 교사는 부드러운 미소와 고덕임, 영아의 행동을 따라 하기 등으로 영아의 탐색 행동을 인정하고 격려한다. 예를 들어, 영아의 탐색 행동과 관련하여 “촉촉해.”, “부드러워.”와 같이 탐색 경험을 언어로 표현해 준다.
- 영아가 반복해서 호기심을 보이며 탐색하는 사물이나 자연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탐색을 즐기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영아가 이전에 탐색했던 자연물을 다시 제공하여 자연물의 변화를 살펴 보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영아가 특정 사물이나 자연에 오랫동안 집중할 때 다른 놀이나 활동을 제안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고, 영아가 자유롭게 탐색을 지속하도록 기다려 준다.
- 영아가 일과 중에 자연을 접하고 탐색을 즐길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 준다. 예를 들어, 바깥 놀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영아가 바람, 햇빛, 나뭇잎, 흙, 물 등 자연을 직접 경험하게 해 주거나, 실내에서 자연물 등을 활용하여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용범주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내 용

0~2세 공통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친숙한 물체는 영아가 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거나 다루는 다양한 물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모빌, 공, 블록, 인형, 상자와 같은 **놀잇감과 놀이 자료**, 과일, 빵, 채소와 같은 **음식**, 컵, 그릇과 같은 **생활 도구**, 양말, 신발 등의 **의류**, 나뭇잎, 돌멩이와 같은 **자연물** 등이 포함된다.

감각은 영아가 몸이나 물체, 자연 등과 같은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알아가는 통로**로서 영아의 **청각, 촉각, 시각, 미각, 후각** 등을 의미한다.

탐색한다는 영아가 **호기심**을 느끼는 친숙한 물체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관찰하기, 만져 보기, 냄새 맡기 등 감각을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 굴리기, 흔들기, 움직이기, 두드리기, 뭉치거나 나누기, 누르기, 던지기 등을 하면서 살펴보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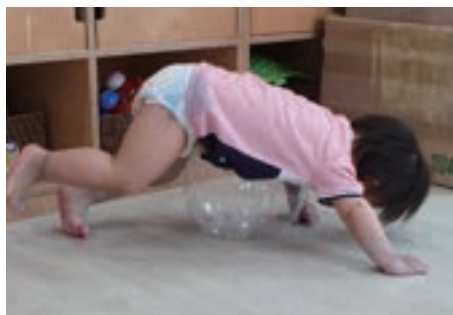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는 영아가 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거나 다루는 물건에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감각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눈에 보이는 공의 모습과 입체감 사이의 관계를 경험한다.
- 영아는 놀잇감을 입에 넣고 빨다가 꺼내어 물끄러미 바라본 후 다시 입에 넣어 빠는 것을 반복하면서 입으로 빨았을 때 느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다.



- 영아는 손에서 놓은 공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간다. 공이 스스로 굴러가다가 다른 물체에 부딪혀 멈추자 관심 있게 응시한다.



- 영아는 공을 배로 눌러 보며 공이 몸을 지탱하는 힘을 느끼고, 공은 눌러도 납작해지지 않음을 경험한다. 또 한 공을 배로 이리저리 굴리며 이동한다.

- 영아는 컵을 쌓으려다 발에 끼워 보고 컵 속의 발을 살펴본다. 컵에 발이 꼭 끼이는 것을 느끼며, 컵의 길쭉한 모양과 발의 길쭉한 모양이 유사하다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 영아는 간식으로 나온 사과를 먹으며 시원하고 달콤한 맛을 느끼고, 씹을 때 나는 아삭아삭한 소리에 귀 기울인다. 사과를 손으로 만져 보고, 눈으로 보며, 냄새도 맡아 보면서 사과의 촉감, 모습, 향 등을 알아 간다.

- 영아는 땅에 떨어진 모과를 발견하고 주워서 바라보고 코에다 갖다 대며 냄새를 맡는다.



- 영아는 그릇에 담긴 밀가루를 만지며 촉감이 부드럽고 만질 때마다 모양이 변하는 밀가루의 특징을 알아 간다. 교사가 물을 부어 주자, 물과 밀가루가 만나는 것을 지켜보며 두 물질이 쉽게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다. 손에 밀가루 반죽이 달라붙는 것을 경험하고 관심 있게 바라보던 영아는 손가락을 붙였다 떼었다 해 보며, 손가락을 서로 떼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 간다. 영아는 손에 밀가루 반죽이 점점 더 많이 달라붙자 무거워져서 손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느낀다.



- 영아는 흙을 만져 보며 촉촉하고 차가움을 느끼고, 흙을 뭉쳤다가 다시 부수기를 반복한다. 흙탕물을 만져 보면서 물과 흙이 섞이는 모습을 바라본다.



- 발에 양말이 닿는 느낌을 불편해하는 영아에게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의 양말 놀잇감을 제공해 주었더니, 자세히 살펴보고 만져 보다가 천천히 신어 본 뒤 한 걸음씩 걸어 본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고정된 형태가 있는 물체뿐만 아니라 물, 모래, 휴지, 밀가루 반죽 등과 같이 영아의 행동에 따라 그 형태가 변하는 물질도 영아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물질은 영아의 행동에 따라 형태가 변화하므로 영아가 놀이에서 주도성을 경험할 수 있다.
- 교사는 영아의 탐색이 손 씻기와 양치하기, 옷 입고 벗기, 간식 및 식사, 낮잠 등 일상과 실내 놀이, 실외 놀이, 이동하는 시간 등 일과 전체에서 일어남을 이해한다.
- 영아가 스스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영아에게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안전한 환경과 자료를 지원한다.
- 교사의 선호에 따라 한 가지 감각에 치우치기보다는 오감을 활용하여 탐색하도록 해 준다. 예를 들어, 촉감 놀이를 하면 옷이 더러워지거나, 교사가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도록 오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복장을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 감각적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아가 있다면, 교사는 영아가 추구하는 감각을 파악하고 그 욕구를 충족해 주면서 영아가 감각적 탐색 범위를 넓혀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영아의 탐색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영아가 현재의 행동 속에서 물체의 어떤 특징이나 기능을 발견해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영아의 보호자와 공유함으로써 영아 행동의 의미를 보호자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0~2세 공통

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

일상은 놀이, 식사, 낮잠과 같이 영아에게 친숙한 **일과**와 영아가 주변에서 **자주 경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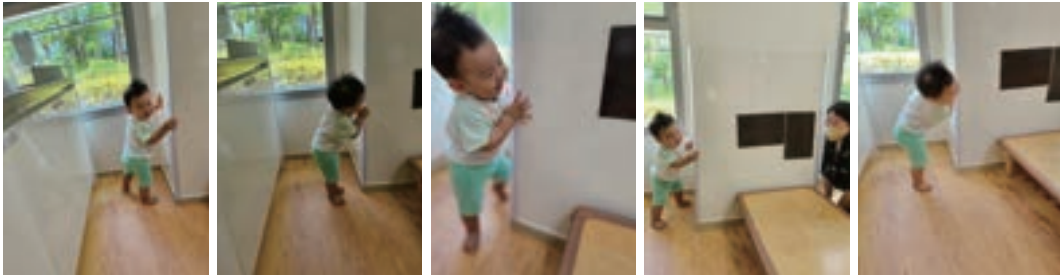
수는 영아가 일상에서 경험한 **있고 없음, 많고 적음, 크고 작음, 수 세기, 수와 양의 변화, 하나씩 짝 맞추기** 등을 포함한다.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수와 관련된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흥미를 느끼며 더 알아 가고자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대하거나, 많은 양과 적은 양 또는 큰 것과 작은 것을 비교하고, 수를 세어 보려고 시도하며, 수와 양의 변화에 주목하고, 사물을 하나씩 짝 지어 보거나 줄을 세워 보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있고 없음, 많고 적음, 크고 작음, 수 세기, 수와 양의 변화, 하나씩 짝 맞추어 보는 등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흥미를 느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를 알아 가고자 시도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교사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까꿍!” 하며 얼굴을 내미는 모습을 집중해서 바라본다. 교사가 손으로 다시 얼굴을 가리면 영아는 눈을 크게 뜨고 교사가 다시 나타나길 기대하며 손으로 가린 곳을 가리키거나 “아!” 하고 소리를 낸다. 교사가 다시 “까꿍!” 하며 얼굴을 내밀자 영아는 손뼉을 치거나 몸을 흔들며 기뻐한다.



- 영아는 통에 담긴 블록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놓으며, 블록을 꺼낼 때마다 통 안을 들여다보면서 남아 있는 블록의 수를 확인한다. 마지막 블록을 꺼내 바닥에 놓은 후, 통 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통을 거꾸로 뒤집어 흔들어 보며 블록이 없음을 확인한다.
- 영아가 좋아하는 작은 공을 교사가 천으로 덮자, 천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 교사가 “공 어디 갔지?”라고 묻자, 영아는 손을 뻗어 천을 잡아당기고, 공이 나타나자 미소를 지으며 즐거워한다.

- 영아가 큰 나뭇잎 위에 돌멩이를 올릴 때마다 돌멩이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에 주목한다. 나뭇잎 위에 돌멩이가 가득 차자 “많다.”라고 말한다.



- 영아들이 함께 모은 토마토를 통 두 개에 나누어 넣고 토마토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며, 토마토의 개수를 세어 보려고 시도한다.



- 영아가 나무 블록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또래에게 블록 한 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한 개와 여러 개를 구별한다.



- 점심시간에 영아는 쟁반 하나에 숟가락 하나를 올려 본다. 영아는 다음 쟁반 위에 또 다른 숟가락을 올리는 행동을 반복하며, 모든 쟁반 위에 숟가락을 하나씩 올린다.



- 간식 시간에 영아가 쟁반 위에 바나나를 일렬로 늘어 놓고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으며 “하나, 둘...” 수를 세어 보려고 시도한다.



- 영아는 신발장에 있는 자신의 이름 앞에 신발을 놓으면서, 이름과 신발을 짝 지어 보고, 신발의 짝을 맞추어 본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일상에서 영아가 만나는 모든 자료가 수를 경험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영아가 이러한 자료에서 어떻게 수를 경험하고 탐구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한다. 특히, 수에 대한 탐구를 지원하는 것이 수 세기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영아가 간식이나 식사 시간에 음식을 토래에게 나누어 주는 경험, 신발장에 신발을 넣어 보는 경험, 낮잠 시간에 이불과 베개를 나누어 주는 경험 등을 할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 영아가 일상에서 수와 관련된 경험을 하고 있을 때, 교사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영아의 행동을 따라 하는 등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영아를 격려한다.
- 교사는 영아가 수와 관련된 상황을 경험할 때 적절한 언어로 그 상황을 묘사해 준다. 예를 들어, 영아가 블록을 쌓으면 “블록이 많아졌네.”, 공을 치우면 “공이 사라졌네.”, 나뭇잎을 줄지어 놓으면 “나뭇잎이 줄을 썼네.”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

0~2세 공통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공간은 영아가 몸을 움직이며 놀이하고 생활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영아와 다른 사람 또는 사물 간의 **거리, 위치, 방향** 등을 포함한다. 영아가 자신과 교사, 또래, 사물이 가까운지 먼지, 앞이나 뒤나 옆에 있는지를 경험하거나, 반의 안과 밖, 상자의 안과 밖, 탁자의 위와 아래, 계단의 깊이와 높이, 창문의 높낮이, 문의 열림과 닫힘 등을 경험하는 것을 포함한다.

모양은 영아가 사람, 사물, 자연물 등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알아차릴 수 있는 **생김새**를 의미한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와 같은 기본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각지거나 둥글거나 뾰족한 형태, 그리고 손 모양, 발 모양, 손가락 모양, 나뭇잎 모양 등 다양한 생김새를 포함한다.

탐색한다는 영아가 **호기심**을 느끼는 공간과 모양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영아의 공간 탐색은 공이 가는 방향과 거리를 바라보기, 미끄럼틀 오르내리기, 경계 안팎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또한 영아의 모양 탐색은 사물을 입으로 빨아 보거나 눈으로 살펴보기, 모서리의 각진 부분이나 곡선의 부드러운 부분을 손으로 만져 보기, 그리고 사물을 쌓거나 끼우거나 굴러 보기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는 영아가 자신과 주변의 사람 및 사물 간의 위치, 방향, 거리, 높낮이 등과 사물의 기본적인 생김새와 특성에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궁금한 점을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가 유아차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발견하고 위로 손을 뻗어 나뭇잎을 잡으려 하지만 닿지 않는다. 영아는 손을 조금 더 멀리 뻗어 나뭇잎을 잡아 보려 한다.
- 영아는 상자 앞에 앉아 상자 안을 들여다본다. 영아는 상자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가 멈춰 안쪽을 살펴보고, 다시 상자 밖으로 기어나와 바깥을 살펴보기를 반복한다.
- 영아는 상자 안에 들어가 몸을 움직이며 상자의 벽과 바닥을 느껴 본다. 상자가 만들어 낸 공간의 모양과 크기를 탐색하고, 상자 안에 몸을 숨겼다가 밖으로 내밀며 안과 밖을 경험한다.



- 영아가 팔을 벌려 균형을 잡으며 놀이 매트 위를 걷는다. 영아는 길의 모양과 높이를 눈으로 살피며 한 걸음씩 내딛고, 자신이 있는 곳과 교사가 있는 곳을 번갈아 살피며 움직임과 위치의 관계를 경험한다.



- 영아는 몸을 움직여 오르기 구조물을 천천히 기어 올라가며, 자신의 위치가 변할 때 달라지는 시야와 공간의 크기와 높낮이를 경험한다.

- 영아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공간의 안과 밖을 경험한다. 문턱을 넘으면서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변화를 느끼고, 이로써 공간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알아 간다. 문을 닫는 순간, 영아는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특정 공간을 자신만의 영역으로 받아들인다.

- 영아는 교사가 들고 있는 둥근 링을 들여다보다가 가운데 구멍을 만져 본다. 이어서 링을 가져가 손에 들고 바닥을 두드려 보다가 입으로 빨아 본다.



- 영아들이 탬버린의 손잡이를 살펴보다가 구멍에 팔을 끼워 본다.

- 영아는 모양 틀을 마른 모래 위에 놓은 뒤, 손으로 모래를 모아 모양 틀 위에 올려 본다. 모양 틀이 모래로 가득 찼을 때, 이를 들어 올려 모래 위에 남겨진 모양을 살펴본다.



영아의 배움 지원

- 다양한 위치에서 공간을 탐색하고자 하는 영아를 돕기 위해 높낮이가 다양한 매트나 쿠션 등을 제공한다.
- 영아가 공간과 도형을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멀리 있는 사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먼저 볼 수 있게 가까이 가져다주거나, 공간을 탐색하는 영아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 준다.
- 교사는 영아의 눈높이에서 공간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살펴보고, 영아가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탐색하는 것을 격려한다.
- 영아가 일상에서 공간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놀잇감을 바꾸니 안에 정리하면서 공간의 경계를 이해하도록 돕거나, 또래가 놀이하거나 활동하는 공간을 방해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여 타인의 공간을 존중하는 경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교사는 영아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와 같은 기본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손 모양, 발 모양, 나뭇잎 모양 등 자신의 신체나 자주 접하는 사물의 모양에도 호기심을 느끼고 탐색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영아가 관심을 가지는 신체나 사물의 모양을 자연스럽게 탐색할 수 있게 언어로 묘사한다.

0~1세

규칙성을 경험한다.

규칙성은 영아의 주변 환경과 자연, 생활에서 사물이나 사건 또는 자연의 변화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순서나 흐름**을 의미한다. 누르면 소리가 나는 놀잇감, 리듬감 있고 반복되는 소리, 말, 노래와 동작, 까꿍 놀이와 같은 교사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 식사, 낮잠, 씻기와 같이 반복되는 일과, 낮과 밤같이 반복되는 자연현상 등이 포함된다.

경험한다는 영아가 생활하면서 일정한 순서와 흐름이 반복되는 상황을 시각, 청각과 같은 감각이나 몸의 움직임으로 **느끼고 자연스럽게 알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아는 공을 던지고 주워 오는 놀이, 숨기고 찾는 놀이 등을 하면서 일정하게 반복되는 순서를 발견하며, 일관성 있는 일과 흐름에 따라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을 스스로 하기도 한다.

규칙성을 경험한다는 영아가 생활하면서 일정하게 반복되는 순서나 흐름을 감각과 몸의 움직임으로 느끼고, 반복적인 규칙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알아 가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교사와 함께 “ 짹짹 짹짹, 도리도리 침침 ” 놀이를 하며 손뼉을 치고, 고개를 흔들고, 손을 펴고 오므리는 교사의 동작을 따라 한다. 놀이가 반복되면서 영아는 손뼉을 치거나 도리도리 동작을 스스로 시도하며 즐거워한다.

- 영아는 교사가 작은북을 “ 둥둥, 땡땡 ” 리듬에 맞춰 두드리 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듣는다. 교사가 북소리를 반복하자, 영아는 손으로 북을 만져 보며 소리를 따라 내려고 시도 한다. 교사가 “ 둥둥, 땡땡 ” 리듬을 다시 두드리자 영아는 손을 흔들거나 몸을 움직이며 북소리의 반복되는 리듬에 반응한다.
- 영아는 빨간 불빛과 파란 불빛이 번갈아 깜빡이는 놀잇감 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 불빛이 일정한 순서로 반복되자 영 아는 몸을 움직이거나 손을 뻗어 놀잇감을 만져 보려 한다.



- 교사가 매일 등원 시간에 영아를 향해 손을 흔들며 “안녕!”이라고 인사하면, 영아도 손을 흔들어 응답하며 규칙적으로 상호작용한다.
- 영아는 등원 후 간식을 먹고 놀이를 하며, 점심을 먹은 뒤 낮잠을 자고, 낮잠에서 깨어나 간식을 먹은 후 하원을 하는 반복되는 일과를 경험한다.
- 매일 같은 시간에 교사가 “이제 낮잠 시간이에요.”라고 말하며 조용한 음악을 틀고 영아를 다독여 주자, 영아는 이불 위에 눕고 눈을 감는다. 잠에서 깨어난 뒤에는 교사가 “낮잠을 잘 잤네, 이제 간식을 먹자.”라고 이야기해 준다. 영아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낮잠 시간의 흐름을 경험한다.



- 영아들은 책이 일렬로 배열된 공간에서 순서대로 기어가는 놀이를 하며, 앞서 이동하는 또래를 따라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반복되는 놀이의 흐름을 경험한다. 놀이가 이어지면서 영아들은 반복적인 움직임 속에서 놀이의 규칙을 자연스럽게 이해한다.



- 교사가 “하나, 둘, 셋!”이라고 외친 뒤 영아에게 공을 굴리면, 영아는 자신에게 도착하는 공을 다시 교사에게 굴리는 행동을 반복한다.
- 교사가 케이크 모형에 초를 꽂자, 영아는 관심을 보이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다. 노래가 끝나고 교사가 촛불을 끄자, 영아는 박수를 치며 웃는다. 놀이가 반복되면서 영아는 생일 축하 놀이의 순서를 이해하고, 초를 꽂기, 노래 부르기, 촛불 끄기, 박수 치기 등의 행동을 기대한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식사, 낮잠, 놀이, 기저귀 갈기 등의 일과를 일관된 순서와 방식으로 운영하여, 영아가 규칙적인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영아가 밥을 먹은 후 양치를 하거나, 손을 씻은 뒤 수건으로 닦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교사는 손뼉 치기, 발 구르기, 몸 흔들기 등 일정한 리듬이 있는 동작을 놀이와 연결하여, 영아가 움직임 속에서 규칙성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하고 점프를 하거나 “뽀뽀~” 하고 손뼉 치기를 반복할 수 있다.
- 영아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규칙성 있는 청각적 자극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낮잠 시간 전이나 정리 시간마다 동일한 음악을 들려주거나 북이나 탬버린 등을 일정한 리듬에 맞춰 함께 두드려 볼 수 있다.
- 교사는 특정한 상황에서 동일한 언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영아가 언어를 통해 규칙성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외출할 때마다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나갈 거야.”라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세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규칙성은 영아의 주변 환경과 자연, 일상에서 사물이나 사건 또는 자연의 변화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순서나 흐름**을 의미한다. **색깔과 모양**이 반복되는 사물이나 주변 환경, 리듬감 있고 반복되는 **소리, 말, 노래와 동작**, 교사와 주고받는 반복적인 **상호작용**, 식사, 낮잠, 씻기와 같이 매일 반복되는 **일과**, 낮과 밤, 계절과 같이 반복되는 **자연현상** 등이 포함된다.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주변 환경과 자연, 일상에서 사물이나 사건 또는 자연의 변화가 일정하게 반복되는 순서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고 흥미를 느끼며 더 알아 가고자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규칙성에 대한 영아의 관심은 블록, 자동차 등 놀잇감의 색이나 모양이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유심히 보거나 배열을 시도하는 모습, 놀잇감 정리 후 바깥 놀이 나갈 준비를 스스로 하는 모습, 점심 식사 후 양치질을 준비하는 모습 등으로 나타난다.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주변 환경과 자연, 일상에서 사물이나 사건 또는 자연의 변화가 일정한 순서로 반복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흥미를 느끼며, 다음에 일어날 일을 더 알아보려고 시도**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창가에 나란히 배열된 공룡 모형 앞에 먹이를 하나씩 놓는 과정을 반복하며 공룡과 먹이 사이에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어 본다.



- 영아는 해양생물 모형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나란히 배열하면서 점차 일정한 순서나 규칙을 만들어 배열해 본다.



- 영아가 자동차 놀잇감을 노란색과 흰색이 번갈아 나오도록 배열하고 나서 유심히 바라본다.



- 영아가 색깔이 일정한 순서로 배열된 타일 바닥을 유심히 보다가, 검은색 타일 위에서는 점프하고 흰색 타일은 밟지 않는다는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시도해 본다.



- 영아가 동요 '작은 별'을 부를 때 '반짝반짝' 구절이 나올 때마다 손을 흔들어 본다.
- 매일 읽어 주는 그림책에서 강아지 그림이 나오면 교사는 "강아지가 뭐라고 할까?"라고 묻고 영아는 "멍멍!" 소리를 내며 대답하는 행동을 반복한다.
- 저녁이 되어 해가 지기 시작하자 영아는 스스로 이불을 찾거나, 바닥이나 소파에 기대어 눕는 행동을 하며 잠잘 준비를 한다.

- 영아는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 신호등을 기다렸다가 초록 신호등으로 바뀌었을 때 길을 건너는 경험을 통해 신호등의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된다. 영아는 점차 빨간불과 초록불이 순서대로 켜진다는 규칙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며, 초록불이 켜지면 길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배워 간다.



영아의 배움 지원

- 영아가 생활하면서 시각적, 청각적, 동작적 규칙성을 경험하고 있을 때 언어로 묘사해 준다. 예를 들어, “하나, 둘, 하나, 둘! 발을 번갈아 구르고 있구나.”, “빨강, 파랑, 빨강, 파랑! 블록을 순서대로 놓고 있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다.
- 영아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리듬이나 움직임에 따라 하여 함께 즐거움을 공유함으로써 규칙성에 대한 영아의 관심을 지지한다.
- 교사는 일과를 일관된 순서로 운영하여 영아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익히고, 자연스럽게 올바른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등원 시 교사와 또래에게 인사하기, 가방과 옷 정리하기, 식사 전이나 바깥 놀이 후 손 씻기와 같은 활동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할 수 있다.
- 교사는 영아가 생활 속 규칙을 스스로 예측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식사 후 “밥을 먹고 나서 무엇을 할까?”라고 질문하여 영아가 일상에서 일정하게 반복되는 상황을 떠올려 보게 한다.
- 영아가 계절의 변화와 영아의 생활 속 변화를 연결해 보면서 일정하게 반복되는 자연현상에 관심을 가지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봄이 되어 날씨가 따뜻해져 얇은 옷을 입고 나가면서 “이제 두꺼운 겨울옷 대신 얇은 봄옷을 입었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2세

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사물은 영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자주 접하는 물건**을 의미한다. 즉 모빌, 공, 블록, 인형, 상자와 같은 **놀잇감과 놀이 자료**, 미끄럼틀, 그네, 시소와 같은 **놀이기구**, 그림책, 잡지, 광고지와 같은 **인쇄물**, 과일, 빵, 채소와 같은 **음식**, 젓병, 수저, 컵, 칫솔, 식판과 같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 도구**, 속옷, 양말, 신발과 같은 **의류**, 의자, 책상, 소파와 같은 **가구** 등이 포함된다.

같고 다름은 영아가 사물을 나에게 속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것과 같은 **소속**,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과 같은 **선호**, 색깔, 크기, 모양과 같은 **속성**, **종류**, **용도** 등에서 알아차린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의미한다.

구분한다는 영아가 사물의 소속, 선호, 색깔, 크기, 모양, 종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알아차려 **같은 것끼리 또는 다른 것끼리** 놓아 보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는 영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자주 접하는 물건을 자신이 정한 기준으로 비슷한 것끼리 모으거나 짝 지어 보고, 다른 것끼리는 나누거나 따로 놓아 보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가 상자에 좋아하는 놀잇감을 모아 보며,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놀잇감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본다.



- 영아가 신발장에 자신의 얼굴 사진이 붙은 자리에 신발을 정리하고, 반에 들어와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면서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해 본다.

- 산책을 나간 영아들이 모양과 색깔이 다양한 돌 중에서 하얀색 돌멩이만 골라 모아 본다.



- 영아는 도래와 함께 블록을 색깔별로 나누어 배열하는 놀이를 하려고 주황색 블록과 다른 색 블록을 구분하고, 주황색 블록을 한곳에 모아 정리한다.



- 영아가 동물 모형 비즈와 색 돌멩이가 함께 담긴 통에서 색 돌멩이를 골라 한쪽에 모으고, 이후 동물 모형 비즈도 차례대로 모으면서 동물 모형 비즈와 색 돌멩이를 구분해 본다.



- 영아는 막대 블록의 길이를 비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막대 블록을 길이에 따라 짧은 것과 긴 것으로 구분하여 과자 봉지 안에 넣어 본다.



영아의 배움 지원

- 교사는 영아가 “똑같아.”라는 언어 표현을 하며 똑같은 것을 찾아와 보여 주거나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사물을 분류하였을 때 격려해 주고, 영아가 기준을 바꾸며 새로운 방식으로 분류를 시도할 때, 이를 따라가며 “빨간색 놀잇감을 여기에 두는 거네.”와 같이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지지해 주도록 한다.
- 영아가 자신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는 영아가 자신의 물건을 찾고 정리할 수 있도록 영아의 물건에 이름표나 사진을 붙여 자신의 물건과 또래의 물건을 구별하여 정리할 기회를 제공한다.
- 교사는 영아가 교구장이나 놀잇감 바구니에 같은 종류의 놀잇감을 넣어 보며 자연스럽게 놀잇감을 구분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때 교사가 먼저 기준을 정해 주기보다는 영아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구분하는 과정을 존중한다.
- 영아가 식사 후 스스로 숟가락과 포크를 한곳에 모으거나, 컵을 따로 정리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식사 도구를 종류에 따라 구분해 보도록 지원한다.
- 영아가 종류가 같은 사물이라도 크기, 색깔, 모양 등의 속성이 다를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공을 큰 공과 작은 공으로 나누어 보거나 블록을 동그란 블록과 네모난 블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생활 도구는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수저, 포크, 그릇, 컵 등 식사와 관련된 도구, 칫솔, 양치 컵 등 양치와 관련된 도구, 스펀지, 붓 등의 미술 도구, 그 외에 가위, 빗, 솔, 모래놀이 삽, 갈퀴, 물뿌리개, 청소 도구 등 영아가 실내외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가 포함된다.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다양한 도구의 모양이나 쓰임새에 **주의를 기울이고 흥미를 느끼며 더 알아 가고자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아가 자신의 방식으로 생활 도구를 사용하려고 시도해 보고, 성인이 사용하는 모습을 모방해 보기도 하면서 점차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 데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시도하거나 성인이 사용하는 모습을 모방하며 점차 생활 도구를 적절히 사용해 보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바깥 놀이터에서 큰 붓에 물감을 묻혀 그림을 그려 보며, 크레파스나 색연필처럼 붓으로도 원하는 대로 흔적을 남겨 본다.



- 천장에 달린 천 속의 하얀 솜 방울을 만져 보려고 폴짝 폴짝 뛰던 영아는 긴 막대를 가져와 솜 방울을 건드려 보며 긴 막대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경험한다.

- 영아는 팝 튜브를 빨대처럼 활용해 컵에 있는 음료수를 마시는 흥내를 내며 빨대의 쓰임새와 사용 방법을 놀이 속에서 경험한다.



- 영아는 바가지 손잡이를 잡고 물을 퍼서 대야에 담아 보며 바가지를 유용하게 사용해 본다.



- 영아는 신발에 달린 작은 고리에 신발의 밴드 부분을 끼우려고 시도한다.



- 영아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모래받이와 채를 사용해 보면서 고운 모래는 채에 있는 구멍을 통과하고, 돌멩이와 나뭇잎 등 입자가 큰 물체만 채 위에 남는 것을 경험한다. 또한 냄비, 프라이팬, 국자 등 다양한 주방 도구와 모래성 쌓기용 틀을 사용해 모래놀이를 하면서 담기, 운반하기, 똑같은 벽돌 모양 만들어 내기 등 각종 도구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본다.



영아의 배움 지원

- 영아의 삶과 밀접한 도구를 기관에 배치하여, 영아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보도록 지원한다.
- 교사는 영아가 생활 도구의 정해진 용도나 방법을 배우기도 하지만 새로운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어떠한 사물을 새롭게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음을 이해하며 영아의 새로운 시각과 시도를 존중한다. 그리고 영아가 사용하기에 안전한지 기본적으로 확인한다.
- 영아가 발달 상황에 맞는 생활 도구를 사용해 보는 것은 신체·운동 능력의 발달과 다양한 생활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됨을 보호자에게 알린다. 또한 영아가 특히 관심을 보이는 생활 도구를 보호자와 공유하여 가정에서도 생활 도구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도록 한다.
-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체의 기능과 유용함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친숙한 물체를 탐색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교사는 이를 이해하고 영아가 생활 도구의 기능과 유용함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0~2세 공통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의 동식물은 영아의 가정, 기관, 등·하원길, 놀이터, 공원 등과 같이 영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과 식물을 의미한다. 영아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반려동물, 작은 곤충, 새, 수족관 속의 물고기, 풀, 꽃, 나무, 새싹, 나뭇잎, 열매, 화분에 있는 화초 등을 포함한다.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일상에서 만나는 동식물에 **주의를 기울이고 흥미를 나타내며**, 동식물의 모양, 소리, 움직임이나 변화 등을 **더 알아 가고자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유심히 바라보기, 만져 보기, 동식물의 움직임이나 변화 등을 몸짓이나 소리나 말로 표현하기, 교사나 또래에게 함께 바라보기를 요청하기, 교사나 또래에게 질문하기, 자신이 아는 것 말하기, 놀잇감으로 사용하기 등으로 나타난다.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는 영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쉽게 만나는 동물과 식물의 모양, 소리, 움직임, 변화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흥미를 나타내며 이를 더 알아 가고자 시도**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텃밭에서 교사가 깻잎을 만지고 냄새를 맡자 영아도 따라서 깻잎 냄새를 맡는다. 그러다가 옆에 나온 새싹을 발견하고 웅얼이를 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새싹의 냄새도 맡아 본다.
- 영아는 교사를 따라서 민들레를 “후~” 하고 불어 본 뒤, 날아가는 흙씨를 보며 “우와.”라고 하고, 다른 민들레를 더 찾아본다.

- 영아는 산책하다가 수국을 발견하고 손을 뻗어 만져 본다.
- 영아는 낙엽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만져 보고 입에 넣어 맛을 보다 이내 뱉는다.



- 영아는 시금치 이파리의 모양을 보면서 손으로 이파리의 촉감을 느낀다.



- 영아는 수족관 수초 속 물고기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며 “물고기야.”라고 말한다.



- 영아는 떨어진 동백꽃을 살펴보고 꽃잎의 모양과 촉감을 탐색하고, 텃밭에 떨어진 배춧잎을 들고 흥미롭게 바라본다.



- 영아는 바깥 놀이터의 물통 속에서 거미를 발견하고 거미를 관찰한다. 또래가 다가오자 큰 목소리로 “거미야! 여기 거미 있어!”라고 말한 후 또래와 함께 거미를 계속 지켜본다.



- 거미를 보고 실내에 들어온 영아들은 책에 나온 거미를 관찰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 영아들은 산책 중 개미가 먹이를 옮기는 모습을 발견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관찰한다. 영아는 또래에게 “거미 어디 가?” 하고 묻는다.



- 산책 중 영아가 방아깨비를 발견하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아 본다.

영아의 배움 지원

- 영아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주변 동식물에 관심을 가질 있도록 바깥 놀이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다.
- 반에 화분, 어항, 산책에서 주워 온 열매, 꽃잎, 나무토막, 관련 책 등을 비치하여, 실내에서도 동식물에 관심을 기울이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사가 모범을 보인다.
- 교사는 개미, 나비, 개, 고양이 같은 동물의 모습이나 움직임을 표현하는 영아의 몸짓, 표정, 말소리 등에 미소, 끄덕임, 따뜻한 눈빛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 감탄사 등으로 호응하여 관심과 즐거움을 공유한다.
- 영아의 동물과 식물에 대한 경험과 관련하여 그림책이나 사진 같은 자료를 준비해 영아와 함께 본다.
- 영아가 동식물에 관심을 가질 때 개념 지식을 가르치려 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영아 스스로 동식물을 자유롭게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

0~1세

날씨의 변화를 느낀다.

날씨는 하루 동안에 나타나는 **햇빛, 바람, 구름, 비, 눈** 등과 같은 **자연현상**이며, 옷차림과 바깥 놀이, 반의 모습과 창밖 풍경 등 영아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

변화를 느낀다는 날이 흐리다가 개고, 바람이 약하게 불다가 세게 불고, 비나 눈이 오다가 그치는 등 **햇빛, 바람, 구름, 비, 눈 등의 상태가 달라짐을 영아가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는 이러한 변화를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 감각으로 알아차리고, 땀을 흘리는 것과 같은 신체적 반응, 옷차림이나 일과 흐름의 변화로 알아차리기도 한다.

날씨의 변화를 느낀다는 영아가 등·하원길, 반, 바깥 놀이터, 산책길 등에서 날씨의 변화에 따른 풍경 변화, 땀을 흘리는 것과 같은 신체적 반응, 모자나 우산을 쓰는 것과 같은 옷차림의 변화 등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교사가 창문을 열자, 영아는 창문 앞에 서서 실내로 들어오는 바람을 쐬면서 상쾌함을 느낀다. 창가의 모빌이 바람에 흔들리고 창밖으로 나뭇잎과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풍경을 바라본다.
- 영아는 해가 드는 창가로 가서 부드러운 햇볕을 쬐며 따뜻함을 느낀다.



- 보슬비가 내리는 날, 영아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 우비를 입고 밖에 나간다. 영아는 손과 얼굴에 미세한 빗방울이 촉촉하게 닿는 것을 알아차리고, 비가 올 때 나는 냄새를 맡는다.



- 영아는 바깥 놀이터에 걸려 있는 보자기가 펄럭이고, 풍선이 날아가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커튼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바람이 부는 것을 안다.



- 영아는 바닥에 생긴 그림자를 관심 있게 바라보다가, 구름이 해를 가림에 따라 그림자가 흐려지다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는 것에 놀라며 손으로 가리킨다. “그림자가 생겼네.,” “어, 없어졌네? 해님이 구름 뒤에 숨었나 봐.”라는 교사의 말을 듣고, 그림자의 변화를 지켜본다.



영아의 배움 지원

- 등원 시 영아의 옷차림을 보며 날씨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니 우산을 쓰고 왔구나. 장화도 신었네! 오늘은 바닥이 젖어 있을 거야.”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 교사는 ‘살랑살랑’, ‘펄럭펄럭’, ‘쌩쌩’, ‘쨍쨍’과 같이 날씨와 관련된 의성어, 의태어 등을 영아에게 들려 준다.
- 영아가 맑은 날뿐만 아니라 흐린 날, 이슬비 내리는 날, 눈 내리는 날, 바람 부는 날을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창밖 보기, 창문 열기를 자주 한다.
- 오전, 오후, 해 지는 저녁 등 하루 중 다양한 시간대에 실외 활동을 해 보며 영아가 시간대에 따른 날씨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2세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

날씨는 하루 동안에 나타나는 **햇빛, 바람, 구름, 비, 눈** 등과 같은 **자연현상**이며, 영아의 옷차림과 바깥 놀이, 반의 모습과 창밖 풍경 등 영아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

계절은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기온 변화에 따라 **일 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아의 놀이, 옷차림, 먹거리, 주변의 풍경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자연현상**이다.

변화를 느낀다는 날이 흐리다가 개고, 바람이 약하게 불다가 세게 불고, 비나 눈이 오다가 그치는 등 **햇빛, 바람, 구름, 비, 눈 등의 상태가 달라짐을 영아가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한 계절이 가고 다음 계절이 오면서** 사람들의 옷차림이 달라지고 나무에 새싹이 나고 나뭇잎의 색이 변하며, 물놀이, 눈싸움 등 할 수 있는 놀이가 달라짐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는 이러한 변화를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의 감각으로 알아차리고, 땀을 흘리는 것과 같은 신체적 반응, 옷차림, 일과 흐름 및 놀이의 변화로 알아차리기도 한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는 영아가 등·하원길, 반, 바깥 놀이터, 산책길 등에서 날씨와 계절의 변화에 따른 풍경 변화, 땀을 흘리거나 추워지는 신체적 반응, 모자나 장갑, 외투, 털신을 착용하는 것과 같은 옷차림의 변화, 놀이의 변화 등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내용이다.

영아의 경험

- 영아는 매일 나가는 산책길의 모습이 개나리꽃과 벚꽃이 활짝 피어 달라졌음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겨울 외투가 점점 덥게 느껴짐을 알아차린다. 교사가 말해 주는 봄에 피는 꽃 이름을 들으며, 봄에 날씨가 따뜻해진 것과 꽃이 피는 것과의 관련성에 서서히 관심을 가진다.



- 여름이 되면서 영아는 따가운 햇살을 느끼고 얇은 반팔 옷을 입게 된다. 놀이하면서 땀이 흐르고 옷이 젖으며 목이 마른 것을 알아차리고, 그늘에서는 땀이 식고 바람에 몸이 시원해짐을 느낀다. 물놀이를 하면서 더위를 식힌다.

- 가을날 영아는 땅에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수북이 쌓인 마른 낙엽을 발로 밟아 보고, 긴 나뭇가지에 낙엽을 꽂아 보면서 가을 풍경을 경험한다.



- 영아는 두꺼운 외투와 털장갑을 착용하고 옷의 형태, 두께와 감촉 등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 걷다가 예전에는 물이 흐르던 하천이 하얗게 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운 겨울에는 물이 언다는 것을 알아 간다.



- 눈이 내린 날, 영아는 바깥 놀이터에 나와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한 것을 보고, 눈을 밟고 손으로 뭉치고 눈 위에 썰매를 끌면서 겨울에만 할 수 있는 놀이를 한다.

영아의 배움 지원

- 영아가 날씨와 계절에 따른 환경 변화를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풀, 꽃, 나무, 작은 곤충 등의 동식물을 발견할 수 있는 화단이 있는 곳을 바깥 놀이 장소로 택한다.
-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영아들이 밖에서 햇빛, 바람, 눈 등을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일과 중에 산책이나 바깥 놀이를 한다.
- 영아가 날씨와 계절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을 때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
- 계절에 맞는 옷차림하기, 그늘에서 휴식하기, 모자 쓰기, 자외선차단제 바르기, 물 마시기 등 계절에 따른 적절한 생활 습관에 대해 영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날씨와 계절에 대한 관심을 책이나 동요 등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해 주어 관련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제4부

영아 경험의 통합적 이해

0~2세 보육과정은 5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내용은 0~1세는 40개, 2세는 42개로 되어 있다.
이는 0~1세와 2세 영아가 놀이와 일상생활에서 경험해야 하고 배우는 보육 내용이다.
영아는 보육 내용을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배운다.
영아는 동일한 놀이를 할 때에도 자신만의 경험으로 배움을 만들어 간다.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보육 내용을 0~1세 영아는 40개, 2세 영아는 42개를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경험하며 통합적으로 배우게 된다.
영아는 1년 동안 모든 보육 내용을 점진적으로 경험하며 통합적으로 배운다.



1. 0~1세 영아 경험의 통합적 이해

2. 2세 영아 경험의 통합적 이해



1. 0~1세 영아 경험의 통합적 이해



0세 연수와 민우의 간식 시간

연수와 민우는 의자에 앉아 간식을 먹고 있다. 교사는 연수와 민우와 번갈아 눈을 맞추며, 두 영아가 간식을 맛있고 즐겁게 먹도록 돕는다.



민우가 연수의 간식 그릇을 가리키자,
교사는 “친구거. 친구거.”라고 말해 준다.



민우는 다시 자신의 간식 그릇을 가리키며
“우~우.” 하고 소리를 내어 자신의 간식이라는
의사 표현을 한다.



손에 간식을 쥐고 먹고 있는 연수에게
교사는 웃으며
“연수야, 맛있어? 남남, 많이 먹어.”라고 말한 뒤,
“아~” 하며 입을 벌려 보인다.



연수는 교사의 행동에 호응하여,
자신이 먹던 간식을 교사에게 먹으라고 손을 내민다.

교사가 눈을 맞추며 웃고 “고마워.”라고 하자,
연수는 양발을 앞뒤로 흔들며 즐거워하고,
간식을 다시 입으로 가져가 먹는다.



두 영아는 간식을 먹으며 귀에 들리는 동요에 맞춰 두 발을 앞뒤로 흔들며 즐겁게 간식을 먹는다.
민우가 동요를 듣고 손목을 앞뒤로 돌리며 흔들기 시작하자, 교사는 이를 따라 하며 ‘작은 별’ 노래를 부른다. 이를 지켜보던 연수도 손을 들어 민우의 동작을 따라 한다.

연수와 민우는 교사와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편안하게 간식을 먹고 있다. 간식을 먹는 동안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

- 연수의 경험: 연수는 자신의 그릇에서 손에 쥐고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스스로 먹으며 교사와 상호 작용한다. 교사가 “아” 하고 달라는 행동을 하자 기꺼이 호응하며 자신의 간식을 주려 하고, 교사의 격려를 받아들여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는다. 또한 민우의 ‘반짝반짝’ 손 동작을 따라 하며 함께 즐거워한다.
- 민우의 경험: 민우는 연수의 간식 그릇과 자신의 간식 그릇을 구별하며 간식을 먹는다. 또한 주변에서 들려오는 노래를 들으며 ‘반짝반짝’ 손동작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낸다.
- 교사의 지원: 교사는 연수와 민우와 번갈아 눈을 맞추고 적절한 언어로 두 영아가 간식을 즐겁게 먹도록 격려한다. 또한 연수와 민우의 주도적인 의사 표현에 긍정적으로 호응하며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

■ 5개 영역으로 통합적 배움 읽기

0세 연수와 민우는 간식으로 나온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만지거나 냄새를 맡고 입으로 가져가서 먹으며 자신과 친숙한 음식을 감각으로 탐색하고(자연탐구), 자신의 손과 코, 입으로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며 편안한 간식 시간을 가진다(신체운동·건강). 연수와 민우는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말놀이에 재미를 느끼기도 하고, 다양한 표정과 몸짓과 말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다(의사소통). 또한 교사의 격려를 수용하여 양발을 흔들거나 손뼉을 치며 즐거운 감정을 표현한다(사회관계). 연수와 민우는 서로의 행동과 표정 등을 바라보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표현을 하는 등 또래와 더불어 지내는 즐거움을 경험한다(사회관계).

연수는 교사의 표정과 행동을 보며 다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호응하여 교사에게 기꺼이 자기 간식을 먹으라고 내어 주며 친숙한 사람과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있다(의사소통/사회관계). 또한 민우가 손을 앞뒤로 돌리며 ‘반짝반짝’을 표현하는 행동을 보고 모방하기를 즐긴다(예술경험).

민우는 또래의 간식 그릇과 자기 간식 그릇을 구별하며 자신의 고유함과 자신에게 친숙한 것을 알아 가고 있다(사회관계). 간식 시간에 들려오는 노래에 관심을 가지고, 리듬에 맞추어 자신의 손목을 앞뒤로 돌리고 흔들며 다양한 움직임으로 자신의 기분을 표현한다(신체운동·건강, 예술경험)

※ 5개 영역 40개 내용 중 놀이 맥락과 연결되는 두드러진 내용을 배움의 구체적 내용으로 기술하고 영역은 괄호 안에 표시함.

1세 민주의 동화책이 궁금한 0세 희수의 놀이 이야기

▣ 0세 희수의 경험

희수는 아기 의자에 앉은 채 옆에서 소리 나는 동물 그림책을 펼쳐 보고 있는 민주를 쳐다보고 있다. 희수는 아직 걷지도,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민주의 얼굴과 그림책을 번갈아 보며 눈동자를 초점화하여 움직이고,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며 섬세하게 고개와 얼굴 근육을 움직이고 있다.



소리 나는
동물 그림책을 보고 있는
민주와 재현이(1세)

민주와 재현이를
바라보는 희수(0세)

따로-같이 놀이하는
희수, 민주, 재현

▣ 1세 민주의 경험

민주는 간식을 먹은 후 자신이 좋아하는 소리 나는 동물 그림책을 다시 펼쳐 든다. 민주는 그림책의 단추를 이것저것 눌러 가면서 사람의 목소리와 음악이 나오는 그림책을 즐겁게 보고 있다. 그런데 앞에 앉은 희수가 자신을 자주 쳐다보는 느낌이 든다. 그림책을 보면서 희수의 시선이 머리 위로 느껴져 고개를 들어 쳐다보자 희수가 자신과 그림책을 번갈아 보며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짓고 있다.



그림책을 펼치다가
희수의 시선을 느낀 민주

“희수도 볼래?”

“으, 으!”

■ 희수와 민주의 만남과 경험

민주는 자기를 쳐다보는 희수가 그림책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희수도 볼래?” 하면서 희수의 의견을 묻는다. 말을 알아들었는지 희수가 웅얼이로 “으, 으!”라고 말소리를 낸다. 0세 영아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음성으로 대답하며, 민주와 희수는 서로에게 반응하고 그림책을 매개로 서로 더 가까이 만나고 있다.

■ 희수와 민주가 서로 경험하며 배우는 과정 따라가기



그림책을 거꾸로 든 상태로
초록색 단추를 눌러
책에서 나는 말소리를
들려주며 재미있게
그림책을 읽어 주는 민주

거꾸로 든 그림책을
들여다보려고 앉은 의자에서
몸을 최대한 기울여
그림책 가까이로 다가가는 희수

- 희수와 민주는 서로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관계를 맺으며 배우고 있다. 희수가 소리 나는 동물 그림책을 같이 보고 싶다는 표정과 시선을 주자, 민주는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희수가 보기 편하도록 그림책을 반대쪽으로 펼친다. 이후 단추를 누르기 편한 방향으로 책을 거꾸로 들게 된다. 희수는 민주가 자신을 향해 그림책 전면을 펼치며 보여 주자 눈이 더 커지고, 더 가까이 쳐다보려고 자신의 몸을 그림책 쪽으로 최대한 기울여 본다. 몸을 기울이자 그림책이 더 가깝게 보인다. 민주가 단추를 누르자,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것처럼 말소리가 나오고, 노래도 흘러나온다. 희수는 흥미로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한다. 희수와 민주는 서로에게 화답하고 배려하며 함께 배우고 있다.

▣ 5개 영역으로 통합적 배움 읽기

0세 희수는 아기 의자에 앉아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주변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바라보는 등 자신의 신체로 주변을 탐색하고 있다(신체운동·건강). 민주가 들려주는 소리 나는 그림책에서 나오는 말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민주가 물어보는 “희수도 볼래?”라는 물음에 응알이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소리를 내며(의사소통), 그림책을 보고 싶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한다(사회관계). 두 영아는 단추를 누르면 소리가 나고, 다른 색깔 단추는 다른 소리가 나는 것을 알아 가며 주변의 궁금한 물체의 특성을 탐색하고 있다(자연탐구). 민주와 희수는 알록달록 동그란 모양의 단추를 누르면 음악이 나오는 그림책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끄는 색깔과 모양, 리듬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예술경험). 민주는 반에서 다른 사람이자 동생인 희수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편안하게 지내는 방법을 알아 가고 있다(사회관계).

※ 5개 영역 40개 내용 중 놀이 맥락과 연결되는 두드러진 내용을 배움의 구체적 내용으로 기술하고 영역은 괄호 안에 표시함.

▣ 영아의 경험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민주 는 누군가 자신을 뚫어저려 쳐다보는 시선을 민감하게 느끼는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민주 는 이러한 ‘느끼는 시선’에 응답하며 단추를 더 잘 조작할 수 있도록 그림책을 아예 거꾸로 들어 그림책보다는 희수와 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림책을 향해 ‘기울어진 희수의 몸’이다. 희수는 자신이 기울일 수 있는 최대한으로 신체를 기울이며 민주 의 행위에 큰 화답을 보이고 있다. 민주 는 희수 의 기울여 오는 몸 에 응답하여 다른 사람과 서로 돌보고 공감하는 즐거움을 배워 가고 있다. 그림책은 주요한 놀이 자료 이자 두 영아와 그림책이 서로 함께 얹히며 배우도록 하는 주요한 매체이다.

이러한 모든 배움을 읽어봄으로써 희수와 민주 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고유한 배움의 특성을 이해 할 수 있다.

2. 2세 영아 경험의 통합적 이해



나도 앉아 볼래!

변기에 앉아 소변을 가리는 토레를 보고, 은아도 변기에 앉아 보고 싶어 한다.

은아: 나도! 나도!



변기 앞에 발판을 놓아 주니,
바지를 입은 채로 변기에 앉는다.
놀이하는 토레를
바라보기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색 돋보기를
발에 대 보며
계속해서 변기에 앉아 있다.

▣ 5개 영역으로 통합적 배움 읽기

은아는 변기에 앉아 소변을 가리는 토레를 보며, 자신도 변기에 앉아 보고 싶어 교사에게 자신의 요구를 “나도! 나도!”라고 말한다(의사소통). 교사는 은아가 변기에 앉을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

주고, 은아는 옷을 입은 채로 변기에 앉는다. 은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변기와 친숙해지고 있다(사회관계). 은아는 변기에 앉아 놀이하는 토레를 바라보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색 돌보기를 발에 대어 보기도 하며 변기에 앉아 있는 것이 편안해지고 있다. 은아는 자신의 속도로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배변 습관을 만들어 가고 있다(신체운동·건강).

※ 5개 영역 42개 내용 중 놀이 맥락과 연결되는 두드러진 내용을 배움의 구체적 내용으로 기술하고 영역은 괄호 안에 표시함.

비를 맞으며 놀이하는 즐거움

비 오는 날이지만 지호는 창 밖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밖으로 나가자고 한다. 지호는 우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고,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떨어지는 비를 느끼고 있다. 모든 영아가 신발을 벗고 걸어 다닌다. 영아의 상체를 덮는 우비는 영아가 몸을 크게 움직여야 걸을 수 있게 한다. 정우는 팔을 휘저으며 발을 높이 올리고 보폭을 넓혀 걷기를 반복한다. 민수가 걸으면 우비도 따라 움직이는데, 그럴 때마다 민수의 몸과 우비가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영우는 움직일 때마다 나는 우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본다.



준호는 또래와 함께 물웅덩이에 들어가 걸어 보기도 하고, 텀벙거리기도 하고, 폴짝 뛰어 보기도 하며 물의 일렁임이 달라지는 것을 탐색한다. “우와, 멋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장화 신은 발을 물에 천천히 잠기도록 하여 물이 천천히 퍼지게 해 보기도 한다.

준호는 물이 퍼지지 않도록 발을 들지만, 또래들이 움직일 때 물이 일렁이는 모습을 바라본다. 정우는 물웅덩이에 손을 담가 보며 “따뜻해.”라고 말하고, 또래가 폴짝 뛰자 물을 맞은 정우는 “시원해.”라고 말한다.

하윤이는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을 주워 물웅덩이 위로 던지고, 발로 물장구를 친다. 물웅덩이에 뜬 나뭇잎을 보고 배를 떠올리며, “선생님, 이거 배야!”라고 말한다.



■ 5개 영역으로 통합적 배움 읽기

비 오는 날 바깥 놀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보라반 영아는 교사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요구하여 비를 맞으며 놀이하는 것을 즐긴다(사회관계). 영아의 상체를 덮는 큰 우비는 영아가 평상시 걷는 것과 다르게 몸을 크게 움직여야 걸을 수 있게 한다. 영아는 우비가 몸의 움직임을 다르게 하는 것을 알지만 비를 맞으며 걷는 것이 즐겁다(신체운동·건강). 영아가 맨발로 걸어 다니며 발이 물과 부딪히며 만드는 물살의 부드러움, 물의 찰랑거림을 촉감과 소리로 경험한다(신체운동·건강). 지호는 서서 우비로 떨어지는 비를 맞으며 빗소리를 듣고, 손을 뻗어 비를 느껴보며 내리는 비에 주의를 기울이며 관찰한다(자연탐구). 정우는 우비를 입은 몸을 움직이려고 팔을 크게 젖고, 다리를 높이 들고, 보폭을 넓혀 걷기를 반복하며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임을 즐긴다(신체운동·건강). 민수는 몸을 움직일 때마다 우비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를 반복하며 몸의 움직임이 만드는 우비의 모양을 관찰한다(자연탐구). 영우는 몸을 움직일 때 몸과 우비가 부딪혀 나는 소리가 달라지는 것에도 관심을 가진다(신체운동·건강).

준호는 또래와 함께 물웅덩이에 들어가 걸어 보며 함께 놀이하기를 즐기며 구성원으로서 즐거움을 알아 간다(사회관계). 준호는 물웅덩이에 들어가 걷고, 텀벙거리고, 폴짝 뛰어 보며 움직임에 따라 물의 일렁임이 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아름답다고 표현한다(신체운동·건강/예술경험). 정우는 고여 있는 빗물과 물방울이 얼굴에 닿을 때 느끼는 물의 온도 차이를 발견하며 즐거워하고(신체운동·건강/자연탐구), ‘따뜻하다’, ‘시원하다’는 말로 느낌의 차이를 표현한다(의사소통). 하윤이는 웅덩이에 나뭇잎을 던지고, 발장구로 물에 일렁임을 만들어 나뭇잎을 띄워 보고(신체운동·건강/자연탐구), 나뭇잎을 배로 상상하여 이야기 짓기를 시작한다(의사소통).

※ 5개 영역 42개 내용 중 놀이 맥락과 연결되는 두드러진 내용을 배움의 구체적 내용으로 기술하고 영역은 괄호 안에 표시함.

▣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영아의 배움 읽기

영아의 놀이를 따라가며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향하는 영아의 배움을 읽을 수 있다.

보라반 영아는 온몸으로 비를 느끼고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며 신체활동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 영아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 영아는 비를 온몸으로 만나며 자연과 교감하고 환호하며, 놀면서 마음의 안정을 느끼며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믿음이 생긴다.

모든 영아는 동일한 놀이를 하는 듯 보이지만, 고유한 배움을 주도적으로 만들며 **주도적인 아이**로도 성장하고 있다. 발의 움직임을 바꿀 때마다 물의 일렁임이 달라지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몰입하며 탐구하는 **창의적인 아이**로, 자연을 좋아하는 **감수성이 있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해설서

부 록

1.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 고시문

2. 표준보육과정(0~2세) 신규대비표

3.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 한눈에 보기

1.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 고시문

교육부고시 제2024-23호

「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8의4에 의거하여 표준보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교육부장관

표준보육과정 고시 본 칙

1. 표준보육과정 : 붙임 참고
2. 재검토기한 :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준보육과정의 성격

표준보육과정은 0~5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이며,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으로 구성한다.

-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 나.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 다. 영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 라. 영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 마. 영유아, 교사, 원장, 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 가는 것을 추구한다.

1. 표준보육과정의 구성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건강한 사람
- 나. 자주적인 사람
- 다. 창의적인 사람
- 라. 감성이 풍부한 사람
- 마. 더불어 사는 사람

2. 목적과 목표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가. 0~1세 보육과정 및 2세 보육과정 목표
 -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한다.
 - 2)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한다.
 - 3)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상상력을 기른다.

- 4) 일상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감성을 기른다.
- 5)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나. 3~5세 보육과정 목표

-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 2)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 3)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 4)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 5)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3. 구성의 중점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가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임을 전제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구성한다.

- 가.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나.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 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라. 0~5세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 마.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II. 표준보육과정의 운영

1. 편성·운영

다음의 사항에 따라 표준보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가. 각 기관의 운영 시간에 맞추어 편성한다.
- 나.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다.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 라.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 마. 영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 바.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 사. 교사 연수를 통해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수·학습

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영유아를 지원한다.

- 가. 영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 나.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 다.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 라. 영유아와 영유아, 영유아와 교사, 영유아와 환경 사이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마.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영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 바.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사. 영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3. 평가

평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 가.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 나. 영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 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 라. 평가의 결과는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표준보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0~1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

I. 신체운동·건강

1. 목표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 1) 감각 경험과 신체활동을 즐긴다.
- 2) 건강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 3)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신체활동 즐기기	•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 • 신체와 주변을 탐색한다. •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 기본 운동을 시도한다. •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 • 음식에 관심을 가진다. •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II. 의사소통

1. 목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 1) 일상생활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즐긴다.
- 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 3) 책과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듣기와 말하기	•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 •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 책에 관심을 가진다. •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Ⅲ. 사회관계

1. 목표

나를 알아가며,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한다.

- 1) 나를 알고 긍정적으로 여긴다.
- 2) 함께 지내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의 고유함을 알아간다. • 나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한다. • 나에게 친숙한 것을 안다.
더불어 생활하기	•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IV. 예술경험

1. 목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 1)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 2) 자유롭게 예술 표현을 한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아름다움 찾아보기	•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 •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 다양한 미술 재료를 경험한다. • 모방하기를 즐긴다.

V. 자연탐구

1. 목표

주변 환경과 자연을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 1) 일상에서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 2)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다.
- 3)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탐구과정 즐기기	• 주변 환경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 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 •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 규칙성을 경험한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 날씨의 변화를 느낀다.

제3장

2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

I. 신체운동·건강

1.
목표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 1) 감각 경험과 신체활동을 즐긴다.
- 2) 건강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 3)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신체활동 즐기기	•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 •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 기본 운동을 즐긴다. •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해 본다. •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 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한다. •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II. 의사소통

1. 목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 1) 일상생활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즐긴다.
- 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 3) 책과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듣기와 말하기	•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 •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 책에 관심을 가진다. •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Ⅲ. 사회관계

1. 목표

나를 알아가며,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한다.

- 1) 나를 알고 긍정적으로 여긴다.
- 2) 함께 지내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의 고유함을 알아간다. • 나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한다. • 나에게 친숙한 것을 안다.
더불어 생활하기	•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IV. 예술경험

1. 목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 1)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 2) 자유롭게 예술 표현을 한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아름다움 찾아보기	•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한다. •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한다. •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한다. • 상상놀이를 한다.

V. 자연탐구

1. 목표

주변 환경과 자연을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 1) 일상에서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 2)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다.
- 3)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탐구과정 즐기기	• 주변 환경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 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 •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 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

제4장

3~5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

I. 신체운동·건강

1. 목표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한다.

- 1) 신체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 2)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 3)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신체활동 즐기기	•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 기초적인 이동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한다. • 실내외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 •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는다. • 하루 일과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 • 교통안전 규칙을 지킨다. •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II. 의사소통

1. 목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을 기른다.

- 1)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긴다.
- 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 3)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듣기와 말하기	•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 고운 말을 사용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Ⅲ. 사회관계

1. 목표

자신을 존중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 1)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 2)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낸다.
- 3) 우리가 사는 사회와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더불어 생활하기	•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 친구와 어른께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사회에 관심 가지기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 •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IV. 예술경험

1. 목표

아름다움과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 표현을 즐긴다.

- 1) 자연과 생활 및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 2) 예술을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즐긴다.
- 3)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아름다움 찾아보기	•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노래를 즐겨 부른다. • 신체, 사물, 악기로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본다. • 신체나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
예술 감상하기	•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즐긴다. •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 우리나라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V. 자연탐구

1. 목표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진다.

- 1) 일상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즐긴다.
- 2) 생활 속의 문제를 수학적,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 3)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탐구과정 즐기기	•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진다. •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 탐구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가진다.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본다. •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한다. •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다. •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 생명과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짓는다.

부 칙

2.

표준보육과정(0~2세) 신규대비표

현행	개정안
1.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 첨부파일 참고 2. 재검토기한 :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27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 표준보육과정 : ----- 2. ----- ----- -----2025년 3월 1일----- -----시점----- -----. 이 고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준보육과정의 성격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하, ‘표준보육과정’이라 함)은 0~5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이며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으로 구성한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나.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다. 영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라. 영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마. 영유아, 교사, 원장, 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 가는 것을 추구한다.	표준보육과정의 성격 표준보육과정은 0~5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이며,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으로 구성한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나.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다. 영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라. 영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마. 영유아, 교사, 원장, 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 가는 것을 추구한다.

제1장 총론

Ⅰ. 표준보육과정의 구성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건강한 사람
- 나. 자주적인 사람
- 다. 창의적인 사람
- 라. 감성이 풍부한 사람
- 마. 더불어 사는 사람

2. 목적과 목표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0~2세 보육과정 목표

-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한다.
- 2)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한다.
- 3)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상상력을 기른다.
- 4) 일상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감성을 기른다.
- 5)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나. 3~5세 보육과정 목표

-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 2)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 3)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 4)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 5)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제1장 총론

Ⅰ. 표준보육과정의 구성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표준보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건강한 사람
- 나. 자주적인 사람
- 다. 창의적인 사람
- 라. 감성이 풍부한 사람
- 마. 더불어 사는 사람

2. 목적과 목표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0~1세 보육과정 및 2세 보육과정 목표

-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한다.
- 2)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한다.
- 3)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상상력을 기른다.
- 4) 일상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감성을 기른다.
- 5)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나. 3~5세 보육과정 목표

-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 2)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 3)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 4)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 5)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현행	개정안
3. 구성의 중점 표준보육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가. 영유아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임을 전제로 구성한다. 나.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다.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라. 표준보육과정은 다음의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1)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2) 3~5세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마. 0~5세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구성의 중점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가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임을 전제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구성한다. 〈삭 제〉(선행문구와 통합) 가.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라. 0~5세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마.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II. 표준보육과정의 운영 1. 편성·운영 다음의 사항에 따라 표준보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가.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에 맞추어 편성한다. 나.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다.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라.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마. 영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바.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II. 표준보육과정의 운영 1. 편성·운영 다음의 사항에 따라 표준보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가. 각 기관의 운영 시간에 맞추어 편성한다. 나.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다.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라.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마. 영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바.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현행	개정안
사. 교사 연수를 통해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수·학습 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영유아를 지원한다. 가. 영유아의 의사 표현을 존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나. 영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다.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라.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마. 영유아와 영유아, 영유아와 교사, 영유아와 환경 사이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바. 각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영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사.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 영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3. 평가 평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가.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나. 영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의 결과는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표준보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사. 교사 연수를 통해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수·학습 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영유아를 지원한다. 〈삭 제〉 가. 영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나.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다.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라. 영유아와 영유아, 영유아와 교사, 영유아와 환경 사이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영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바.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 영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3. 평가 평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가.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나. 영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의 결과는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표준보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2장 0~1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 I. 기본생활 1. 목표 <u>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u> 1) 건강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2)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2. 내용 <table> <tr> <th>내용범주</th><th>내용</th></tr> <tr> <td>건강하게 생활하기</td><td> •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 •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 배변 의사를 표현한다. </td></tr> <tr> <td>안전하게 생활하기</td><td> •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td></tr> </table> II. 신체운동 1. 목표 <u>감각으로 탐색하고 신체활동을 즐긴다.</u> 1) 감각 탐색을 즐긴다. 2) 신체활동을 즐겁게 경험한다.	내용범주	내용	건강하게 생활하기	•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 •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 배변 의사를 표현한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제2장 0~1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 <u>〈삭 제〉 (신체운동·건강 영역에 통합)</u> I. 신체운동·건강 1. 목표 <u>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 생활을 경험한다.</u> 1) <u>감각 경험과 신체활동을 즐긴다.</u> 2) 건강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3)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내용범주	내용						
건강하게 생활하기	•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 •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 배변 의사를 표현한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현행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감각과 신체인식하기	• 감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 감각으로 주변을 탐색한다. • 신체를 탐색한다.
신체활동 즐기기	•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 기본 운동을 시도한다. •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Ⅲ. 의사소통

1. 목표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를 형성한다.

- 1) 일상생활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즐긴다.
- 2) 읽기와 쓰기에 관련된 관심을 가진다.
- 3) 책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듣기와 말하기	•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 •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 책에 관심을 가진다. •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개정안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신체활동 즐기기	•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 • 신체와 주변을 탐색한다. •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 기본 운동을 시도한다. •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 • 음식에 관심을 가진다. •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Ⅱ. 의사소통

1. 목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 1) 일상생활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즐긴다.
- 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 3) 책과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듣기와 말하기	•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 •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 끼적이기에 관심을 가진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 책에 관심을 가진다. •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현행

Ⅳ. 사회관계

1. 목표

나를 인식하고, 친숙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 1) 나를 고유한 존재로 안다.
- 2)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또래, 교사와 함께 지낸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를 인식한다. •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낸다. • 나와 친숙한 것을 안다.
더불어 생활하기	•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Ⅴ. 예술경험

1. 목표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한다.

- 1)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다.
- 2) 예술적 경험을 표현한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아름다움 찾아보기	•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진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 • 감각을 통해 미술을 경험한다. • 모방 행동을 즐긴다.

개정안

Ⅲ. 사회관계

1. 목표

나를 알아가며,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한다.

- 1) 나를 알고 긍정적으로 여긴다.
- 2) 함께 지내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의 <u>고유함을 알아간다</u>. • 나의 욕구와 감정을 <u>표현한다</u>. • 나에게 친숙한 것을 안다.
더불어 생활하기	•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Ⅳ. 예술경험

1. 목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 1)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 2) 자유롭게 예술 표현을 한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아름다움 찾아보기	•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 <u>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u>.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 • 움직임으로 표현한다.〈신 설〉 • 다양한 미술 재료를 경험한다. • 모방하기를 즐긴다.

현행

Ⅵ. 자연탐구

1. 목표

주변 환경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

- 1) 일상에서 탐색을 즐긴다.
- 2) 주변 환경을 탐색한다.
- 3)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탐구과정 즐기기	•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 규칙성을 경험한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 날씨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

제3장 2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

Ⅰ. 기본생활

1. 목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형성한다.

- 1) 건강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형성한다.
- 2) 안전한 생활습관의 기초를 형성한다.

개정안

Ⅴ. 자연탐구

1. 목표

주변 환경과 자연을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 1) 일상에서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 2)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다.
- 3)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탐구과정 즐기기	• 주변 환경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 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 •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 규칙성을 경험한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 날씨의 변화를 느낀다.

제3장 2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

〈삭 제〉 (신체운동·건강 영역에 통합)

현행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건강하게 생활하기	•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해 본다. •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먹는다. • 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한다. •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해 본다. •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II. 신체운동

1. 목표

감각을 활용하고, 신체활동을 즐긴다.

- 1) 감각을 활용하고, 신체를 인식한다.
- 2) 신체활동을 즐긴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 감각 능력을 활용한다. •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신체활동 즐기기	•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 기본 운동을 즐긴다. •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개정안

I. 신체운동·건강

1. 목표

실내외에서 신체활동을 즐기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 생활을 경험한다.

- 1) 감각 경험과 신체활동을 즐긴다.
- 2) 건강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 3)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신체활동 즐기기	•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 •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 기본 운동을 즐긴다. •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해 본다. •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 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한다. •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현행

Ⅲ. 의사소통

1. 목표

의사소통 능력과 상상력의 기초를 형성한다.

- 1) 일상생활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즐긴다.
- 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 3) 책과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듣기와 말하기	• 표정, 몸짓, 말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 표정, 몸짓, 단어로 의사를 표현한다. •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 주변의 그림과 상징,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 •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 •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Ⅳ. 사회관계

1. 목표

나를 알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한다.

- 1) 나를 알고 긍정적으로 여긴다.
- 2) 다른 사람과 즐겁게 지내기 위한 태도를 기른다.

개정안

Ⅱ. 의사소통

1. 목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 1) 일상생활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즐긴다.
- 2)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진다.
- 3) 책과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듣기와 말하기	• 표정, 몸짓,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삭 제〉 •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 •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Ⅲ. 사회관계

1. 목표

나를 알아가며, 더불어 생활하는 경험을 한다.

- 1) 나를 알고 긍정적으로 여긴다.
- 2) 함께 지내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현행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한다. •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 •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
더불어 생활하기	• 가족에게 관심을 가진다. • 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반응한다. • 반에서의 규칙과 약속을 알고 지킨다.

V. 예술경험

1. 목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 1)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관심을 가진다.
- 2) 예술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한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아름다움 찾아보기	•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한다. •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해 본다. • 일상생활 경험을 상상놀이로 표현한다.

개정안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나를 알고 존중하기	• 나의 고유함을 알아간다. • 나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한다. •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 본다.
더불어 생활하기	• 가족에게 관심을 가진다. • 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안다.

IV. 예술경험

1. 목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 1)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 2) 자유롭게 예술 표현을 한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아름다움 찾아보기	•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한다. •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한다. •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한다. • 상상놀이를 한다.

현행

Ⅵ. 자연탐구

1. 목표

주변 환경과 자연을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 1) 일상에서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 2)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다.
- 3)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탐구과정 즐기기	•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 사물과 자연을 반복하여 탐색하기를 즐긴다.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 친숙한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진다. •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 주변 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낀다.

제4장 3~5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
(생략)

개정안

Ⅴ. 자연탐구

1. 목표

주변 환경과 자연을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 1) 일상에서 탐색하는 과정을 즐긴다.
- 2)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한다.
- 3)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진다.

2. 내용

내용범주	내용
탐구과정 즐기기	• 주변 환경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 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 •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 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

제4장 3~5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
(현행과 같음)

3.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 한눈에 보기

0~2세

I. 신체운동·건강			II. 의사소통		
	0~1세	2세		0~1세	2세
신체활동 즐기기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		듣기와 말하기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표정, 몸짓,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신체와 주변을 탐색한다.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기본 운동을 시도한다.	기본 운동을 즐긴다.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해 본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음식에 관심을 가진다.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끼적이지기에 관심을 가진다.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한다.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에 관심을 가진다.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Ⅲ. 사회관계			Ⅳ. 예술경험			Ⅴ. 자연탐구		
	0~1세	2세		0~1세	2세		0~1세	2세
나를 알고 존중 하기	나의 고유함을 알아간다.		아름 다움 찾아 보기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탐구 과정 즐기기	주변 환경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나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한다.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나에게 친숙한 것을 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본다.						
더불어 생활 하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가족에게 관심을 가진다.	창의적 으로 표현 하기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한다.	생활 속에서 탐구 하기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또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또래와 함께 놀이한다.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한다.		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다양한 미술 재료를 경험한다.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한다.		규칙성을 경험한다.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안다.		모방하기를 즐긴다.	상상놀이를 한다.		사물을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한다.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자연과 더불어 살기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날씨의 변화를 느낀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

0~5세

I. 신체운동·건강				II. 의사소통				
	0~1세	2세	3~5세		0~1세	2세	3~5세	
신체활동 즐기기	다양한 감각을 경험한다.			듣기와 말하기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표정, 몸짓, 말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신체와 주변을 탐색한다.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대소근육을 조절한다.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기본 운동을 시도한다.	기본 운동을 즐긴다.	기초적인 이동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한다.					
	실내외 신체활동을 즐긴다.		실내외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낸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한다.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건강하게 생활하기	도움을 받아 몸을 깨끗이 한다.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해 본다.	자신의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한다.	자신의 요구와 느낌을 말한다.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음식에 관심을 가진다.	음식을 즐겁게 먹는다.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태도로 즐겁게 먹는다.				고운 말을 사용한다.	
	하루 일과를 편안하게 경험한다.	하루 일과를 즐겁게 경험한다.	하루 일과에서 적당한 휴식을 취한다.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다.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끼적이지기에 관심을 가진다.	끼적이며 표현하기를 즐긴다.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에 관심을 가진다.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한다.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 본다.		교통안전 규칙을 지킨다.			말놀이와 이야기에 재미를 느낀다.		동화, 동사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Ⅲ. 사회관계				Ⅳ. 예술경험				Ⅴ. 자연탐구				
	0~1세	2세	3~5세		0~1세	2세	3~5세		0~1세	2세	3~5세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나의 고유함을 알아간다.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아름다움 찾아 보기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탐구 과정 즐기기	주변 환경과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다.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진다.	
	나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한다.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긴다.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탐구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가진다.					
	나에게 친숙한 것을 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본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한다.	익숙한 노래와 리듬을 표현한다.	노래를 즐겨 부른다.					
더불어 생활하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	가족에게 관심을 가진다.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움직임과 춤으로 표현한다.	신체, 사물, 악기로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본다.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도래에게 관심을 가진다.	도래와 함께 놀이한다.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 좋게 지낸다.				신체나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일상에서 수에 관심을 가진다.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본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다양한 미술 재료를 경험한다.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표현한다.	공간과 모양을 탐색한다.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친구와 어른께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한다.		
	반에서 편안하게 지낸다.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안다.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모방하기를 즐긴다.	상상놀이를 한다.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즐긴다.		규칙성을 경험한다.	규칙성에 관심을 가진다.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다.	
							다양한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사물을 갖고 다룸에 따라 구분한다.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생활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사회에 관심 가지기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예술 감상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날씨의 변화를 느낀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짓는다.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우리나라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해설서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고시문 개발 연구진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해설서 집필진

연구책임자 김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연구책임자 김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강 은 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권 혜 진 나사렛대학교 교수
김 윤 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김 희 수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박 은 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임 부 연 부산대학교 교수
정 선 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강 은 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권 혜 진 나사렛대학교 교수
김 윤 희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김 형 미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김 희 수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김 희 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 유 정 서울대학교 교수
박 은 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성 지 현 성균관대학교 교수
손 연 주 동명대학교 초빙교수
안 소 영 인덕대학교 교수
오 채 선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 영 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이 정 은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임 부 연 부산대학교 교수
정 선 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조 우 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차 기 주 가천대학교 교수
한 유 진 안산대학교 교수

협력어린이집 국회제2어린이집
동부법원어린이집
부산대부설어린이집
서울아산병원제2어린이집
서울창3동어린이집
시립풍무푸르지오어린이집
창원법원어린이집
LG사랑어린이집

(이상, 가나다순)

(이상, 가나다순)

총괄기획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강은진 선임연구위원, 배윤진 연구위원, 김지현 연구위원, 김지원 부연구위원,
김혜진 전문연구위원, 최윤경 전문연구위원, 김희수 전문연구위원, 이정은 연구원 (이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협력관 문복진 교육연구관, 이해나 교육연구사, 이혜리 주무관 (이상, 교육부)

발행일	2025년 2월 28일
발행처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www.moe.go.kr
디자인	(주)유월애디자인 (전화 02-859-2278)
인쇄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전화 02-2279-6760)

이 책을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발간등록번호 11-1342000-100052-01

ISBN 979-11-6865-109-8 94370



2024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해설서

